I·SEOUL·U
너와 나의 서울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발 간 등 록 번 호
51-6113815-000016-01

서고보관료 완화

2021년
서울기록화 사업

2021.12

서울기록원
SEOUL METROPOLITAN ARCHIVES

2021

2021년 서울기록화 사업 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2021년 서울기록화 사업

결과보고서

2021년 12월 6일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2021년 서울기록화 사업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년 12월 6일

수 행 사 주식회사 매너티

사업책임자 장태성 (주식회사 매너티 대표)

참여연구원 송치호 (주식회사 매너티 연구원)
김동민 (주식회사 매너티 연구원)
윤건중 (주식회사 매너티 연구원)
최규엽 (주식회사 매너티 연구원)
문향기 (주식회사 매너티 연구원)
김선식 (주식회사 매너티 연구원)
손정미 (주식회사 매너티 연구원)
임기웅 (주식회사 매너티 연구원)

서울기록원

목 차

I. 사업 개요 ····· 1

1. 사업목적 및 수행전략 ····· 2

1.1 사업목적 ····· 2

1.2 수행전략 ····· 4

2. 사업의 특징 ····· 5

3. 사업 수행의 주요 내용 ····· 6

3.1 수집 ····· 6

3.2 네트워크 ····· 8

3.3 콘텐츠 ····· 9

4. 조직구성 및 추진일정 ····· 10

4.1 조직구성 ····· 10

4.2 추진일정 ····· 11

II. 사업 추진 내용 ····· 12

1. 서울기록 수집 ····· 13

1.1 수집 실행 ····· 13

1.1.1 수집 실행 개요 ····· 13

1.1.2 'S-NAP 3.3.1 재래시장' 수집 ····· 15

1.1.3 'S-NAP 6.1.4 마을 만들기 지원' 수집 ····· 22

1.2 다큐멘터리 ····· 26
1.2.1 아카이빙 다큐멘터리 '재래시장' ····· 26
1.2.2 아카이빙 다큐멘터리 '마을 만들기 지원' ····· 28
1.3 기존 수집기록 정리 ····· 30
1.3.1 기존 수집기록 정리 배경 ····· 30
1.3.2 기존 수집기록 정리 결과 ····· 31
1.4 서울기록원 수집평가 프로세스 제안 ····· 33
1.4.1 배경설명 ····· 33
1.4.2 서울기록원 수집평가 설계 ····· 34
1.4.3 서울기록원 수집평가 세부 프로세스 시범운영안 ····· 43
1.5 S-NAP 정비 ····· 47
1.5.1 S-NAP 정비 개요 ····· 47
1.5.2 S-NAP 정비 결과 ····· 47
1.5.3 S-NAP 정비 제안 ····· 49
2. 네트워크 ····· 57
2.1 네트워크 운영 개요 ····· 57
2.1.1 네트워크 운영 진행 방향 ····· 57
2.1.2 네트워크 운영 성과 ····· 58
2.2 네트워크 진행 ····· 58
2.2.1 네트워크 대상선정 ····· 59
2.2.2 네트워크 면담 ····· 63
2.3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 ····· 69

2.3.1 서울 기록레터 ····· 69
2.3.2 네트워크 굿즈 ····· 71
2.3.3 네트워크 교육 프로그램 ····· 72
2.4 네트워크 3개년 상시 운영방안 ····· 74
2.4.1 2019-2021년 네트워크 운영 결과분석 ····· 74
2.4.2 네트워크 운영 발전을 위한 핵심 성공요소 및 전략목표 ····· 75
2.4.3 실행 방안 ····· 76
2.4.4 네트워크 3개년 실행 계획 및 로드맵 ····· 78
3. 2021 서울기록페어 ····· 81
3.1 2021 서울기록페어 목적 ····· 81
3.2 2021 서울기록페어 기획 ····· 81
3.3 2021 서울기록페어 진행 ····· 87
3.4 2021 서울기록페어 결과 ····· 90
4. 서울 아카이빙 북 ····· 91
5. 수집기록 콘텐츠 ····· 95
5.1 수집기록 콘텐츠 개요 ····· 95
5.2 서울의 기록과 기억지도 ····· 95
5.3 서울을 기록하는 사람들 ····· 98

III. 마치며 ····· 99

부록 ····· 103

1. 서사형 아카이브 보기 ····· 103

최종 산출물

표 차 례

표 1 2021 서울기록페어 기획 및 운영 ····· 8
표 2 사업추진일정표 ····· 11
표 3 S-NAP 적절성 평가 ····· 36
표 4 2020년 S-NAP 정비 전략의 방향성 ····· 37
표 5 수집계획 평가 ····· 38
표 6 서울기록화 사업 연차별 예산 및 수집결과 현황 ····· 39
표 7 수집실행 평가 ····· 40
표 8 수집실행 평가지 ····· 41
표 9 수집결과 평가 ····· 42
표 10 수집완료 평가 ····· 43
표 11 S-NAP 적절성 평가 세부단계 ····· 44
표 12 수집계획 평가 세부단계 ····· 44
표 13 수집활동 평가 세부단계 ····· 44
표 14 수집활동 평가 세부단계 ····· 45
표 15 수집사업 완료단계 평가 세부단계 ····· 45
표 16 재래시장 수집기록 유형 ····· 48
표 17 네트워크 진행 프로세스 ····· 58
표 18 네트워크 영역별 특성 ····· 59
표 19 1, 2차 네트워크 리드 후보군 목록 ····· 60
표 20 1차 네트워크 접촉일지 예시 ····· 64
표 21 네트워크 면담 요구사항 ····· 64
표 22 네트워크 면담 주요 내용 ····· 66
표 23 서울 기록레터 사양 ····· 69
표 24 서울 기록레터 1호 콘텐츠 ····· 70
표 25 서울 기록레터 2호 콘텐츠 ····· 70

표 26 기록관리 교육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 73
표 27 2019-2021년 네트워크 면담 요구사항 ····· 74
표 28 개선방향 사전실행 절차 ····· 75
표 29 실행 계획 ····· 76
표 30 네트워크 3개년 로드맵 ····· 78
표 31 SCAAF 메뉴 구성 ····· 80
표 32 세부 홍보 실행 계획 ····· 85
표 33 서울기록페어 일정 및 장소 ····· 87
표 34 2021 서울기록페어 1일 차 프로그램 시간표 ····· 87
표 35 2021 서울기록페어 2일 차 프로그램 시간표 ····· 88
표 36 2021 서울 아카이빙 북 제작 사양 ····· 91
표 37 2021 서울 아카이빙 북 콘텐츠 개요 ····· 92

그 림 차 례

그림 1 조직구성도 ····· 10
그림 2 수집 리드파일과 수집 케이스파일 ····· 13
그림 3 현지조사서 예시 ····· 14
그림 4 수집절차도 ····· 14
그림 5 동대문 문구완구시장 수집기록 ····· 19
그림 6 정릉시장 수집기록 ····· 19
그림 7 망원시장 수집기록 ····· 20
그림 8 남성사계시장 수집기록 ····· 21
그림 9 금천마을공동체 수집기록 ····· 24
그림 10 강남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수집기록 ····· 25
그림 11 〈아이들의 환상이 보이는 단 하나의 시장, 동대문 문구 완구〉 다큐멘터리 ···· 27
그림 12 〈금천구 마을공동체 “오늘도 차곡 차곡 금천”〉 다큐멘터리 ····· 29
그림 13 구 질병관리본부 수집기록 목록 ····· 31
그림 14 2018년 수집기록 작성 목록 ····· 31
그림 15 2020년 S-NAP 구조 정비 결과 ····· 32
그림 16 2019년 수집기록 목록 ····· 32
그림 17 S-NAP 정비팀과 수집팀의 상호보완 관계도 ····· 34
그림 18 S-NAP 기반 수집실행 프로세스 ····· 35
그림 19 수집평가 프로세스 ····· 35
그림 20 서울기록원 수집평가 세부 프로세스 시범운영안 ····· 46
그림 21 네트워크 구축 프로세스 ····· 57
그림 22 이메일을 통한 네트워크 리드 접촉 예시 ····· 63
그림 23 아마추어서울 사전질문지 및 면담일지 ····· 68
그림 24 시민방송RTV 사전질문지 및 면담일지 ····· 68
그림 25 서울 기록레터 1호와 서울 기록레터 2호 ····· 70

그림 26 서울기록원 네트워크 굿즈 시안 및 실물 ····· 71
그림 27 기록관리 교육 ····· 72
그림 28 기록관리 교육 강의자료 ····· 72
그림 29 기록관리 교육 만족도 설문지 ····· 73
그림 30 2021 서울기록페어 서울기록 네트워크 소개전시 ····· 82
그림 31 2021 서울기록페어 2층 특별전시실 행사장 ····· 82
그림 32 2021 서울기록페어 메인 화면 ····· 83
그림 33 2021 서울기록페어 서울기록 네트워크 화면 ····· 84
그림 34 2021 서울기록페어 홍보 배너 ····· 84
그림 35 2021 서울기록페어 서울기록친구들 이야기 화면 ····· 84
그림 36 2021 서울기록페어 홍보 포스터 ····· 86
그림 37 〈성벽 밖 첫 번째 마을〉과 〈우린 다르게 살기로 했다. 오늘공동체〉 ····· 88
그림 38 2021 서울기록페어 네트워크 세션 발표 ····· 89
그림 39 2021 서울기록페어 기록강연 ····· 89
그림 40 2021 서울기록페어 온라인 참가자 현황 ····· 90
그림 41 2021 서울 아카이빙 북 표지 ····· 92
그림 42 서울의 기록과 기억지도 디자인 시안 ····· 96
그림 43 서울의 기록과 기억지도 설치 현장 모습 ····· 96
그림 44 2021 서울기록페어의 네트워크 소개 시안 ····· 97
그림 45 서울을 기록하는 사람들 '오늘공동체_한강팀' 디자인 시안 ····· 98
그림 46 서울을 기록하는 사람들 '늙은 간판 이야기(양두환)' 디자인 시안 ··· 98
그림 47 서울기록원 중·장기 로드맵 및 5대 핵심과제 ····· 100

Ⅰ.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및 수행전략

2. 사업의 특징

3. 사업 수행의 주요 내용

4. 조직구성 및 추진일정

일러두기

본 보고서에서는 'S-NAP(Seoul-Narrative Archiving Policy)'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서울기록원이 2019년에 만들고, 지난해 수정·보완한 '서울 서사형 기록화 지침'을 말합니다. 서울기록원은 서울기록의 수집활동과 기록활동 네트워크 구축을 본 사업의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시민기록의 수집활동에 있어 '수집실행 계획서'부터 서사를 기반한 S-NAP을 참조·적용하여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등장하는 용어이므로 이후 'S-NAP'으로 약칭합니다.

1. 사업목적 및 수행전략

1.1 사업목적

❒ **S-NAP에 기반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울기록화 추진**

- 시정기록과 시민기록의 수집을 통한 서울의 역사와 시민의 삶을 기록화함
- 대표성과 상징성을 지닌 인물, 사건, 장소, 현상 등을 서사와 연결해 맥락을 드러내고 삶의 구성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다원적이고 총체적 기록화를 통해 서울을 재현하고자 함
- S-NAP의 구조는 세계적인 경향을 반영하여 삶의 물질적·정신적·사회적 영역을 아우르는 근간이 되는 개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집주제의 선정 과정에서부터 S-NAP을 기반하여 서울기록의 식별과 보완, 수집의 도구로 활용함
- 다큐멘터리 아카이빙, 서울 아카이빙 북 등 기존 서울기록원의 다양한 수집 방법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집 체계를 강화함

❒ **서울기록 네트워크와 협력체계 구축 및 기록활동 활성화를 위한 상시 네트워크 운영**

- 서울시와 관계를 형성해야 할 대상을 공공·협치·민간 영역으로 구분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함
- 기록활동 주체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자생을 위해 '라포(Rapport)' 형성 프로그램에 주력함
- 서울기록 네트워크가 기록학적 기본 개념을 이해하여 기록과 기록관리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프로그램으로 서울기록페어 기록관리 교육을 운영함
- 서울기록 네트워크의 수집기록 활용 전시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함
- 네트워크 운영의 결과물로 2021 서울기록페어를 개최하여 기록활동가를 양성하고 기록문화의 저변을 확장함

❒ **기존 서울기록화 사업 수집기록 목록 정비**

-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수집기록 목록을 정비함
- 서울디지털아카이브(SDA) 시스템의 기술항목을 2020년 서울기록화 사업 수집기록 목록 기술항목과 매핑함
- 수집평가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시범운영 안(案)을 제안함

❒ **2018-2020년 서울기록화 사업을 바탕으로 기존 수집기록 정리·평가 및 활용**

- S-NAP을 기반으로 한 서울기록 수집활동과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의 과정에서 다양한 기록 콘텐츠를 선보이고, 기록활동을 하는 단체와 개인이 적극적으

로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참여 공간을 확장함

- ∘ 수집기록의 관리번호, 서사정보, 수집정보 등을 정리하여 목록으로 정리함
- ∘ 수집기록 콘텐츠는 ‘분류형 아카이브’, ‘서사형 아카이브 보기’, ‘다큐멘터리 아카이브’를 개발함
  - ‘분류형 아카이브 보기’는 수집기록을 서사에 따라 분류·배치하여 보여줌
  - ‘서사형 아카이브 보기’는 각 수집주제에서 핵심 결과물을 선별하여 S-NAP의 서사를 수집기록을 통해 직관적으로 보여줌
  - ‘다큐멘터리 아카이브’는 수집기록으로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서사와 기억을 다큐멘터리로 생산하여 수집기록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

❐ 2021 서울기록페어 개최를 통한 서울의 기록문화 확산

- ∘ 서울기록화의 과정을 시민들이 간접적으로 경험하여 서울의 기록과 시민의 기억이 만나는 접점의 역할을 함
- ∘ 특히 네트워크의 구성원이 페어에 참여하여 발표함으로써 서울기록 생태계를 구축하는 모범사례로 작동함
- ∘ 서울기록문화 확산을 위한 서울 아카이빙 북을 출판하여 서울시민의 일상과 경험, 이야기를 공유하고 소통함
  - 다양한 기록활동을 통해 서울의 오늘을 해석하고 기록함으로써 서울의 기록문화 외연을 확장에 기여함
  - 서울시민의 기록활동 교류 및 기록생태계 구축의 소통 도구로 활용함
- ∘ ‘서울의 기록과 기억지도’, ‘서울을 기록하는 사람들’, ‘서울 기록레터’ 등 다양한 기록활동 콘텐츠와 네트워크 굿즈, 기록전문가 초청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기록활동가의 기록활동을 응원하고 자부심을 함양함
- ∘ 서울기록원을 중심으로 서울기록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록문화 확산을 선도함
- ∘ S-NAP의 방법론과 개별 기록활동 단위 아카이브의 자생적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지속할 수 있는 서울기록 수집의 기초를 마련함

1.2 수행전략

❒ **S-NAP 정비와 수집활동, 네트워크 활동의 유기적 연계**

- 2019년 개발한 S-NAP은 수집활동의 과정과 결과를 반영하여 지난해 2020년 수정·보완되었음
- S-NAP이 가진 유연성과 확장성은 사회적 이슈와 시민의 공감을 반영하여, 수집활동의 영역에서부터 시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목적임
- 수집활동을 통해 발견된 수집기록의 S-NAP 서사 내용을 연구팀과의 협업을 통해 수정 요청함
- S-NAP을 기반으로 하는 수집활동 중 접촉한 기록 보유자의 정보를 네트워크팀에 전달하여 기록생태계 조성에 반영함
- 네트워크 활동에서 발견된 네트워크 대상의 정보를 수집활동팀에 전달
- S-NAP과 수집전략, 기록 수집활동, 서울기록 네트워크 간 네트워킹이라는 사업 수행과정이 끊임없이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구조 생성함

❒ **서울 아카이빙 북, 다큐멘터리 아카이빙 등 전문가 조직 활용**

- 서울 아카이빙 북과 다큐멘터리 제작은 수집의 과정에서 연구팀과 유기적으로 결합 될 수 있는 출판 및 영상 제작 전문가 조직을 활용함

2. 사업의 특징

❒ 정초된 방법론의 현장 적용

- ∘ 현실 세계에 대한 문화적 표상으로서의 상징체계를 수집전략과 기록방법론에 구현함
- ∘ 이는 수집을 위한 선별의 가치 판단 과정에서 종래의 기능과 계층적 분류에 기반한 관점에서 나아가 다원적·다층적 수집전략을 적용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이 됨
- ∘ S-NAP이라는 방법론이 수집활동 현장에서 원칙과 지침을 제공하고 현장의 경험이 방법론에 반영되어 이론과 실무의 유기적인 결합을 견인함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사업 수행 조직을 구성

- ∘ 각 분야 전문가 그룹이 담당한 전략적 방법론과 구체적인 수집활동, 서울기록 네트워크가 순환하며 발전하면서 과제의 완성도를 높임
- ∘ 수집기록의 다양성을 포괄할 수 있는 텍스트와 영상, 공간정보 등 수집기록의 종류와 개별 매체성을 확보하고 아카이빙 맵을 응용한 시각화 등 직관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함

❒ 네트워크 생태계의 자생적 발전 유도

- ∘ 네트워크 구축 및 확장을 위한 활동이 각 주체의 자발성을 기초로 이루어지되, 수행조직이 이미 확보한 인적 관계망을 동원하여 자발적 활동의 촉매 역할을 하도록 함
- ∘ 워크샵, 서울기록페어 등 네트워크 촉진 활동의 기획부터 이론과 현실, 학계와 현장의 형식성을 지양하고 현장과 학계의 상보적 관계를 지향함
- ∘ 문화, 인류, 예술, 공연전시, 향토사학 등 다학제적 접근을 고려함

❒ 과제와 수행조직의 유기적 결합

- ∘ 상호 연관된 과제를 재구성하고 그 성격에 따라 해당 수행조직을 구성함
  - 서울기록페어를 서울기록 네트워크 구축 과제에 통합하여 서울기록 네트워크 구축의 결과가 서울기록페어에 반영되도록 구성함
- ∘ 수집 수행조직에 다큐멘터리 영상 제작 수행조직을 포함하여 수집활동 성과물에 반영토록 함
  - 다큐멘터리 기획에 수집실행 계획을 반영하여 일관된 서사를 견인함

3. 사업 수행의 주요 내용

3.1 수집

❒ 서울기록 수집

- 지방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 서울기록원의 핵심 기능은 시정기록의 관리와 더불어 시민기록과 협치기록을 수집·보존·활용하는 것이며, 이관을 통해 입수하는 시정기록과 시민기록, 협치기록의 양적·질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기록 수집이 요구됨
- 이에 따라 2021 서울기록화 사업에서는 시정기록과 시민·협치기록의 양적·질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서울의 사회적 기억을 기록화하기 위해 서울기록의 수집을 기획함
- 서울이라는 지역을 대상으로 S-NAP에 기반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록화를 수행함
  - S-NAP에 기반하여 수집주제를 선정하고 수집활동을 진행함
  - 원본수집, 디지털사본수집, 생산수집, 네트워크 수집 등 효과적인 수집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적용함
  - 수집활동의 과정과 산출물을 절차에 따라 수행·생산하여 타 과업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효과적인 수집활동을 전개함
- 수집활동을 통해 분류형 아카이브, 서사형 아카이브, 아카이브형 다큐멘터리(다큐멘터리 아카이브)를 제작하여 다양한 형태의 산출물로 수집기록을 제시함
- 수집기록을 수집 당시의 원질서를 존중하여 정리하되 보존·관리에 적합하도록 활동의 맥락도 고려함
- 정리한 수집기록을 출처, 서사 키워드, 원본파일명, 생산일, 수집유형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검색·접근이 가능하도록 목록화함
  - 2020년 수집기록 목록은 직접 생산한 기록과 기증받은 수집기록을 구분하지 않아 수집유형 파악이 번거로웠으나 2021년 수집기록 목록에서는 수집유형을 '디지털사본수집(기증)'과 '디지털사본수집(생산)'으로 명확히 구분함
  - 또한 다큐멘터리 아카이빙 과정에서 생산된 수집기록을 '디지털사본수집(생산)'으로 분류하고 "다큐멘터리생산기록"으로 별도 기술함

❒ 다큐멘터리 아카이빙

- 선정된 수집주제를 바탕으로 다큐멘터리를 기획·촬영하여 수집기록으로 충분히 드러나지 못한 서사를 영상기록으로 생산함
- 다큐멘터리 아카이빙은 기록학 전문가와 다큐멘터리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기록학적 원칙을 준수하면서 다큐멘터리의 장점을 접목하여 서사를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을 생산·수집함

- 수집팀과 다큐멘터리팀이 수집주제 선정, 수집 리드 발굴, 현지조사, 기록 수집, 다큐멘터리 촬영 등의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여 수집기록과 다큐멘터리가 상호보완적인 서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기존 수집기록 목록 정리

- ∘ 2018년~2019년까지 S-NAP이 개발되지 않았거나 최신 S-NAP으로 정비되기 이전의 수집기록 목록을 최신 S-NAP의 기술항목 규격에 맞춰 정비하여 수집기록의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의 기반을 갖춤
- ∘ 또한 기존 수집기록 목록의 정리 과정에서 발견한 이슈를 2021년도 수집기록의 목록화 과정에 반영함

❒ S-NAP 정비

- ∘ 2020년 서울기록화 사업에 따라 정비된 S-NAP을 2021년의 수집활동의 과정과 결과를 통해 수정 및 보완함

- ‘S-NAP 3.3.1 재래시장’과 ‘S-NAP 6.1.4 마을 만들기 지원’에 대한 일부 수집 서사의 내용을 보완하고 리드를 추가함

❒ 수집평가 프로세스

- ∘ 사업 초기 기존의 수집기록에 대한 가치평가를 목표로 과업을 추진하였으나 S-NAP이 그 자체로 평가도구라는 점에서 수집기록에 대한 평가가 아닌 ‘수집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평가로 과업을 변경함
- ∘ 서울기록원의 수집 사업 전반을 여러모로 평가하기 위한 도구를 제안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집평가 프로세스를 설계·제안함

3.2 네트워크

❒ 서울의 지역성이 반영된 기록활동 현황 조사

- 서울의 공공기관, 협치기관, 민간기관 및 개인의 기록활동을 조사하여 서울기록 네트워크를 구축함
- 서울의 지역성에 중점을 두고 기록활동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단체나 개인은 물론 현재 자발적 기록활동을 하는 네트워크를 조사·발굴해 실무에 도움을 주는 기록활동 지원 방안을 찾고자 함
- 서울기록원이 서울기록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대상기관과의 관계 맺기에 초점을 맞추어 네트워크를 운영함
- 기록활동 조사 후 영역별 면담대상을 선정하여 면담을 진행하고 면담일지를 작성하고 서울기록 네트워크 목록을 최신화함

❒ 네트워크 협력의 기반 마련

- 서울기록 네트워크와의 협력·교류, 성과를 공유하는 장(場)을 만들고자 서울기록 네트워크를 격려하고 소개하는 각종 콘텐츠 제작하고 서울기록페어를 개최함
- '서울의 기록과 기억지도'를 보수 및 최신화함
- 서울기록원의 뉴스레터인 '서울 기록레터'를 개발 및 발행하여 기록활동 네트워크 개인과 단체 활동을 소개하고 지원함
- '네트워크 굿즈'를 제작·배포하고 2021 서울기록페어를 통해 '기록관리 기본 교육'을 실시하여 기록활동 네트워크의 참여도를 높임

❒ 2021 서울기록페어 개최로 '기록 네트워크' 활성화

- 2021 서울기록페어 기획 및 운영하여 서울기록 네트워크를 활성화함

행사명	2021 서울기록페어
기획 의도	- 서울시민에게 서울기록화 사업 성과를 간접적으로 공유 - 서울기록 네트워크의 기록역량을 소개하여 횡적 네트워킹 활성화 - 서울의 대표기억기관으로서 서울기록원의 위상을 강화
일정	2021년 11월 12일(금) - 13일(토)
장소	서울기록원
개최방법	오프라인 프로그램 진행 및 온라인 중계
참여대상	서울기록원의 서울기록 네트워크, 연구자, 서울시민 등
프로그램	배너 전시 및 기록활동 홍보 쇼케이스 운영, 라운드테이블, 다큐멘터리 상영회, 강연, 서울기록원 견학 등

표 1 2021 서울기록페어 기획 및 운영

3.3 콘텐츠

❒ **2021 서울 아카이빙 북 〈서울은 시간을 기억합니다〉 제작 및 배포**

- ‘시민, 기록하다’를 통해 서울 전역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시민의 기록 활동 이야기를 담음
- ‘기록, 넓어지다’를 통해 2021년 서울기록화 사업의 수집주제 및 네트워킹 활동을 연계한 콘텐츠를 소개함
- ‘서울, 기록을 즐기다’를 통해 직업, 비즈니스 등 기록의 영역을 확장하는 콘텐츠를 조명함
- 기록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기획위원회를 운영하여 기록 콘텐츠의 외연을 확장하고, 차별화된 양식의 기록 콘텐츠를 생산하고자 함

❒ **‘서울의 기록과 기억지도’, ‘서울을 기록하는 사람들’ 상설 운영**

- 서울기록원 시민공간 내에 설치된 ‘서울의 기록과 기억지도’를 보수 및 최신화함
- ‘서울을 기록하는 사람들’을 제작·설치하여 시민들에게 기록활동을 선보여 기록활동 참여에 대한 의지를 고취함

4. 조직구성 및 추진일정

4.1 조직구성

❒ 조직구성도



그림 1 조직구성도

❒ 조직구성의 특징

- ◦ 수집팀에 다큐멘터리팀을 포함하여 수집활동과 다큐멘터리 제작의 연계를 강화함
- ◦ 수집팀과 네트워크팀의 상호보완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직을 구성함
  - 수집팀과 네트워크팀의 기록활동 조사 및 발굴 활동의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여 상호 연계를 강화함
- ◦ 실제 수집의 과정과 결과를 통해 정리·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조직을 구성함
- ◦ 네트워크 과정에서의 라포(rapport) 형성 및 강화를 위해 네트워크팀이 서울기록페어 개최, 뉴스레터 제작, 네트워크 굿즈 제작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2021년 서울기록화 사업을 통해 처음 발간되는 뉴스레터인 '서울 기록레터'를 통해 기록활동 네트워크들과 소통의 창구를 형성함
  - 네트워크 굿즈를 제작하여 네트워크 활동의 자원으로 활용함
  - 2021 서울기록페어를 개최하여 실제 서울기록 네트워크의 온·오프라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함
- ◦ 서울 아카이빙 북이 네트워크 및 수집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조직을 구성함

4.2 추진일정

추진 내용	월						
	6	7	8	9	10	11	12
사업 수행	■						
서울기록원 기록 수집		■	■	■	■	■	
기록활동 네트워크 발굴·운영		■	■	■	■	■	
2021 서울기록페어 개최				■	■		
수집기록 콘텐츠 개발·서비스			■	■	■	■	
착수·중간·완료보고회		■			■		■

표 2 사업추진일정표

- 수집과 네트워크 조사·발굴을 동시에 진행하여 상호보완적 네트워크 및 수집이 이루어지도록 함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로 수집활동의 현지조사와 네트워크 면담에 차질이 발생하여 11월부터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 사업 종반에 현지조사 및 면담의 몰림 현상이 나타남

Ⅱ. 사업 추진 내용

1. 서울기록 수집

2. 네트워크

3. 2021 서울기록페어

4. 서울 아카이빙 북

5. 수집기록 콘텐츠

1. 서울기록 수집

1.1 수집 실행

1.1.1 수집 실행 개요

❐ 수집의 방향성

- 2020년 수집의 방향성을 계승하여 수집활동과 S-NAP, 다큐멘터리 아카이빙이 상호 간의 약점을 보완하고 의미를 강화함
- 2020년에 정비한 S-NAP을 바탕으로 시층적으로 서사 구조에 접근함
  - 수집기록의 의미와 지향점을 S-NAP을 통해 굳건히 하고 개별 수집기록이 S-NAP에 연계되어 자연스러운 서사의 확장을 꾀함
- 서울기록원의 소장기록과 S-NAP에 관한 연구, 서울기록원의 전시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의 상(相)과 서울시민의 삶을 가장 잘 표상하며 소장기록의 결락을 보완하고 전시와 연계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수집을 기획함
- 이에 따라 S-NAP에 기반한 수집을 진행하고 수집기록으로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 서사를 다큐멘터리 아카이빙을 통해 보완하였으며 수집활동의 산출물을 통해 S-NAP을 수정 및 보완함
- 수집활동의 과정과 결과를 일정한 양식에 따른 산출물로 제출함



그림 2 수집 리드파일(좌)과 수집 케이스파일(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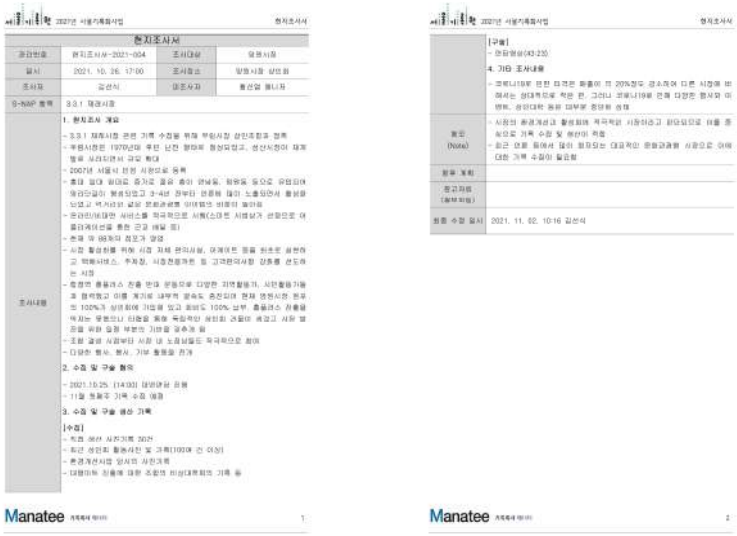


그림 3 현지조사서 예시

❒ 수집활동 과정

- ∘ 체계적이고 명확한 절차와 규격화된 양식을 통해 수집활동으로 생산되는 각종 산출물의 품질을 확보하고 향후 서울기록화 사업과의 연속성을 갖추고자 함
  - 2020년 사업의 리드·케이스파일, 현지조사서, 수집실행 계획서의 양식을 수정·보완하여 수집활동 전반을 기록화함
- ∘ 수집 리드 발굴, 현지조사 등 다큐멘터리팀과의 협업을 통해 S-NAP 중심의 선순환적 구조를 확립함
  - 일반적인 문헌조사나 검색에서 포착할 수 없는 리드의 정보를 공유하여 수집기록과 다큐멘터리의 품질을 확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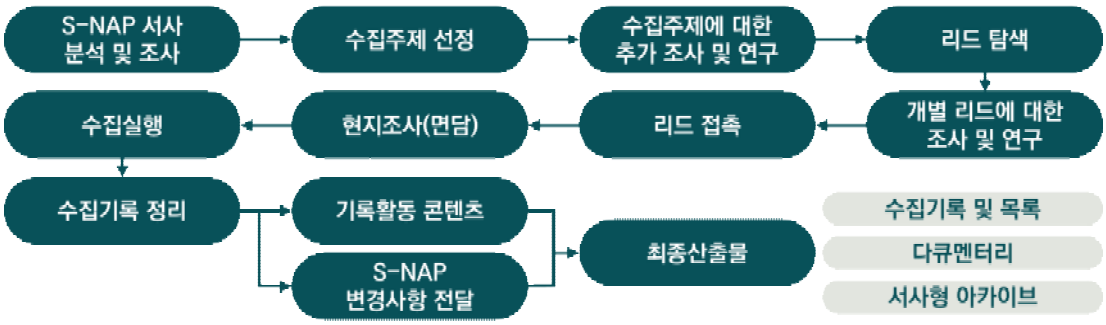


그림 4 수집절차도

❒ 수집활동 결과

- 수집주제로 ‘S-NAP 3.3.1 재래시장’, ‘S-NAP 6.1.4 마을 만들기 지원’을 선정함
- ‘재래시장’에서는 6건의 수집 리드를 발굴하고 4곳에서 수집을 진행함
  - 발굴한 수집 리드는 동대문 문구완구시장, 영천시장, 망원시장, 남성사계시장, 관악신사시장, 정릉시장임
  - 발굴 리드 중 동대문 문구완구시장, 남성사계시장, 망원시장, 정릉시장에서 실제 수집을 실행함
- ‘마을 만들기 지원’에서는 3건의 수집 리드를 발굴하고 2곳에서 수집을 진행함
  - 발굴한 수집 리드는 강남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공릉꿈마을공동체, 금천마을공동체임
  - 발굴한 수집 리드 중 강남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금천마을공동체에서 실제 수집을 실행함
- ‘S-NAP 3.3.1 재래시장’에서 764건, ‘S-NAP 6.1.4 마을 만들기 지원’에서 253건으로 총 1,017건의 기록을 수집함
- 각 주제별 수집기록에서 충분히 표현하지 못한 서사를 포착하여 ‘아이들의 환상이 보이는 단 하나의 시장, 동대문 문구완구’, ‘금천구 마을공동체, 오늘도 차곡 차곡 금천’ 총 2편의 다큐멘터리 제작함
- 수집기록을 서울시민이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서사형 아카이브’를 제작함
- 수집활동에서 생산된 리드·케이스파일, 현지조사서, 수집기록 및 수집기록 목록 등은 올해의 수집활동 전반을 평가하고 S-NAP을 보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선순환적 기록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1.1.2 ‘S-NAP 3.3.1 재래시장’ 수집

❒ 수집주제 선정 이유

- 서울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역동적인 도시이며 S-NAP의 3. Flow(흐름)은 이러한 역동성을 드러내는 서사로 적합한 주제영역임
- 상품을 포함한 재화의 흐름이라는 관점에서 시장은 서울시민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공간으로 서울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장소임
- 다양한 유형의 시장 중에서도 재래시장은 경제활동의 공간일 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애환이 깃든 곳이며, 다른 유형의 시장과는 다르게 지

역사회의 역사와 전통문화가 깊게 자리하고 있는 곳임

- 더불어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경쟁 속에서 빠르게 위축되고 있어 기록의 소실 위험성이 매우 높아 시급히 기록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서울시는 2020년부터 마을과 시장을 연결하는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인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였으므로 올해의 수집 주제인 'S-NAP 6.1.4 마을 만들기 지원'과 연계한 수집활동이 가능함
- 이에 따라 'S-NAP 3.3.1 재래시장'을 2021년 서울기록화 사업의 수집주제로 선정하고 수집을 진행함

❒ 리드의 탐색 및 선정 근거

- S-NAP의 서사를 분석하여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고 해당 키워드에 적합한 재래시장을 탐색함
- S-NAP에 제시된 리드와 서울특별시상인연합회의 회원시장 목록, 서울열린데이터 광장 '서울시 전통시장 현황' 등 각종 보고서와 SNS 등을 포함한 온라인 검색을 통해 을 통해 서울 전역의 재래시장 목록을 확보함
- 접촉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가 존재하지 않거나 부정확하여 접촉이 불가능한 경우, 재래시장(전통시장)의 형태가 아닌 경우, 이미 기록화가 진행되었거나 유사한 사업이 진행된 수집 리드를 제외함
  - 서울기록화 사업은 서울을 대상으로 도큐멘테이션 전략(documentation strategy)을 통해 일종의 로컬리티(지역) 기록화라는 점에서 서울의 다양한 사회적 기억을 포착해야 함
  - 따라서 이미 기록화가 진행되었거나 유사한 사업이 진행된 유명 재래시장, 대형 재래시장을 중복하여 기록화하기보다는 기록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은 중·소규모 재래시장을 기록화하는 것이 서울기록화 사업의 취지에 더 적합하여 이를 중심으로 수집 리드를 탐색함
- S-NAP의 주요 서사 키워드를 잘 반영하는 수집 리드를 선별하기 위해 개별 수집 리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각 서사 키워드별 후보 목록을 구성함
  - 'S-NAP 3.3.1 재래시장'의 서사를 분석한 결과 '현대화 및 활성화', '관광 및 유흥', '지역문화', '상거래', '먹거리', '대기업 및 SSM 진출 반대', '쇠퇴'를 도출함
  - 각 리드 별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리드에서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사에 따라 리드를 배치함
- 'S-NAP 3.3.1 재래시장' 수집활동은 상인회와 우선 접촉한 후 이를 바탕으로 개별 상인 및 기타 이해관계자로 범위를 확대하여 수집 리드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함

- 그러나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개인 소장기록의 부재, 수집에 대한 개인의 불안감 등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함

∘ 각 키워드 별 수집 리드 후보 중 대표성과 시의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순차적으로 수집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서사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고 시의성 있는 수집 리드를 발굴함

❒ 수집과정

∘ 서사별 수집 리드 후보를 설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촉하여 수집 실행에 대해 논의함

- 수집 리드 후보와의 접촉 과정은 케이스파일을 통해 기록화함

∘ 수집의 실행에 앞서 '사전질문지'를 통해 수집 리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상황 등을 확인하고 수집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수집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 수집 면담을 통해 수집 리드의 역사, 주요 기능과 활동, 소장기록 현황, 기증 가능한 기록에 대한 유형·내용·분량, 수집의 방법과 일정, 요구사항 등을 논의하고 현지조사서를 작성하여 기록화함
- 수집 면담의 과정을 촬영한 영상을 하나의 산출물로 제출함
- 수집 면담, 기증기록 수령, 다큐멘터리 촬영 등의 과정에서 수집 리드의 현재 모습을 효과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직접생산기록을 생산하되 기증기록과 명확히 구분되도록 수집기록 목록을 작성함

∘ 수집기록을 수령하고 기존의 정리상태를 준용하여 수집기록을 정리하여 수집기록 목록을 작성함

- 비전자기록은 휴대용 스캐너 등을 통해 현장에서 사본수집을 진행함
- 수집기록에 서사 키워드에 따라 배치하고 건별로 기술을 함

❒ 'S-NAP 3.3.1 재래시장' 수집 결과

∘ 'S-NAP 3.3.1 재래시장'의 수집활동은 8개의 S-NAP 서사 키워드를 중심으로 수집 리드 후보를 구성하여 기록 수집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5개의 수집 리드에서 수집이 이루어짐

- 수집이 완료된 수집 리드는 동대문 문구완구시장, 정릉시장, 남성사계시장, 망원시장임

∘ S-NAP 서사 키워드별로는 '현대화 및 활성화' 400건, '관광 및 유흥' 322건, '지역문화' 150건, '상거래' 138건, '쇠퇴' 122건, '먹거리' 19건, '휴식' 8건, '대기업 및 SSM 진출 반대' 4건이 수집됨

- 'S-NAP 3.3.1 재래시장'의 수집기록을 정량적으로 집계한 결과 2개의 서사 키워드('현대화 및 활성화', '관광 및 유흥')에 대한 기록이 집중적으로 수집됨

- 이는 수집 리드가 시장 상인회로 구성되어 상인회가 추진한 사업과 각종 행사에 관한 기록이 집중적으로 수집이 이루어짐
- 수집기록의 정량적 집계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은 '먹거리', '대기업 및 SSM 진출 반대'는 수집 면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장 상인회 스스로 이러한 서사를 시장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

∘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S-NAP 3.3.1 재래시장'은 2020년 사업과 비교하여 다수의 수집 리드를 확보함

∘ 그러나 각 서사 키워드별 수집 리드의 개수가 1~2개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특정 수집 리드의 협력 정도에 따라 서사 키워드별 수집기록의 양적·질적 편차가 크다는 한계를 보임

∘ 따라서 향후 서울기록화 사업에서는 서사 키워드마다 3~4개의 확실한 수집 리드를 발굴하여 수집 리드의 협조 여부와 관계없이 수집기록의 양과 품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S-NAP 3.3.1 재래시장' 수집기록

∘ 동대문 문구완구시장

- 동대문 문구완구시장은 국내 최대의 문구·완구 도매 전문 시장이지만 유통환경과 학습·놀이문화의 변화에 따라 과거 재래시장의 모습을 간직한 채로 쇠퇴해가는 재래시장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수집 리드임
- S-NAP 서사 상에서 주목해야 할 동대문 문구완구시장의 기록으로는 동대문 문구완구시장의 열악한 현실을 보여주는 주차장·화장실 등 환경 개선 청원과 경비실 철거 관련 기록, 점차 줄어드는 동대문 문구완구시장의 규모를 보여주는 번영회(상인회) 재무 관련 기록, 동대문 문구완구시장의 현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상인회 공문, 수집기록으로 드러나지 않은 서사를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생산기록 등이 있음

· 동대문 문구완구시장 입구에 걸린 현수막은 도매시장으로써 동대문 문구완구시장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줌과 동시에 매출이 줄어들면서 화방, 파티용품, 의류, 등산용품 등이 문구·완구를 대신해 들어선 현실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임

· 방문객이 붐비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은 문구사 점포의 모습은 동대문 문구완구시장의 어려운 현실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임

· 주차장 건립 설문조사 참여를 촉구하는 상인회의 공문은 동대문 문구완구시장의 열악한 시설을 보여주면서도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상인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보여주는 기록임

∘ 정릉시장

- 정릉시장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사라졌던 시장이 상인들에 의해 다시 생겨난 시장으로 주거지 인근에 있는 전형적인 골목형 시장이면서 시장을 관통하는 정릉천을 중심으로 지역주민과의 소통·교류를 통해 생활공간, 휴식공간, 나들이 공간으로 기능한다는 것이 특징임



그림 5 동대문 문구완구시장 수집기록

- S-NAP 서사 상에서 정릉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기록으로는 정릉천을 배경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행사 및 이벤트와 관련된 기록임
  · 정릉천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개울장'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장으로 정릉시장을 방문하게 하는 큰 요인으로 단순한 상행위와 관광의 요소뿐만 아니라 휴식과 문화의 기능도 존재하므로 정릉시장의 서사를 핵심적으로 관통하는 기록임
  · 정릉시장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행사와 이벤트가 자주 발생하는데 매번 다른 행사에 꾸준히 참여하는 어린이의 사진은 정릉시장이 단순한 상거래의 공간이 아닌 문화의 공간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임



그림 6 정릉시장 수집기록

○ 망원시장

- 망원시장은 전형적인 주변 거주지에 기반한 골목형 시장이었지만 홍대 일대의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상권이 망원동 일대로 이동하며 젊은 세대의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한 시장으로 문화·관광적 요소가 크게 돋보이는 시장임
- 또한 주변의 대형할인점과 SSM(Super Supermarket) 진출에 격렬히 저항한 곳이기도 함

- 이에 따라 S-NAP 서사 상에서 주목해야 할 기록으로는 젊은 세대와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문화·관광적 요소, 대형할인점 및 SSM 진입에 대한 저항과 연대 등이 있으나 수집 리드의 내부 사정으로 수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집기록으로 이러한 서사가 충분히 표현되지 못했으며 직접생산기록을 통해 망원시장의 문화·관광적 측면과 망원시장 내의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서사를 일부 포착함

· 와인바와 같은 일반적인 재래시장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점포는 망원시장에 대한 이미지를 가장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기록임

· 활기찬 망원시장 중심부를 벗어나 과거를 간직한 낡은 건물과 리모델링 된 카페의 기록은 망원시장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임



그림 7 망원시장 수집기록

· 영업을 종료하고 폐업한 카페를 찍은 사진은 활기찰 것만 같은 망원시장 속 치열한 경쟁과 젠트리피케이션을 엿볼 수 있는 기록임

ㅇ 남성사계시장

- 남성사계시장은 정릉시장처럼 사회의 변화에 따라 사라졌던 시장이 상인들에 의해 다시 생겨난 시장으로 주거지 인근에 있는 전형적인 골목형 시장이면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경쟁력을 갖춘 재래시장임

- 앞서 동일한 골목형 시장인 정릉시장이 지역주민과의 소통·교류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남성사계시장은 문화적인 측면보다는 상거래의 측면이 두드러지어 S-NAP 서사 상에서 주목해야 할 기록으로는 시장 현대화 및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및 활동에 관한 기록임

· 남성사계시장 입구에 설치된 조형물 사진과 남성시장 상인회 등록증, 남성사계시장 전통시장 인정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남성사계시장 상인과 상인회를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기록임

· 남성사계시장 사계길 안내도는 남성시장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시장 이름을 '남성사계시장'으로 바꾸고 '사계'의 이미지에 따라 특색을 부여한 것을 결과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임



그림 8 남성사계시장 수집기록

1.1.3 'S-NAP 6.1.4 마을 만들기 지원' 수집

❒ 수집주제 선정 이유

- 마을은 서울시민이 삶을 향유하고, 다양한 관계가 맺어지고, 기억이 누적되는 공간으로 주민 개개인의 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침
- 또한 오늘날의 마을은 단순히 물리적·지리적 의미는 물론이고 사회적·문화적 공감을 나누고 공유하는 사회적 관계를 의미함
- 그러나 서울이라는 도시가 가진 다양한 가치는 그동안의 경제발전과 사회변화 속에서 배제되어 욕망의 대상으로 타자화, 물신화(物神化)되었음
- 지난 2012년부터 철거와 개발로 점철된 서울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고 서울시민의 역사적·감성적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진행되었음
- 10년 차를 맞이한 서울의 '마을 만들기 사업'의 과정과 결과를 되돌아보고 서울시민과 서울이라는 도시가 지향하는 서울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법적 증빙이 목적인 시정기록이 주로 생산·보존되고 있어 시정기록과 시민기록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음
- 더불어 2020년부터 서울시가 마을과 시장을 연결하는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인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올해의 수집주제인 'S-NAP 3.3.1 재래시장'과 연계한 수집활동을 기대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S-NAP 6.1.4 마을 만들기 지원'을 2021년 서울기록화 사업의 수집주제로 선정하고 수집을 진행함

❒ 리드의 탐색 및 선정 근거

- S-NAP의 서사를 분석하여 주요 키워드를 도출함
  - 'S-NAP 6.1.4 마을 만들기 지원'의 서사를 분석하여 '주민 거버넌스', '마을 아카이브', '연계와 협력', '마을교육', '공동체 특성', '홍보와 전파'를 도출함
- S-NAP에 제시된 리드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서울시 자치구별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당 키워드에 적합한 수집 리드를 확대하고자 함
  - 그러나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개인정보 유출 등의 이슈로 2개의 수집 리드(공릉꿈마을공동체, 금천 마을공동체)를 추가하는 것에 그침
  - 또한 자치구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의 접촉도 같은 이유로 미진하였음

❒ 수집과정

- 서사별 수집 리드 후보를 설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촉하여 실제 수집을 진행함

- 수집 실행에 앞서 ‘사전질문지’를 통해 수집 리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상황 등을 파악하고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수집 논의를 함
  - 수집 면담을 통해 수집 리드의 핵심 기능과 활동, 소장기록 현황, 기증 가능한 기록에 대한 유형·내용·분량, 수집의 방법과 일정, 요구사항 등을 논의하고 이러한 과정을 현지조사를 통해 기록화함
  - 수집 면담의 과정을 촬영한 영상을 하나의 산출물로 제출함
- 수집에 대해 협력 의사를 표시한 수집 리드에 대해 수집을 진행함
  - ‘S-NAP 6.1.4 마을 만들기 지원’의 경우 수집 리드 자체보다 수집 리드가 주민과 활동가를 지원하는 행위에 대한 기록을 기록화하는 것이 핵심적인 목표이므로 다큐멘터리 촬영을 제외한 직접생산기록의 생산을 최대한 지양함
  - 비전자기록은 휴대용 스캐너 등을 통해 현장에서 사본수집을 진행함
- 수집기록을 수령하고 기존의 정리상태를 준용하여 수집기록을 정리하여 수집기록 목록을 작성함
  - 수집기록에 서사 키워드에 따라 배치하고 건별로 기술을 함

❒ ‘S-NAP 6.1.4 마을 만들기 지원’ 수집 결과

- ‘S-NAP 6.1.4 마을 만들기 지원’의 수집활동은 6개의 S-NAP 서사 키워드를 중심으로 수집 리드 후보를 구성하여 기록 수집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2개의 수집 리드에서 수집이 이루어짐
  - 수집이 완료된 수집 리드는 강남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금천마을공동체임
- S-NAP 서사 키워드별로는 ‘마을교육’이 159건, ‘공통체 특성’이 24건, ‘연계와 협력’이 24건, ‘주민 거버넌스’가 14건, ‘마을아카이브’가 11건, ‘홍보와 전파’가 8건이 수집됨
  - ‘S-NAP 6.1.4 마을 만들기 지원’의 수집기록을 정량적으로 보았을 때 ‘마을교육’에 대한 기록이 대부분을 차지함
  - 이는 수집이 주로 진행된 강남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마을 만들기 활동이 아직 초기 단계라는 점에서 직접적인 활동 지원보다는 마을 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기반 조성에 집중한 것이 수집기록을 통해 정량적으로 드러난 것임
- 코로나19의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S-NAP 6.1.4 마을 만들기 지원’의 경우 충분한 수집 리드를 확보하지 못했고 수집기록의 양도 기대에 미치지 못함
  - 다만 강남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수집기록을 통해 다양한 서사 키워드를 포괄적이고 균형감 있게 표현할 수 있음
- 향후 서울기록화 사업에서는 서사 키워드마다 3~4개의 확실한 수집 리드를 발굴하여 수집 리드의 협조 여부와 관계없이 수집기록의 양과 품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함

❒ ‘S-NAP 6.1.4 마을 만들기 지원’ 수집기록

∘ 금천마을공동체

- 금천마을공동체는 주민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다양한 문제를 마을이라는 단위 속에서 주민자치를 통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공동체로 금천구



그림 9 금천마을공동체 수집기록

마을공동체아카이브를 포함한 민간과 협치가 함께 어우러진 조직임

- S-NAP 서사 상에서 주목해야 할 금천마을공동체의 기록은 이러한 민간과 협치가 혼재된 공동체 속에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기록임

· 금천마을공동체에서는 영상기록 남기기 교육 등 다양한 행사와 교육이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기록은 금천마을공동체의 핵심적인 기능을 증거하는 기록임

∘ 강남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 강남은 서울 내에서도 사람과 부가 몰려드는 곳으로 최신의 유행을 선도하는 지역이지만 그만큼 마을, 고향으로서의 강남에 대한 인식이 희박한 곳이기 때문에 강남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다른 서울 자치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비교하여 다소 늦은 2019년에 개소함
- 강남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강남의 이러한 특수한 상황 속에서 고향으로서 강남, 내가 살아가는 마을로서 강남을 사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강남 지역에서의 마을 활동과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함
- S-NAP 서사 상에서 주목해야 할 강남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기록은 시민과 시정(市政) 사이에 있는 협치기록으로 주민의 관점과 기억을 보여주는 주민공모사업 관련 기록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교육 관련 기록임

· 인문학적 관점에서 마을, 고향으로서 강남을 사유하는 강남풍경의 홍보 포스터와 활동 진행 사진은 강남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 중 하나로 강남이라는 지역에 대한 주민의 기억을 불러일으키고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강남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핵심

활동을 일목요연하게 전달해주는 기록임

· 주민공모사업 교육에 관한 강의자료는 협치기관으로서 강남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주민 지원활동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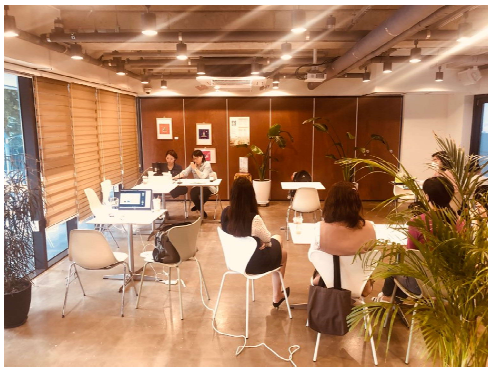




그림 10 강남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수집기록

1.2 다큐멘터리

1.2.1 아카이빙 다큐멘터리 '재래시장'

제 목	아이들의 환상이 보이는 단 하나의 시장, 동대문 문구 완구		
촬 영 지	동대문 문구완구시장		
제작사항	24분 27초, 1회	방송	서울기록원
감 독	임기웅	촬영일	2021.10.24.-25.

❐ 기획 의도

서울은 지방 각지에서 올라온 고향을 떠난 이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높게 솟은 빌딩과 화려한 아파트, 낡고 오래된 연립주택과 고시원이 공존한다. 그 사이엔 크고 작은 길이 있고, 사람들은 제각각 사이로 쏜살같이 밀려오고 밀려 나간다. 그 밀물과 썰물의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희망과 좌절이 휩쓸려 흐르는지는 이루어 말할 수 없다.

재래시장은 갈 길을 잃거나 혹은 잠시 기대어 숨 돌리고 싶을 때, 기꺼이 낡은 어깨를 내어준다. 재래시장은 마치 고향과 같고 가족이 그리울 때 찾아가게 되는 곳이다. 동대문 문구완구시장에는 재잘대며 즐거워하는 아이들과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온 부모님, 문구와 완구를 판매해온 상인들의 희로애락이 깃들어 있다.

2021년 서울기록화 사업의 수집주제로 'S-NAP 3.3.1 재래시장'을 선정했다. 재래시장의 어려움은 오늘 내일의 일은 아니다. 40년을 한 자리를 지켜낸 상인조차 가게를 유지하기 힘겹다고 한다. 힘들지만 그래도 그곳을 떠나지 않고 버티는 상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멸해가는 그들의 모습을 담고자 했다.

하지만 정말 담고 싶었던 것은 그들의 희망이었다. 이 시장이 우리 아이들, 또 그 아이들에게도 오래도록 즐거운 곳으로 남길 바라기 때문이다.

❐ 시놉시스

동대문 문구완구시장은 일반적인 재래시장과 달리 문구와 완구에 특화된 국내 최대의 문구완구 전문 도매시장이다. 이곳엔 전국에서 만들어진 문구와 완구가 모여들고 도매를 통해 다시 전국의 소매점으로 흩어지는 문구·완구 물류의 중심이기도 하다. 이 시장에서 송동호 상인회장 겸 승진완구 사장, 예지사 오세인 사장, 아담문구 김윤길 사장을 통해 시장의 얘기를 들어본다.

문구사를 운영한 예지사, 아담문구 두 사장은 문구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이곳에 연이 닿아 가게를 마련하고 장사를 시작했다. 동대문 문구완구시장은 도매시장에서 출발하여 지금도 도매를 하지만 문구·완구 소매상이 사멸하면서 현재는 소매

판매 매출이 도매를 훌쩍 뛰어넘었다. 이런 시장의 변화는 두 번의 위기 속에서 구조적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문구무상지원정책이었다. 당시 문구인연합회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시위도 했지만, 무상교육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수 없었고 학습 물품에 대한 무상지원이 시작되면서 동네 학교와 주택지의 문구점들이 빠르게 문을 닫기 시작했다. 소매상이 줄어들면서 그들에게 물건을 공급하던 동대문 문구완구시장의 도매 매출도 따라서 급감했고 더는 도매만 취급할 수 없게 되면서 일반 소비자에게도 물건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마침 신문이나 언론에서도 생활경제란에서 문구완구를 싸게 사는 곳으로 이곳을 지목하면서 지나가는 유동 인구가 상당해 늘었다. 완구점을 운영하는 승진완구 송동호 회장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며 전략적으로 규모를 키워갔다. 비록 도매전문시장이던 시절보다는 매출은 많이 줄었지만, 주말과 공휴일에는 아이를 중심으로 가족 단위로 몰려드는 인파로 북적였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다. 주요 고객 중 한 축이었던 외국인 보따리상과 관광객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것이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그 일환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알아보기도 했지만 창신동 전체가 재개발 지역이다 보니 정식 시장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캐노피 같은 시설물도 설치를 못 하는 고충이 있다. 이 지역 일대가 재개발되면 이 시장은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시선이 교차한다.

❐ 영상 화면



그림 11 〈아이들의 환상이 보이는 단 하나의 시장, 동대문 문구 완구〉 다큐멘터리

1.4.2 아카이빙 다큐멘터리 ‘마을 만들기 지원’

제 목	금천구 마을공동체 “오늘도 차곡 차곡 금천”		
촬 영 지	금천구 마을공동체기록관		
제작사항	24분 27초, 1회	방송	서울기록원
감 독	임기웅	촬영일	2021.10.09.

❐ 기획 의도

마을공동체는 지방분권 주민자치의 시작이자 기반이다. 한 해 농사가 아니라 여러 해를 바라보며 토양을 개선하고, 종자를 개량하며 최선을 다해 논과 밭을 일군다. 주민자치의 기본 절차는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 ‘이해하기’에 있다. 주민이 공동체를 이룬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각자의 생업이 서로 다르고, 가치관이 서로 다르고, 처한 상황도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민자치 환경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낼 수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억지로 만들어 낼 수도 없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실천 의지와 공동체 의식일지라도 모두에게 공감을 받아야 비로소 결실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생태 마을 조성, 전시, 복합문화 공간, 식물 가꾸기 등 다양한 관심을 마을공동체로 끌어오는 역할이 쉽지 않은 까닭이다. 지금 마을공동체의 상황은 어느 때보다 어렵다. 금천마을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저마다 자율적으로 하고 싶은 공동체 활동을 우선으로 한다. 그러기에 같이 함으로써 “일하면서도 놀고, 놀면서도 일하는 것이 가능한 공동체”로 성장했다. 그들이 차곡 차곡 쌓아온 주민자치의 이야기를 듣고자 했다.

❐ 시놉시스

금천구 마을공동체기록관 엄샛별 PM은 “마을에 소속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대부분 경계 없이 일하는 사람과 같이 논다”라고 말한다.
현대 도시가 경계를 기본으로 만들어지는 것과 정반대로 경계 대신 연결을, 그리고 그런 연결의 공간을 만들어간다.
공공의 공간인 마을공동체기록관부터 복합문화공간 ‘수상한 창고’, 마을 책방 ‘원테이블’처럼 개인이 운영하는 공간이라고 해서 공공성을 갖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공간이 공공성을 획득하면서 공간은 마을 활동의 기점이 되고 실제적인 활동으로 이어진다. 처음엔 운영하기 버거웠던 곳들도 마을의 관계를 통해 버티고 힘을 보태고 뿌리내려진다.

❐ 영상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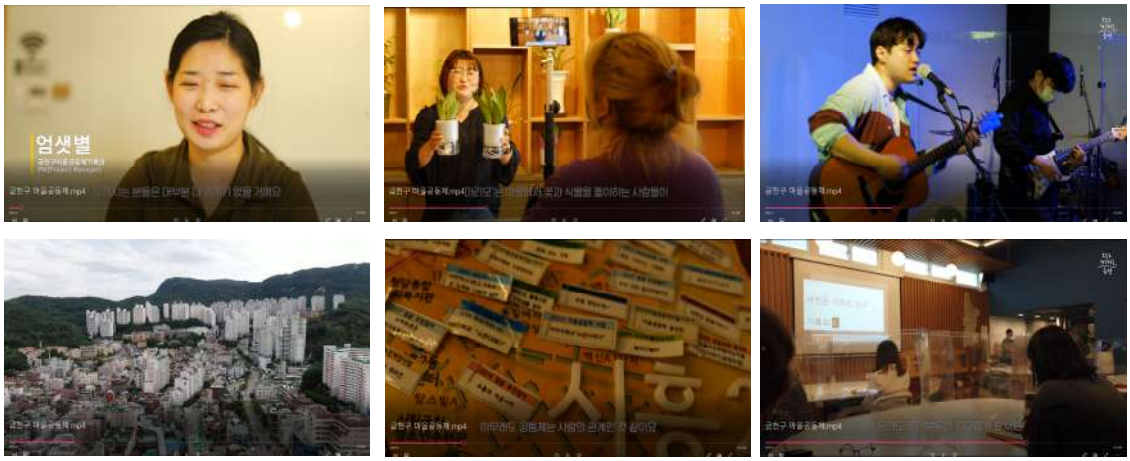


그림 12 〈금천구 마을공동체 “오늘도 차곡 차곡 금천”〉 다큐멘터리

1.3 기존 수집기록 정리

1.3.1 기존 수집기록 정리 배경

❒ **기존 수집기록 정리 목적**

- 2018~2020년 동안 진행된 서울기록화 사업으로 다양한 시민·협치·시정 기록을 수집하였으나 SDA(Seoul Digital Archives)나 별도의 수집기록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아 수집기록의 관리 및 서비스 기반이 부재함
- 기존 수집기록 정리를 통해 그간의 서울기록화 사업 성과를 체계적·통일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SDA나 별도의 수집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수집기록 정리 방향 재설정**

- 사업의 초기 목표는 기존 수집기록을 SDA에 등록할 수 있도록 목록을 정비하는 것이었음
- 그러나 수집기록의 기술요소와 SDA의 기술요소에 큰 괴리가 있어 수집기록 등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을 확인함
  - SDA는 시정기록의 이관·인수·보존·활용을 위한 시스템으로 수집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기술요소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SDA에 수집기록을 등록할 때 입력해야 하는 필수 기술요소의 값에 대한 고민이 그동안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함
- 따라서 SDA 등록을 전제한 목록 정비에서 기존 목록을 정비하고 목록화되지 않은 수집기록을 기존 목록에 추가하는 것으로 과업을 재설정함

❒ **기존 수집기록 정리 현황**

- 2018년 수집기록은 통합목록이 없이 수집실행자에 따라 상이한 형태의 목록만이 존재하고 S-NAP 개발 이전에 수집이 이루어져 현재의 기술요소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함
  - 구 질병관리본부 수집기록,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수집기록, 사진아카이브연구소 수집기록, 기억발전소 촛불혁명 수집기록을 정비함
- 2019년 수집기록은 통합목록이 존재하나 2020년 S-NAP 정비에 따른 수정이 필요함
- 2020년 수집기록은 2020년에 정비된 최신 S-NAP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므로 2020년의 수집기록 목록의 항목을 기준으로 2018년과 2019년 수집기록 목록을 정비함

1.3.2 기존 수집기록 정리 결과

❒ 2018년 수집기록 정리

- 구 질병관리본부,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진아카이브연구소, 기억발전소 등의 수집기록은 개별 목록을 통해 관리되고 있음



그림 13 구 질병관리본부 수집기록 목록

- 2018년 수집기록 목록은 최신 S-NAP을 기준으로 통합목록으로 취합 및 수정함
  - 구 질병관리본부 수집기록은 'S-NAP 3.5.1 지역혁신'으로 분류함
  -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수집기록은 'S-NAP 6.3.3 주택조합'에 분류함
  - 사진아카이브연구소의 수집기록은 'S-NAP 7.1.1 행정구역의 변천'에 분류함
  - 기억발전소의 촛불혁명 수집기록은 'S-NAP 8.5.4 광화문 촛불집회'에 분류함



그림 14 2018년 수집기록 작성 목록

❒ 2019년 수집기록 정리

- 2019년 수집기록은 2020년 S-NAP 정비 이전의 S-NAP에 근거하여 목록이 작성되어 현행 S-NAP에 따라 수정이 필요함
- 2019년 S-NAP의 S-NAP 1.6 '조형물, 기억과 통치의 궤적', S-NAP

1.7 ‘광장의 외침’ 등 2020년에 정비한 S-NAP에서 보통명사화 된 상·하위레벨 S-NAP 명칭을 수정함

- 2019년 S-NAP ‘상징’과 ‘흐름’ 영역의 S-NAP 상위레벨인 ‘콘크리트 유토피아 서울’과 3.1 ‘지하의 삶과 문화’는 2020 S-NAP에서 ‘구조’ 영역으로 이동되고 상위S-NAP명이 ‘7.3 랜드마크 건축물’로 수정됨에 따라 ‘1.4 콘크리트 유토피아 서울’로 수정함



그림 15 2020년 S-NAP 구조 정비 결과

- 2020년 S-NAP 정비에 따라 기존에 작성된 목록을 그림 16과 같이 수정함



그림 16 2019년 수집기록 목록

❒ 향후 과제

- 현재의 SDA를 통해 수집기록을 등록 및 관리할 수 없는 상황임
- 수집기록 관리에 필요한 메타데이터 항목을 명확히 식별이 필요함
- SDA에 수집기록 관리 기능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수집기록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최종적으로 수집기록의 관리 및 서비스 기반 구축이 필요함

1.4 서울기록원 수집평가 프로세스 제안

1.4.1 배경설명

❒ **서울기록원 수집평가 현황**

- 평가는 소장기록이 기관의 수집정책에 부합하는 정도를 판단하는 것임
- 서울기록원은 이관된 시정기록의 평가를 매해 수행하고 있으나 수집기록에 대한 평가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음
- 평가는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집기록의 질적 향상을 위한 체계임
  - 평가 결과를 수집정책에 반영하여 유기적이고 선순환적인 발전이 가능함

❒ **S-NAP에 대한 이해**

- 2019년 '서울기록 수집 및 기록콘텐츠 개발' 사업을 통해 서울의 사회적 기억과 서울시민의 일상적 삶을 기록화하기 위해 S-NAP을 개발함
- 2020년 S-NAP 정비로 현재의 S-NAP은 9개 영역과 49개 상위 S-NAP, 171개의 하위S-NAP로 구성됨
- S-NAP은 그 자체로 평가도구(선별도구)이므로 수집기록에 대한 평가가 아닌 수집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가 요구됨
  - S-NAP의 주제, 상위 S-NAP과 하위 S-NAP이 담고 있는 내용과 관점이 해당 기록에 대한 기술이자 평가의 결과로 볼 수 있음
  - 서울의 사회현상과 삶이라는 관점에서 서사에 기반한 S-NAP은 특정 가치를 선별하고 수집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평가도구임
- S-NAP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지속해서 변화하도록 설계되어 수집평가 프로세스의 결과에 따라 S-NAP도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수집평가를 위한 이론**

- 기록학의 평가이론은 주로 공공영역에서의 기록을 중심으로 한 평가·선별이론으로 이를 수집기록의 평가에 곧바로 대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기존의 평가이론의 경향성과 지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를 위해 이론을 탐색함
- 도큐멘테이션 전략(documentation strategy)
  - 특정한 지역·주제·사건 등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기록 생산자, 보존기록관, 기록 이용자의 상호협력을 통해 선별하여 수집하는 평가·선별 방법론임
  - 서울기록원의 서울기록화 사업 또한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한 방법으로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파악하여 평가 프로세스를 검토함

◦ 블랙박스 이론

- 수집의 기준이 되는 특정한 요소를 정의하고 필요하다면 수학적 모델로 다듬을 필요성을 시사하는 이론임
- 평가에 대해 세부적인 요소를 제안하기 위해 수집의 기준이 되는 특정한 요소를 정의하는 방법론을 사용함

◦ 내재적 가치 이론(intrinsic value)

- '내재적 가치'는 물리적 또는 연관적 품질에서 파생된 기록의 유용성 또는 중요성으로, 일반적으로 내용으로부터 독립적이고 물질적 본질에 필수적인 동시에 재생산 시 손실될 수 있는 가치를 의미함
- 고유성, 가치, 시대, 물리적 형식, 예술적 또는 미적 특성, 희소성과 같은 요소에 따라 고유의 가치 여부를 말함
- 평가의 세부적 요소 제안을 위해 내재적 가치 이론을 적용함

1.4.2 서울기록원 수집평가 설계

1.4.2.1 수집평가 방향성

❒ **사업의 전 과정에 대한 평가**

◦ S-NAP의 전략과 지침에 근거하여 당해의 수집계획을 수립하고 수집을 진행하며, S-NAP은 특정 가치가 있는 기록을 선별하고 수집한다는 점에 있어서 그 자체로 기록에 대한 평가의 기준으로 수집활동을 포함한 사업 전체에 대한 다각적인 평가가 필요함

◦ 또한 S-NAP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유연한 서사로 수집활동 전반의 과정과 결과에 따라 수정·보완되므로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 S-NAP의 정비와 수집은 상호보완적 관계로, 평가척도 또한 상호보완성에 초점을 맞춰야 함

◦ 수집평가 설계에서 수집의 전 과정에 걸친 평가가 제안되어야 하며 수집 과정에 따라 평가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함

◦ 서울기록원의 전략수준의 평가와 수집팀의 실행수준의 평가로 설계하는 것이 적합함



그림 17 S-NAP 정비팀과 수집팀의 상호보완 관계도

❒ 전략수준의 평가

- 전략수준의 평가는 올해에 어떤 것을 수집할 것인지 그 수집이 실제 전략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선행됨
- S-NAP의 서사 내용을 분석하여 어떤 주제와 이야기를 얼마나 수집할 것인지에 대한 타당성과 시의성을 평가함
- 서울기록화 장기 수집계획에 따라 올해의 수집계획이 얼마나 큰 지분을 차지하는지에 대해 평가함
- 질적 평가를 중심으로 설계함

❒ 실행수준의 평가

- 실행수준 평가의 경우 각 수집 프로세스가 질적·양적으로 적합했는지에 대해 평가함
- S-NAP 기반의 수집실행 프로세스는 그림 18과 같음



그림 18 S-NAP 기반 수집실행 프로세스

1.4.2.2 수집평가 프로세스 및 단계별 평가도구 제안

- 수집평가 프로세스는 다섯 단계로 이루어지며 단계에 따른 평가 대상과 범위, 평가 필요성, 평가도구 개발을 위한 필수 검토사항, 평가도구 안을 제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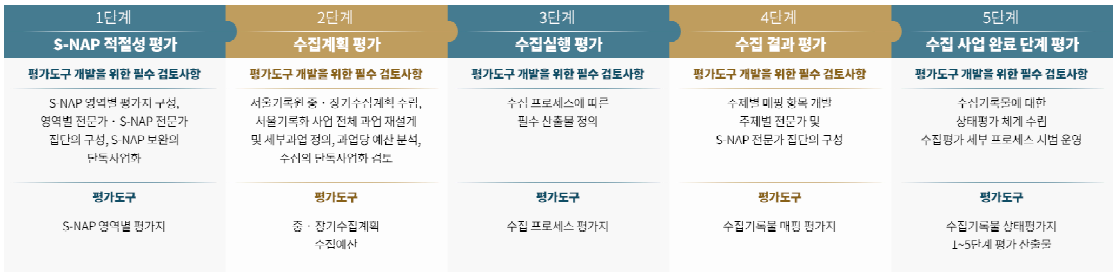


그림 19 수집평가 프로세스

❒ 1단계 : S-NAP 적절성 평가

- ∘ S-NAP을 평가하고 도출된 결과를 통해 S-NAP을 수정·보완함
- ∘ 당해 수집주제 선정에 대한 제안값을 제공함

적용단계	제안요청서 작성	
대상·범위	S-NAP의 주제영역 중 서울기록원에서 당해 수집을 고려하고 있는 주제영역	
평가자	서울기록원 담당자	영역별 전문가와 S-NAP 전문가의 평가를 바탕으로 제안요청서 작성
	영역별 전문가	S-NAP의 9개 영역에 해당하는 인류학, 사회학, 여성학 등의 전문가로 S-NAP 전문가와 함께 당해 수집을 위한 S-NAP 영역에 대한 평가 수행
	S-NAP 전문가	S-NAP을 작성한 기록학 분야 전문가로 영역별 전문가와 함께 당해 수집을 위한 S-NAP 영역에 대한 평가 수행

표 3 S-NAP 적절성 평가

- ∘ S-NAP 적절성 평가 개요
  - S-NAP 범위의 포괄성, S-NAP 서사의 방향성, 상·하위 S-NAP의 연계 및 배치의 적절성, 서사와 관련한 주체 및 활동의 정확성, 수집활동에 대한 적용성 및 확장성을 평가함
  - S-NAP은 고정된 수집전략이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와 실제 삶을 기록화한다는 목적 아래 수정·보완됨
  - S-NAP은 수집의 계획부터 실행까지 수집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지침으로 수집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수집이 실행되기 이전에 정비가 이루어져 적절한 수집지침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함
  - S-NAP의 정비 매해 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나 보완의 방법과 절차, 범위는 해마다 상이하므로 S-NAP 정비에 대한 정규화된 절차를 수립하고 S-NAP 평가를 위한 도구 개발이 요구됨
  - 또한 사업의 제안서 작성 이전에 S-NAP 정비가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임
  - S-NAP 자체의 정비와 함께 현재 우선 수집할 수집주제영역을 제안하여 시의성 있는 수집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 ∘ S-NAP 영역별 평가지 구성
  - S-NAP은 영역별로 다양한 범위를 포괄하고 있으며 각 영역은 그 영역마다 고유한 특성을 가지는 동시에 S-NAP이라는 틀로 묶여있음
  - 2020년 S-NAP 정비 전략에서 제안된 방향성을 참고하여 S-NAP 9개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통시성, 공시성, 다층성, 대표성 활용성의 다섯 가지 평가

기준과 해당 영역만이 가지는 고유성을 반영하여 평가지가 제시되어야 함

- 평가지 설계에서 영역, 상·하위 S-NAP의 범위와 내용 대한 포괄적인 평가가 와 함께 S-NAP의 구조를 보여줘야 함
- 해당 평가지에는 S-NAP 영역에 대한 평가와 당해 수집주제영역 제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포함하여야 함

기준	설명
① 통시성	해당 S-NAP 영역에서 제안하는 범위가 서울의 여러 시대를 포괄할 수 있는 포괄성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척도
② 공시성	S-NAP에 현재의 현상·특징이 포함되어 있는가에 대한 척도. 공시성의 경우 실시간성으로 표현됨. 당대의 이슈 키워드를 추출하는 것으로 당대 사회상을 파악하고, 긴급 수집의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음
③ 다층성	서울이라는 도시는 복합성과 다층성을 가짐. S-NAP의 구조에 그러한 복합성과 다층성이 포함되어 있는가에 대한 척도
④ 대표성	S-NAP에 주제를 대표할만한 인물, 장소, 사물, 이슈, 또는 사건(역사)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척도
⑤ 활용성	S-NAP의 내용에 기록화의 기본방향이 잘 제시되었고 수집 실행 시 응용 및 확장을 할 수 있는 개념이 제시되었는지에 대한 척도

표 4 2020년 S-NAP 정비 전략의 방향성

∘ 영역별 전문가 및 S-NAP 전문가 집단의 구성

- 평가지를 바탕으로 당해 수집주제영역을 고려할 전문가 집단 구성이 필요함
- S-NAP 전문가는 S-NAP 작성과 정비에 참여한 기록학 전문가 집단임
- 영역별 전문가는 S-NAP 9개 영역에 해당하는 인류학, 사회학, 여성학 등 전문가 집단임
- S-NAP 전문가는 모든 영역의 평가에 참여하며 영역별 전문가는 각기 다른 9개 영역별 전문가 집단이 별도로 구성되어야 함
- 영역별 전문가 집단 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S-NAP 영역별 평가도구 개발사업의 과업 중 하나로 전문가 집단의 구성도 포함되어야 함

∘ S-NAP 정비의 단독사업화

- 그간의 S-NAP 정비는 매년 사업의 방향성에 따라 절차와 방법이 상이함
- 특히 S-NAP 정비가 수집과 병렬적으로 이루어지면 정비된 S-NAP이 당해 수집활동 매뉴얼로 사용될 수 없으므로 수집 사업에 선행하여 S-NAP 정비 사업을 발주하고 정비된 S-NAP을 기반으로 수집 사업을 계획 및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평가도구 제안

- S-NAP의 영역별 평가지를 통해 영역별 전문가와 S-NAP 전문가가 S-NAP의 구조와 내용을 평가하고 시의성 있는 수집주제를 도출함
-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S-NAP의 주제영역을 정비하고 수집주제를 검토함

❐ 2단계 : 수집계획 평가

∘ 당해 수집 사업에 대한 서울기록원의 제안요청서 평가하여 당해의 수집에 대한 양적·질적 목표를 확정하고, 수집주제를 확정함

적용단계	제안요청서 작성	
대상·범위	수집 사업의 제안요청서에 포함된 수집계획을 평가	
평가자	서울기록원 담당자	수집 사업 제안요청서의 수집계획을 평가하고 당해 수집주제 및 수집의 질적·양적 목표를 제안

표 5 수집계획 평가

∘ 수집계획 평가 개요

- 서울기록원의 중·장기수집계획에 당해의 수집계획이 부합하는지, 당해 서울기록화 사업에 책정된 예산으로 어느 정도의 정량적·정성적 성과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평가함
- 2021년 서울기록화 사업의 제안요청서에는 수집주제와 범위가 부재하여 사업단에서 제안하고 서울기록원이 확인하여 수집주제와 범위를 결정함
- 이러한 수집주제와 범위가 서울기록원의 중 · 장기수집계획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서울기록원이 당해 수집계획에 대한 평가를 제안요청서 작성 단계에서 수행함으로써 수집에 대한 성과를 예측하여 당해 수집 사업의 질적·양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 평가도구 개발을 위해 서울기록원 중·장기 수집계획과 수집예산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수집사업의 단독사업화를 제안함

- 서울기록원 중·장기 수집계획은 해마다 수집의 양적 목표를 제안하는 평가도구로 현재까지 18개의 수집주제가 기록화가 이루어진 것을 볼 때, 171개의 S-NAP 하위레벨을 모두 기록화하기 위해서는 최소 27년에서 최대 6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함
- 그러나 2019년에 제시된 S-NAP 기반 연차별 수집사업 계획안은 2020년~2021년의 경과를 보았을 때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실현 가능한 중·장기

수집계획이 요구됨

- 예산은 수집의 실행 규모와 양적·질적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나 2021년 서울기록화 사업은 S-NAP 정비, 다큐멘터리 아카이브 제작, 수집기록 서비스, 서울기록페어, 네트워크 운영 등 수집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아카이브 활동을 포괄함
- 따라서 서울기록화 사업의 전체 과업을 정의하고 과업별 예산 분석을 통해 과업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함
- 따라서 서울기록화 사업 전체의 과업을 정의하고 과업별 예산 분석을 통해 과업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함
-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서울기록화 사업 경과와 사업예산을 검토했을 때 서울기록화 사업은 수집, 분류, S-NAP 정비, 서비스, 콘텐츠 제작, 서울기록페어 개최, 평가 프로세스 검토 등이 하나의 사업 안에 많은 과업을 포괄함
- 따라서 향후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중·장기 수집정책을 수립하고 사업 과업 재설계를 통해 수집 과업의 단독사업화 검토가 필요함

연도	기록화 총예산	수집규모(결과물)	
2018	99,800,000원	3개 영역(3개 주제, 1,433건)	
2019	211,850,000원	4개 주제(4,446건)	사진그림류 2,936건
			영상음성류 191건
			목록수집류 842건
			일반문서류 477건
2020	197,010,000원	3개 주제 (긴급 수집 1개 포함, 682건)	사진그림류 520건
			영상음성류 143건
			일반문서류 19건

표 6 서울기록화 사업 연차별 예산 및 수집결과 현황

∘ 평가도구 제안

- 중·장기 수집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 계획을 기본으로 중·장기수집계획의 달성률을 살피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집주제별 정량적 목표를 설정함
- 수집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집할 수 있는 수집주제를 확정하고 당해 수집주제의 양적·질적 목표를 설정하되 중·장기 수집계획에서 설정한 목표치 이상이어야 하며 예산이 부족할 경우 수집주제의 양적·질적 목표를 조절하여 매년 일정한 개수의 수집주제에 대한 기록화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함

❒ 3단계 : 수집실행 평가

∘ 수집실행단계에서의 평가를 통해 각 수집 프로세스를 평가하여 수집활동의 양적·질적 적절성을 담보함

적용단계	수집실행 단계(수집사업단) 및 수집 완료 단계(서울기록원 담당자)	
대상·범위	수집 프로세스 실행결과	
평가자	수집활동 실무자 및 총괄(PM)	단계별 수행에 따른 실시간 평가를 통해 수집활동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서울기록원 담당자	수집 프로세스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확인하고 평가

표 7 수집실행 평가

- 수집팀이 주제별로 수집 프로세스에 따른 수집활동을 실시간으로 평가하고 수집활동을 모니터링하는 도구임
- 수집 프로세스에 따른 필수 산출물은 수집활동의 질적인 측면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단계별 필수 산출물은 아래와 같음

- 서사 내용 분석 및 이야기·주제연구: 서사 내용 분석과 주제연구에 따른 회의록 및 주제연구지
- 현지조사 및 리드확정: 현지조사서
- 문헌연구 및 수집실행 계획서: 수집실행 계획서
- S-NAP 변경사항 확인 및 전달: 현지조사서 항목 중 S-NAP에 존재하지 않는 리드 및 서사 값을 표현할 수 있는 기재란

- 평가방법 및 평가도구 제안

- 수집 프로세스 평가지를 통해 각 수집업무에 대한 산출물의 품질을 리커트 5분 척도에 따라 평가함
  - 서사 내용 분석 및 이야기·주제연구: 서사 내용 분석에 따른 이야기에서 주제 의식이 잘 도출되었는지에 대한 평가척도
  - 현지조사 및 리드확정: 현지조사서의 품질을 평가하는 평가척도
  - 문헌연구 및 수집실행 계획서: 수집실행 계획서의 품질을 평가하는 평가척도
  - S-NAP 변경사항 확인전달: S-NAP은 수집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제안값으로 S-NAP에 기술한 기록의 수집·생산이 부적합한 경우 S-NAP을 수정·보완하고 이에 대한 절차를 준수했는지를 평가하는 평가척도
- 수집활동 실무자, 수집 사업 총괄(PM), 서울기록원 담당자가 본 평가지를 작성하는 것으로 객관성을 담보함
- 수집 사업단의 구성원은 각 수집단계가 완료될 때마다 해당 단계의 산출물을 확인하고 평가지를 실시간으로 작성하도록 하여 수집활동을 모니터링함
- 서울기록원 담당자는 수집활동이 완료된 후 각 단계에 해당하는 산출물을 확인하고 평가지를 작성함
- 평가지를 취합하여 수집활동의 품질을 평가함

수집주제							
수집기간		평가자					
수집절차	평가항목	척도					
서사분석 및 이야기 주제연구	선정한 주제에 따른 S-NAP 서사를 분석한 내용 분석에 따른 충분한 기술이 이루어졌는가?	1	2	3	4	5
	브레인스토밍 등을 통해 주제에 대한 일정량 이상의 키워드를 도출했는가? ※ 1-5개(1점), 6-10개(2점), 11-15개(3점), 16-20개(4점), 21개 이상(5점)	1	2	3	4	5
	키워드를 그룹화를 통해 주제에 따른 일정량의 질문을 도출했는가? ※ 1-2개(1점), 3-4개(2점), 5-6개(3점), 7-8개(4점), 9개 이상(5점)	1	2	3	4	5
현지조사 및 리드확정	현지조사 이전 적합한 사전질문지를 작성하여 발송했는가?	1	2	3	4	5
	현지조사서의 내용에 수집실현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었는가?	1	2	3	4	5
	현지조사서의 조사내용에 기록의 수량 및 소장 여부 평가가 포함되었는가?	1	2	3	4	5
	주제연구에서 도출된 키워드 그룹에 해당하는 기록이 잘 드러났는가?	1	2	3	4	5
문헌연구 및 수집실행 계획서	수집 리드에 대한 기초적인 문헌연구가 수집실행 계획서에 포함되었는가?	1	2	3	4	5
	수집대상의 이름 외의 주요활동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포함되었는가?	1	2	3	4	5
	수집할 수 있는 기록의 이름과 내용이 수집실행 계획서에 드러나는가?	1	2	3	4	5
S-NAP 변경사항 확인전달	현지조사에서 새로운 서사를 발견한 경우 S-NAP 보완팀에게 전달하여 수정했는가?	1	2	3	4	5
	수집실행에서 새로운 서사를 발견한 경우 S-NAP 보완팀에게 전달하여 수정했는가?	1	2	3	4	5
	수집이 불가능한 주제인 경우 기록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그에 대해 S-NAP의 보완팀에게 전달하여 수정하였는가?	1	2	3	4	5
특이사항							

표 8 수집실행 평가지

❒ 4단계 : 수집 결과 평가

적용단계	수집활동 결과물 정리단계	
대상·범위	당해 주제별 수집활동 결과	
평가자	주제별 전문가 및 S-NAP 전문가	전문가 집단은 S-NAP에 기반하여 주제에 따른 수집기록 매핑 항목을 개발
	수집활동 실무자 및 총괄(PM)	수집팀은 매핑 항목에 따라 수집기록을 매핑하여 당해 수집의 결과를 평가

표 9 수집결과 평가

- ∘ 수집기록(기록활동 조사 및 네트워크 포함)에 따른 결과에 대한 평가로, 평가에 따라 해당 주제의 후속 수집 제안도 가능함
- ∘ 하위 S-NAP에서 제시하는 내용과 리드를 수집 결과와 비교하여 적절한지 평가하는 것으로, 수집기록의 양적·질적 적절성을 확인하고 후속 수집의 필요성을 판단함
- ∘ 또한 S-NAP이 포괄하지 못한 서사를 수집기록의 서사를 통해 수정 및 보완함
  - 도출된 결과에 따라 상향식으로 S-NAP을 정비하여 S-NAP 정비와 수집실행의 선순환적 구조를 확립함
- ∘ 평가도구 개발을 위해서 주제별 매핑 항목을 개발하고 주제별 전문가 및 S-NAP 전문가 집단 구성이 요구됨
  - 수집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주제별 매핑 항목의 개발이 필요함
  - 171개의 전체 하위 S-NAP에 대한 매핑 항목을 개발하는 것이 아닌 당해의 주제별 매핑 항목을 매년 수집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함
  - 주제별 전문가 및 S-NAP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기 위해 해당 주제에 대한 전문가를 선정하고 S-NAP 전문가와 함께 수집기록 매핑 항목을 개발함
  - 영역별 전문가의 목록을 구성하여 관리가 필요함
- ∘ S-NAP과 리드를 통해 전문가 집단이 개발한 수집기록 매핑 평가지를 통해 수집팀에서 매핑 기준에 따라 수집주제의 기록을 매핑하여 수집활동의 결과물에 대한 양적·질적 적절성을 갖춤
  - 충분한 적절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후의 사업에서 후속 수집의 가능성을 판단해야 함
  - 항목에 매핑되지 않는 기록의 경우 별도의 기술을 시행하고 S-NAP의 내용과 범위에 포함하여 S-NAP의 결락 부분을 보완하도록 함

❒ 5단계 : 수집 사업 완료 단계 평가

- 수집기록에 대한 물리적인 상태평가와 등록을 완료한 후 최종적인 평가를 종합하여 향후 수집계획에 반영할 시사점을 도출함

적용단계	사업 완료 단계	
대상·범위	수집기록의 물리적인 상태, 당해 수집 프로세스 전반	
평가자	서울기록원 시스템·보존 담당자	수집활동의 산출물을 수령하고 수집기록에 대한 상태평가, 등록 및 서비스 방안에 대해 검토
	서울기록원 담당자	모든 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당해 수집활동에 대한 평가를 종합

표 10 수집완료 평가

- 사업단으로부터 산출물을 수령하고 수집기록에 대한 상태평가를 통해 기록을 유형별로 파악함
  - 매체와 유형에 따라 활용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집기록의 유형을 파악하여 수집기록에 대한 적절한 보존과 활용이 가능하게 함
- 1~4단계의 평가를 취합하여 시사점과 이슈사항을 도출하고 향후 수집계획에 반영함
- 완료 단계의 평가도구 개발을 위해 수집기록에 대한 상태평가 체계를 수립하고 수집평가 세부 프로세스 시범운영이 필요함
  - 수집기록은 유형과 매체가 다양하므로 적절한 보존과 활용을 위해 상태평가가 요구되나, 수집기록에 대한 상태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수집기록을 등록·관리할 시스템도 부재함
  - 수집 프로세스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선행 검토사항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이에 따라 수집기록 상태평가 체계 수립, 수집기록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위의 검토사항 이행 및 1~5단계의 프로세스를 운영한 뒤 그에 따라 수집평가 프로세스 안을 추가로 보강해야 함
- 수집기록 상태평가지를 통해 수집기록에 대한 적절한 보존 및 관리 체계를 적용하고 1~5단계 평가 산출물을 종합하여 시사점과 이슈 사항을 도출함
  - 도출된 시사점과 이슈사항은 수집계획 수립과 예산 책정의 근거로 사용됨
  - 1~5단계 평가 산출물 그 자체가 평가에 대한 종합이며 평가도구임

1.4.3 서울기록원 수집평가 세부 프로세스 시범운영안

- '1.6.2 수집평가 프로세스 및 단계별 평가도구 제안'의 결과를 통해 수집평가 세부 프로세스에 대한 시범 운영안을 제안함

❒ 1단계: S-NAP 적절성 평가

세부 단계	행위자	내용
1	서울기록원 담당자	S-NAP의 9개 영역 중 당해 수집영역 1-2개를 선정
2	전문가 집단	서울기록원 담당자가 선정한 S-NAP 영역에 대한 평가 수행
3	전문가 집단	평가를 통해 S-NAP을 정비하고 '수집 고려 주제군' 도출
4	서울기록원 담당자	평가 결과 및 '수집 고려 주제군' 수령

표 11 S-NAP 적절성 평가 세부단계

❒ 2단계: 수집계획 평가

세부 단계	행위자	내용
1	서울기록원 담당자	중·장기 수집계획의 연차별 계획에 기반해 중·장기 수집계획 달성률을 확인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수집주제 개수를 도출
2	서울기록원 담당자	예산에 따라 1단계(S-NAP 적절성 평가)에서 도출한 '수집 고려 주제군' 중 주제를 선정
3	서울기록원 담당자	주제에 대한 양적·질적 목표를 설정하여 제안요청서에 반영

표 12 수집계획 평가 세부단계

❒ 3단계: 수집활동 평가

세부 단계	행위자	내용
1	수집 사업단	수집의 각 단계에 따라 실시간으로 수집활동 평가지를 작성
2	서울기록원 담당자	수집이 완료되고 수집 사업단에서 수집 프로세스의 단계별 필수 산출물과 수집 사업단이 작성한 평가지를 수령하고 서울기록원이 작성한 평가지를 수집 사업단에 송부
3	수집 사업단	평가지를 종합하여 수집활동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평가

표 13 수집활동 평가 세부단계

❒ 4단계: 수집결과 평가

세부 단계	행위자	내용
1	전문가 집단	주제에 해당하는 S-NAP의 내용과 리드를 통해 매핑 평가지 개발
2	수집 사업단	수집 사업단에서 평가지를 통해 수집기록을 매핑
3	전문가 집단	매핑 결과를 검토하고 매핑되지 않은 기록에 대한 내용을 S-NAP에 기술하여 보완

표 14 수집결과 평가 세부단계

❒ 5단계 수집사업 완료단계 평가

세부 단계	행위자	내용
1	서울기록원 담당자	수집 사업 완료 후 산출물 수령
2	서울기록원 보존·시스템 담당자	(비)전자기록에 대한 상태평가지를 작성하고 상태평가에 따른 기록관리 방안을 확정하여 시스템에 수집기록 등록
3	서울기록원 담당자	수집평가 전 과정과 결과를 확인하고 시사점과 이슈사항을 도출하여 향후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예산 책정의 근거로 활용

표 15 수집사업 완료단계 평가 세부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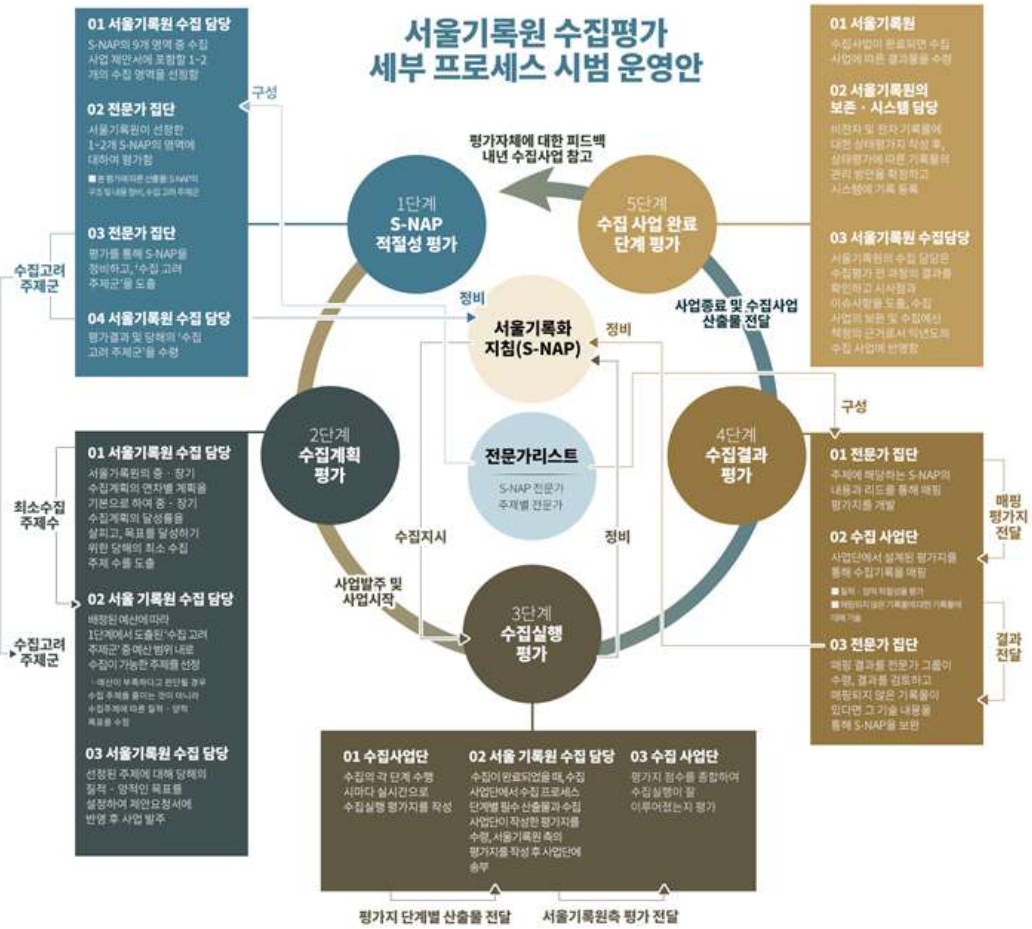


그림 20 서울기록원 수집평가 세부 프로세스 시범운영안

1.5 S-NAP 정비

1.5.1 S-NAP 정비 개요

❒ S-NAP의 특징

- S-NAP은 서울을 둘러싼 사회적 기억과 서울시민의 일상적 삶의 특징을 기록화하기 위한 '서사 기반의 수집실행지침'임
- 서사 기반의 기록화 지침인 S-NAP은 사회적 맥락 속 다양한 개인과 집단의 해석을 통해 서울을 총체적으로 재현하고 표상할 수 있는 도구로 서울기록 수집의 방향성을 제시함
- S-NAP은 수집의 방향성을 제시하면서도 네트워크 및 수집 결과에 따라 S-NAP이 보완되기도 한다는 특징을 가짐
- 2020년 서울기록화 사업에서는 S-NAP 정비팀과 수집팀의 상호보완 관계를 제안하고 수집에서 발생하는 이슈를 S-NAP에 반영하도록 함

❒ 2021년 S-NAP 보완 방향

- 2021년 S-NAP 보완은 구조에 대한 보완이 아닌 수집된 기록을 바탕으로 하위 S-NAP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에 중점을 둠
- 2021년 서울기록화 사업은 'S-NAP 3.3.1 재래시장'과 'S-NAP 6.1.4 마을 만들기 지원' 2개 하위 S-NAP을 주제로 수집을 실행함
- 수집된 기록을 내용에 매핑하여 분석하고 하위 S-NAP의 내용과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수집기록을 추가함

1.5.2 S-NAP 정비 결과

❒ S-NAP 3.3.1 재래시장

- 당해 사업에서는 재래시장을 주제로 성북구 '정릉시장', 종로구 '동대문 문구완구시장', 동작구 '남성사계시장' 등에서 수집을 진행함
  - 재래시장 S-NAP의 내용에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은 마포구 '망원시장', 종로구 '광장시장', 중구 '방산시장', 동대문구 '경동시장', 송파구 '새마을시장' 등이 제시되나 대표적인 재래시장에 성북구 '정릉시장'과 '동대문 문구완구시장' 등을 추가함
- 현재 S-NAP에 제시된 재래시장 수집대상 기록에 실제로 수집기록을 매핑하고 S-NAP이 포괄하지 못하는 기록의 유형을 식별하여 S-NAP을 보강함
- 재래시장과 관련하여 수집된 기록의 유형은 다음과 같음

- 재래시장의 쇠퇴를 보여주는 철거와 관련된 공공기록
- 재래시장의 쇠퇴를 보여주는 사진, 인터뷰, 영상 기록
-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축제, 행사, 이벤트 기록
- 재래시장 상인회의 활동 기록

수집기록 유형	건수	내용
정릉시장 축제 및 체험 기록	92	정릉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사·이벤트에 관한 기록
문구완구시장 행사 기록	132	문구완구시장 활성화에 관한 행사 기록
정릉시장 상인회 활동 기록	1	정릉시장 상인회의 다양한 활동 기록
문구완구시장 상인회 활동 기록	160	문구완구시장 상인회의 다양한 활동 기록
문구완구시장 경비실 철거 기록	4	문구완구시장의 쇠퇴에 관한 철거 관련 공공기록
문구완구시장 빈 점포 사진 및 다큐멘터리 영상	36	동대문 문구완구시장의 쇠퇴에 관한 기록
망원시장 빈 점포 사진	2	망원시장의 젠트리피케이션에 관한 기록
남성사계시장 상인회 활동 기록	46	남성사계시장 상인회의 다양한 활동 기록
남성사계시장 축제 및 체험 기록	14	남성사계시장 활성화에 관한 행사·이벤트 기록
망원시장 행사 및 이벤트 기록	10	망원시장 활성화를 관한 행사·이벤트 기록

표 16 재래시장 수집기록 유형

❐ S-NAP 6.1.4 마을 만들기 지원

- 당해 사업에서는 'S-NAP 6.1.4 마을 만들기 지원'을 주제로 '강남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금천마을공동체'에서 수집을 진행함
- 현재 S-NAP에 제시된 수집기록 유형과 실제 수집기록을 매핑한 결과 S-NAP에 제시된 수집기록 유형이 실제 수집기록을 포괄하고 있음
- 따라서 강남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수집기록과 공릉꿈마을공동체, 금천구 마을공동체기록관의 면담을 통해 기존 수집대상 기록을 세분화하여 S-NAP의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지원사업에 관한 기록들'의 유형을 세분화함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지원사업에 관한 기록들'은 '주민 주도형 사

업 공모에 관한 기록', '주민 활동가 육성 사업과 관련된 기록', '주민 아키비스트 육성과 관련된 기록', '네트워크 및 파트너쉽 구성과 관련된 기록', '마을공동체 활동 사례집 제작 지원과 관련된 기록'으로 세분화함

1.5.3 S-NAP 정비 제안

-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S-NAP의 정비를 제안함
- 변경내용을 식별하기 위하여 기존 S-NAP에서 내용이 변경되거나 추가된 부분을 각괄호([,])로 표기함

❐ S-NAP 3.3.1 재래시장

의미와 가치

재래시장이란 소상인들이 모여서 갖가지 물건을 직접 판매하는 전통적 구조의 시장을 말한다. 그 기원은 3일장, 5일장 같이 사람들이 모여서 열리는 정기시장에서 출발하였지만,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요즘에는 소상인들이 연합체 구조를 갖춘 상설시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재래시장은 과거부터 지역주민들의 삶에서 주요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곳이자, 전통문화와 정서가 담긴 곳이다. 재래시장에서는 일괄구매 가능, 지역주민과 가까운 입지적 특성, 영세 상인에게 고용기회 제공, 서민층에 저가 구매기회 제공 등 지역경제 측면에서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와 같이 전근대의 생활상에서, 그리고 그리 멀지 않은 과거의 생활상에서도 재래시장은 사람들이 일상을 영위하는 삶의 흐름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었다. 그러나 전근대적인 유통 방식, 영세성, 비효율적인 경영, 낙후된 시설 등으로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에 비해 경쟁력을 상실해감에 따라 점차 주요한 흐름에서 이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상인회 등이 부흥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재래시장에 관한 기록을 수집함으로써, 재래시장의 역사적 변천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다양한 의미를 확인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범위

서울의 재래시장에 대한 기록을 수집한다. 재래시장의 현재 모습을 담은 영상이나 사진 자료를 포함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에 관한 기록, 관광과 유흥 등 시장 본연의 모습에서 확장된 모습까지 담을 수 있는 기록을 수

집한다.

내용

재래시장은 전통시장이라고도 불리며, 오늘날에는 소상인들이 모여서 갖가지 물건을 직접 판매하는 전통적 구조의 상설시장을 말한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으로는 마포구의 망원시장, 종로구의 광장시장, 중구의 방산시장, 동대문구의 경동시장, 송파구 새마을시장, [종로구의 동대문 문구완구시장, 성북구의 정릉시장] 등등이 있다.

광장시장은 10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서울 최대의 재래시장으로, 대표적인 먹거리 시장이다. 특히 '마약김밥'과 '빈대떡' '육회'가 유명한데, 광장시장 에는 이처럼 독특한 한국적 음식이 판매되고 있어서 최근에는 해외 관광객에게도 인기가 높다. 또 광장시장 2층에는 유명 해외브랜드의 수입 구제 상점이 즐비해 있어서 명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들을 모은다. 경동시장은 1960년에 개설되어 약 6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시장으로 전국 최대의 한약시장으로 유명하며, 마포구 망원시장은 근처에 문화비축기지와 한강시민공원이 있어 젊은이들의 데이트 코스로 자주 이용되는 곳이다.
이처럼 오늘날 재래시장은 지역주민이 물건을 구매하는 시장 본연의 역할뿐 아니라 관광과 유흥의 장소로서 기능하고 있다.

- 재래시장에서의 상행위와 물품을 담은 사진, 영상 자료들
- 재래시장의 상인들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
- 재래시장 분포도를 나타내는 시기별 지도 자료

[동대문 문구완구시장은 종로구 창신동에 위치하지만 동대문과 인접하여 "동대문 문구완구시장"으로 불린다. 과거 동대문역(현재 청량리역으로 이전)과 고속버스터미널이 있던 곳으로, 역전 뒤 선술집들이 청계천을 따라 모여 있는 골목이었다. 역과 터미널이 이전하면서 선술집들이 사라졌고, 그 자리를 버스에서 작은 문구류를 팔던 상인들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도매점들이 생겨나면서 시장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출산율 저하는 자연스럽게 고객감소로 이어졌고 학습준비물 지원제도가 확대되면서 문 닫는 문구점이 늘어갔다. 문구점들은 상당수가 폐업하거나 천호동 등으로 이전 했다. 완구점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놀이문화의 변화, 온라인 플랫폼 등장 등으로 곤란을 겪었다. 더구나 가격 할인점이나 대형 유통업

체, 기업형 만물상 등의 등장으로 경쟁업체 대비 30% 가량의 가격경쟁력을 지켜내기 힘들었다. 이처럼 1996년 유통산업이 전면 개방된 이후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고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의 진출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재래시장은 침체의 시기를 맞고 있다.]

[• 재래시장의 쇠퇴를 보여주는 철거와 관련된 공공 기록]
[• 재래시장의 쇠퇴를 보여주는 사진·인터뷰·영상 기록]

망원시장이 자리하고 있는 망원동은 한강을 이웃하고 있어,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서울의 상습 침수 지역 중 하나였다. 홍수 때 마다 개천이 넘쳐 집 안에 물이 들고, 썩은 내가 진동했던 경험을 망원동 주민들은 갖고 있다. 게다가 1993년 난지도 쓰레기매립장이 폐쇄하기 전까지 인근에 쓰레기장이 있어서 주거지역으로 기피되던 지역이었다. 지금이야 유수지 설립 및 관개 시설 개선으로 침수 사태는 사라지고 오히려 한강시민공원이 인접해 있어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지만 과거엔 도시빈민과 영세상인들이 주거하는 곳이었다. 2002년부터 10년에 걸쳐 망원시장 근처에 대형마트 2곳과 기업형 슈퍼마켓 1곳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상인들은 2012년 난생처음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 대형 점포가 들어설 때마다 매출이 토막 났기 때문이다. 망원시장 87개 점포(현재 88개 점포) 상인들은 홈플러스에 포위된 상태로 고군분투했다. 상인들이 끈질기게 입점 저지 운동을 벌인 끝에, 홈플러스는 합정점의 품목 판매 제한에 합의하고 홈플러스익스프레스도 폐점 했다. 입점 저지 운동을 통해 현재 상인회가 자리한 건물도 마련했고, 상인회 조직도 보다 튼튼해졌다. 시장 내 점포 모두가 가입해 명실상부한 망원시장 상인회가 출발했다.

[• 대형마트 진출 반대를 위한 상인회의 활동과 관련된 기록들]
[• 재래시장 상인회의 활동 기록]

[정릉시장은 1963년 정릉천 복개공사로 시장이 형성되었으나, 1995년 정릉천 복원사업으로 등록이 말소된 적이 있다. 하지만 2010년 3월 국민대학교와 정릉시장 상인회가 '전통시장 성장 발전을 위한 MOU' 체결하고 서울시 인정시장으로 재등록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14년 8월부터 시작된 서울시의 '서울형 신시장 모델' 시범사업은 관공서가 지원하고 지역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유형의 시장 기획으로 정릉시장 재부흥을 이끌었다.] 사실상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은 각계각층에서 전개되어왔다. 정부는 다양한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 및 경영선진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 777개 시장에 대해 2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였다. 그 외에도 재래시장 상인회는 지역 친화적인 도시재생을 하는 단체 등과 함께 재래시장 활성화와 다변화를 위해 여러 시도들을 해왔다. 그러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의 매출액 및 종사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마을과 시장을 연결하는 새로운 도시재생모델인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을 선정하여 2020년부터 진행하고자 계획 중이다.

• 대형마트 진출 허가와 관련된 공공기록
•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과 관련된 공공기록
[• 재래시장의 쇠퇴를 보여주는 철거와 관련된 공공 기록]

오늘날 재래시장의 암울한 미래는 재래시장만의 미래가 아닌 듯 보인다. 재래시장이 쇠락하는 데 주된 영향을 끼친 할인점과 대형마트도 영업위기를 겪고 있으며, 결국 소상공인이든 자본가든 적자생존의 법칙을 따라 잔인하게 존폐가 결정되고 있다. 그 원인은 무엇보다 온라인 오픈마켓의 급속한 성장 때문이다. 당일 배송 서비스와 리뷰 서비스, 배송조회의 체계화로 인해 기존에 전자상거래의 약점으로 꼽히던 신선식품(채소, 과일, 육류, 해산물 등)의 유통량이 폭증하였고, 심지어 해외직구도 지원한다. 실시간 최저가조회도 간단하여 대형마트보다 가격 비교도 편한데, 스마트폰과 신용카드 한 장이면 이 모든 것을 침대에 누워서 끝낼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슬로우 푸드'를 지향하면서 다시 재래시장을 천천히 거닐며 음식 재료를 사서 집에서 해 먹는 사람과 문화도 생겨나고 있다.

• 슬로우 푸드를 지향하는 삶의 스타일을 담은 다큐멘터리
• 대형마트보다 재래시장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구술 인터뷰자료

이상에서 식별된 수집 대상 기록을 관련 주체의 유형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
• 재래시장 분포도를 나타내는 시기별 지도 자료
• 대형마트 진출 허가와 관련된 공공 기록
•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과 관련된 공공 기록
[• 재래시장의 쇠퇴를 보여주는 철거와 관련된 공공 기록]

민간영역
• 재래시장에서의 상행위와 물품을 담은 사진, 영상 자료들
• 재래시장의 상인들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
[• 재래시장의 쇠퇴를 보여주는 사진·인터뷰 영상]
[•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축제·행사·이벤트 기록들]
[• 재래시장 상인회의 활동 기록]
• 대형마트 진출 반대를 위한 상인회의 활동과 관련된 기록들
• 슬로우 푸드를 지향하는 삶의 스타일을 담은 다큐멘터리
• 대형마트보다 재래시장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구술 인터뷰자료

❒ S-NAP 6.1.4 마을 만들기 지원

의미와 가치

‘주로 시골에서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이라는 마을의 사전적 정의는 지리적, 물리적 특성만을 반영한 전통적 개념이다. 오늘날의 마을은 지리적, 물리적 특성을 넘어 사회문화적인 공감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공유하는 사회적 관계망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리적으로 한 곳에 모여 사는 ‘마을’이 아닌 공통의 가치와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인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마을 만들기를 하려고 한다. 서울시는 마을공동체를 경제, 문화, 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이며 주민자치 공동체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하는 공동체로 규정한다.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는 마을공동체가 진행하는 활동으로 마을공동체 회복의 기회를 제공한다.

범위

서울시는 공동체 복원을 통해 사라져가는 마을을 되살리는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한다. 2012년을 시작으로 한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한 기록들을 수집한다.

내용

1970, 80년대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서울의 성장은 다른 어떤 곳보다 단연 앞선다. 그러나 삶의 질은 경제 성장을 따라잡지 못했다. 서울시

마을 만들기를 시작한 2012년 당시 우리나라의 행복지수 OECD 국가 중 32위에 불과했다. 단기간의 외적성장이 주는 폐해가 생각보다 심각했다. 화려한 도시 뒤 어두운 그림자가 실체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다세대 주택 건설 등으로 도시는 획일화되었고 재개발은 지역주민 간의 갈등을 유발시켰으며 원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다. 서울은 '더불어 살아가는 정과 삶의 즐거움이 사라져가는 거대도시'가 되었다. '급속한 도시화와 개발로 사라진 사람의 가치와 신뢰의 관계망 회복'을 위해서 마을공동체 회복이 필요했다. 과거에도 마을공동체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관 주도형으로 실패한 경험이 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민관협력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마을공동체 사업을 계획했다. 마을 만들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어 움직이는 주민참여이다. [강남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지역주민의 공모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의제 개발, 제안서 작성 등 주민공모사업교육을 통해 거버넌스를 촉진하고,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동별교육을 통해 마을공동체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주민참여의 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환경을 개선하고 살고 싶은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지속적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게 행하는 각종 노력과 운동이다.

- 서울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 계획 등에 관한 기록들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보고서 2012
- 성북구 도시아카데미 과정 관련 기록 및 참여자들의 인터뷰
- 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 활동 관련 기록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민관협력을 지향하며 "주민의 필요에 따라 계획하고 직접 만드는 마을공동체실현"을 비전으로 문을 열었다. 서울시는 마을기업 등의 경제 공동체, 마을미디어, 마을예술창작소 등의 문화 공동체, 에너지 자립마을, 공동주택마을 등의 주거 공동체, 부모 커뮤니티, 공동육아 등의 돌봄 공동체 등 특성에 맞게 분야를 설정하여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서울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 기금 사업,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주민참여 지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 활력소 조성 지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 계획 사업 등과 마을과 학교 연계, 대학과 지역사회 연계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금천구 마을공동체와 공릉꿈마을공동체에서는 주민 활동가를 육성함과 동시에 주민주도형 사업의 공모를 받아 주민주도형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 서울시 마을 지원 사업 관련 기록들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기록들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지원 사업에 관한 기록들
[• 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 활동 관련 기록]
[• 주민 주도형 사업 공모와 관련된 기록]
[• 주민 활동가 육성 사업과 관련된 기록]
[• 주민 아키비스트 육성과 관련된 기록]
[•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구성과 관련된 기록]
[• 마을공동체 활동 사례집 제작 지원과 관련된 기록]

이 외에도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자치구 마을 소식, 뉴스레터, 사회혁신과 유관기관 소식 등 마을 관련 소식을 전하고 정책 웹진 〈서울 마을〉 마을공동체 관련 정책, 담론, 이슈를 전달한다. 서울시 마을공동체의 성과와 의미를 나누기 위해 매년 펼쳐지는 서울 마을 주간 행사 기획, 진행한다. 마을 주간 기념식 행사에서는 서울시장상인 서울마을상과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장상인 서울공동체상 시상을 하여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활동을 홍보한다. 또한 각 자치구는 자치구 내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마을자치센터 등의 공간에 체험부스를 마련하여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행사에 관한 기록들
• 정책 웹진 〈서울 마을〉 관련 기록들

이상에서 식별된 수집 대상 기록들을 관련 주체의 유형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
• 서울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 계획 등에 관한 기록들
• 서울시 마을 지원 사업 관련 기록들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기록들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지원 사업에 관한 기록들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행사에 관한 기록들
• 정책 웹진 〈서울 마을〉 관련 기록들
• 성북구 도시아카데미 과정 관련 기록 및 참여자들의 인터뷰
[• 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 활동 관련 기록]
[• 주민 주도형 사업 공모와 관련된 기록]

[• 주민 활동가 육성 사업과 관련된 기록]
[• 주민 아키비스트 육성과 관련된 기록]
[•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구성과 관련된 기록]
[• 마을공동체 활동 사례집 제작 지원과 관련된 기록]

2. 네트워크

2.1 네트워크 운영 개요

2.1.1 네트워크 운영 진행 방향

❒ 이전 사업의 성과

- 2019년 서울기록화 사업을 통해 네트워크 운영의 기틀을 마련함
- 2020년 서울기록화 사업은 2019년의 기틀을 바탕으로 S-NAP과 연결되는 기록·활동·조직을 조사하여 프로세스를 보완하고 유기적인 네트워크 생태계 구축을 시도함
- 2019-2020년 사업의 네트워크 운영 성과를 2020년 서울기록페어를 통해 발현함

❒ 2021년 네트워크 운영 방향

- 2021년 서울기록화 사업은 2020년의 네트워크 진행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서울기록원과 서울에서 활동하는 기록활동 주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에 중점을 두고 진행함
- 구체적인 네트워크 대상선정은 올해의 수집주제인 'S-NAP 3.3.1 재래시장'과 'S-NAP 6.1.4 마을 만들기 지원'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대상의 영역을 분류하고 네트워크 구축을 진행함

- 분류된 영역별 대상과 면담을 진행하고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위해 2021 서울기록페어를 개최함



그림 21 네트워크 구축 프로세스

2.1.2 네트워크 운영 성과

❒ 최종 네트워크 대상 선정

- 2021년 서울기록화 사업의 수집주제를 기반으로 기록활동이 존재하는 네트워크 대상 후보군을 구성함
  - 108개의 1차 네트워크 후보군 중 현재 활동이 종료되었거나 기록활동이 없는 곳을 제외하여 72개의 2차 네트워크 후보군을 선별함
- 2차 네트워크 후보군 중 최종적으로 31개의 리드를 네트워크로 확정함
  - 2차 네트워크 후보군에서 제외된 41개의 네트워크 후보는 향후 서울기록화 사업에서 유력한 네트워크 후보가 될 수 있음
- 31개의 최종 네트워크 대상과 네트워크 면담을 진행하여 기록활동 현황과 요청사항 등을 파악함

2.2 네트워크 진행

No.	단계	내용	산출물
1	네트워크 후보군 목록 작성	수집주제에 따른 1차 네트워크 후보군 목록 작성	1차 네트워크 후보군 목록
2	기록활동 조사	조사를 통한 기록활동 여부 확인	2차 네트워크 후보군 목록
3	네트워크 면담	후보군과 접촉 및 면담 진행	최종 네트워크 후보군 목록 리드·케이스파일
4	네트워크 결과	면담일지 작성 및 네트워크 최종 판단	면담일지

표 17 네트워크 진행 프로세스

- 수집주제와 네트워크 영역을 기준으로 네트워크 후보군을 선정함
- 네트워크 후보에 대한 기록활동 조사를 수행함
  - 네트워크 후보의 SNS, 홈페이지, 사전질문지 등을 활용해 기록활동의 유무와 수준을 파악함
- 유선, 이메일, SNS 등을 통해 면담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면담을 진행함
- 네트워크 면담 결과를 '면담일지'로 정리하고 최종적으로 서울기록원의 네트워크로 확정함

2.2.1 네트워크 대상선정

❒ 1차 네트워크 후보군

- ∘ 올해의 수집주제인 ‘재래시장’과 ‘마을 만들기 지원’을 중심으로 서울에서 활동하는 개인 및 단체를 조사하여 선정
- ∘ 2020년 서울기록화 사업의 ‘1차 네트워크 후보군’ 목록과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열린 데이터 광장’을 활용하여 서울에서의 기록활동이 예상되는 주체를 취합하여 1차 네트워크 후보군을 작성함
  - 조사 결과를 공공·협치·민간 영역으로 구분하여 108개의 1차 네트워크 후보군을 구성하고 네트워크 대상 리드 정보를 목록으로 작성함
- ∘ 영역별 구분 기준과 발굴 경로는 다음과 같음
  - 공공영역: 법적 의무에 근거한 영역으로 서울특별시 본청, 본부·사업소,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으로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열린 데이터 광장,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발굴함
  - 협치영역: 민간이 공공영역으로부터 위탁 또는 위임받은 영역으로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기관 홈페이지,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에서의 검색을 통해 발굴함
  - 민간영역: 개인·단체의 자발적인 활동과 참여의 영역으로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과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에 등록된 NGO·NPO 목록, 온라인·SNS 검색을 통해 발굴함

구분		서울과 관련 활동의 근거	기록 활동의 특성
공공영역	본청	지방자치법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규정 등	- 조례, 규칙 등에 따라 서울과 관련한 기록을 생산·관리함 - 기록활동이 사업화되어 있으므로 기록화 시급성 낮음
	본부·사업소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공사·공단	각 공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출자·출연기관	기관별 설립 및 운영 조례	
협치영역	민간위탁기관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 시설 운영, 사업 등을 민간기관이 위탁 및 위임받아 수행함 - 행정적 증빙의 목적을 제외한 기록활동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짐
민간영역	마을, 조직, NGO·NPO	자발적 활동 및 참여	- 자발적 기록활동에 의존 - 활동의 과정 및 결과가 기록으로 충분히 표현되지 못하여 기록화 시급성 높음
	개인, 모임		

표 18 네트워크 영역별 특성

❒ 2차 네트워크 후보군

- 1차 네트워크 후보군을 바탕으로 기록활동 여부, 네트워크 구축 의사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책정함
- 1차 네트워크 후보군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부적합 후보를 제거하고 새롭게 발굴한 후보를 추가하여 2차 네트워크 후보군을 구성함

No.	1차 후보군	2차 후보군
1	8202	8202
2	강남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강남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3	강남종합사회복지관	강남종합사회복지관
4	강북구공동체라디오(강북FM)	강북구공동체라디오(강북FM)
5	강북나눔연대	강북나눔연대
6	구로마을연구소	구로마을연구소
7	꿈꾸는 다락방	꿈꾸는 다락방
8	난민인권센터	난민인권센터
9	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10	동대문문화예술네트워크	동대문문화예술네트워크
11	동대문문화재단	동대문문화재단
12	동작MOM매거진	동작MOM매거진
13	또보자 마을학교	또보자 마을학교
14	로컬엔터테인먼트	로컬엔터테인먼트
15	사단법인 구로시민센터	사단법인 구로시민센터
16	사단법인 꿈지락네트워크	사단법인 꿈지락네트워크
17	사단법인 사람숲	사단법인 사람숲
18	사단법인 서대문공동체라디오	사단법인 서대문공동체라디오
19	사단법인 서울도시문화연구원	사단법인 서울도시문화연구원
20	사단법인 은평상상	사단법인 은평상상
21	사단법인 중랑마을넷	사단법인 중랑마을넷
22	사단법인 한국시니어블로거협회	사단법인 한국시니어블로거협회
23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24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보전시민모임
25	서울도시농업시민협의회	서울도시농업시민협의회
26	서울수집	서울수집
27	서울시혼합주택임차인연합회	서울시혼합주택임차인연합회
28	서울은 이상한 도시	서울은 이상한 도시

No.	1차 후보군	2차 후보군
29	서초행복마을학교	서초행복마을학교
30	선잠52	선잠52
31	성수동쓰다	성수동쓰다
32	세대공감 마을신문 모락모락	세대공감 마을신문 모락모락
33	시민방송RTV	시민방송RTV
34	아마추어 서울	아마추어 서울
35	아차산아래	아차산아래
36	알타리학교	알타리학교
37	양재마을넷	양재마을넷
38	양천해누리복지관	양천해누리복지관
39	영등포시민연대 '피플(P+)'	영등포시민연대 '피플(P+)'
40	은평마을방송스튜디오 (은평마을방송협동조합)	은평마을방송스튜디오 (은평마을방송협동조합)
41	은평마을예술창작소 별별곳간	은평마을예술창작소 별별곳간
42	은평여성네트워크	은평여성네트워크
43	이희준(전통시장 도슨트)	이희준(전통시장 도슨트)
44	청년콘텐츠랩유니콘	청년콘텐츠랩유니콘
45	청소년 대안공간 '돋움'	청소년 대안공간 '돋움' (은평씨앗학교)
46	청파e-마을신문	청파e-마을신문
47	페이퍼보이	페이퍼보이
48	(사) 노동인권회관	한국용산문화예술인총연합회
49	(사) 서울특별시 교통회관	(사)관악푸르게만들기환경지킴이
50	(사) 종교인평화봉사단	강남북 균형발전 연구원
51	(사)강북풀뿌리활동가포럼	강서마을넷
52	(사)결혼이민가족지원연대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53	(사)관악주민연대	관악구 르네상스포럼 작은열린음악회
54	(사)구로시민센터	관악산과 도림천 환경지킴이
55	(사)나눔과 미래	김수민(스포츠기록활동가)
56	(사)노동희망	김재석(펫로스)
57	(사)녹색교육센터	김종임(금천구 마을기록활동가)
58	(사)대한어머니회 중앙연합회	김지원(공릉꿈마을협동조합 이사장)
59	(사)대한에이즈예방협회 서울시지회	노동도시연대
60	(사)대한장례인협회	노른패
61	(사)마을과 사람	박현주(금천구 마을기록활동가

No.	1차 후보군	2차 후보군
62	(사)막달레나공동체	권순원(브루어스)
63	(사)문화다움	삼각산재미난마을
64	(사복)엔젤스헤이븐	성북문화원
65	(사복)인덕원	성북신나
66	NPO교육센터	아트버스킹
67	S&Y도농 나눔공동체	오현애(금천구 마을교과서)
68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우리가 그린(green) 은평 네트워크
69	굿네이버스	이성호(금천구 마을신문)
70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정희우(화가)
71	대림시장 상인회	최진(금천구 마을기록활동가)
72	대안교육연대	최호진(은평구 기록활동가)
73	더좋은 은평 포럼	
74	동대문 문구완구시장 상인회	
75	문화 반창고 소리디	
76	문화예술NGO예술과시민사회	
77	비영리민간단체 한국패션타투협회	
78	사단법인 마을	
79	사단법인장례지도사협회	
80	사회복지법인 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	
81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	
82	삼각산 역사문화 보존회	
83	새마을운동은평구지회	
84	서북병원	
85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86	서울시119특수구조단	
87	서울시교통장애인자활협회	
88	서울시설공단	
89	서울시소방학교	
90	서울시장애인부모회	
91	서울신용보증재단	
92	서울요양보호사협회	
93	안티카	
94	연세대학교	
95	열린문화공간KTOP	

No.	1차 후보군	2차 후보군
96	용문시장 상인회	
97	우리가 그린(green) 은평 네트워크	
98	은평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99	은평구체육회	
100	녹생인문학	
101	은평문화센터	
102	은평병원	
103	은평수채화커뮤니티 물, 색, 그리다	
104	인왕시장 상인회	
105	장년창업공유공동체	
106	재단법인 시민방송	
107	청소년 대안공간 돋움_은평씨앗학교	
108	푸르메	

표 19 1, 2차 네트워크 리드 후보군 목록

2.2.2 네트워크 면담

❒ 네트워크 리드 접촉

◦ 2차 네트워크 리드 후보에게 유선,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접촉하고 네트워크 면담을 통해 기록활동 현황, 기록관리 요구사항 등을 조사함


2021년 서울기록화사업 네트워크 요청 건 메모 추가

2021-10-19 12:37:42

보낸 사람: 김동민 <dmkim@rikar.org>
받는 사람: ycoon@naver.com 주소추가
참조: "(사)한국국가기록연구원" <rikar@rikar.org>,cts@manatee.kr 주소추가

첨부 파일: 1개 (2.8MB)
서울기록 수집 및 네트워크 협조요청(2021).pdf (2.8MB)

안녕하세요 김동민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서울기록화사업의 네트워크 협조요청을 위한 소개자료를 첨부하여 보내드립니다.

서울에서 기록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개인들을 대상으로 서울기록원과 연계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록문화를 공유하고자 네트워크 협조요청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림 22 이메일을 통한 네트워크 리드 접촉 예시

영역	리드명	접촉상태	기록활동
민간	시민방송 RTV	· 7월 8일 유선접촉 · 7월 29일 대면 면담 진행 · 10월 29일 유선접촉 및 네트워크 세션 참석 수락	· 촬영 영상을 릴 테이프, 전자파일로 보관 · 릴 테이프는 관리 소홀로 대부분 소실 · 나스를 활용하여 전자기록 관리
민간	꿈꾸는 다락방	· 7월 28일 홍보자료 발송 · 7월 29일 유선접촉 · 8월 6일 사전질문지 수령 · 11월 3일 면담진행	· 카페, '작은도서관' 운영 · 학생관리일지, 활동별 예산 및 프로그램 기획 등을 파일별로 관리

표 20 1차 네트워크 접촉일지 예시

❒ 네트워크 면담 진행

- ∘ 네트워크 면담은 네트워크 대상의 구체적인 기록활동 현황과 기록관리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함
- ∘ 2차 네트워크 후보군을 대상으로 유선, 이메일, SNS 등으로 2차 접촉을 통해 네트워크 면담 여부를 확인함
  - 코로나19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어 비대면 면담도 병행함
- ∘ 코로나19, 네트워크 후보 리드의 내부 일정 등으로 올해 참여가 어려운 41개의 리드를 제외한 총 31개 리드의 면담을 진행함

❒ 네트워크 확정

- ∘ 2021년 6월부터 11월까지 면담을 진행한 31개의 네트워크 후보 리드를 네트워크로 확정함

일자	영역	리드명	요구사항
06.27	민간	오늘공동체 한강팀	네트워크 프로그램 참여, 기관 홍보
07.13	민간	은평상상	네트워크 프로그램 참여, 마을공동체 활동
07.29	민간	시민방송RTV	기록 보관 이슈
08.25	민간	서울은 이상한 도시	기록활동 주제, 네트워크 프로그램 참여
09.14	민간	꿈꾸는 다락방	네트워크 프로그램 참여

일자	영역	리드명	요구사항
09.14	민간	별별곳간	기관 홍보
09.14	협치	강남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서울기록원과 연계 프로그램, 기관 홍보, 폐지기관 기록 이관
09.15	민간	아마추어 서울	서울기록원과 연계 프로그램
10.29	협치	금천구 마을공동체기록관	기록관리 교육, 2021 서울기록페어
11.04	협치	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기록관리 이슈, 기록관리 교육
11.05	민간	김종임(금천구 마을기록활동가)	기록관리 교육 및 가이드라인
11.05	민간	박현주(금천구 마을기록활동가)	기록관리 교육 및 가이드라인
11.05	민간	오현애(금천구 마을교과서)	기록관리 교육 및 가이드라인
11.05	민간	이성호(금천구 마을신문)	기록관리 교육 및 가이드라인
11.05	민간	최진(금천구 마을기록활동가)	기록관리 교육 및 가이드라인
11.17	민간	김재석(펫로스)	기록관리 교육 및 가이드라인
11.17	민간	권순원(브루어스)	사진기록 생산, 아카이브 구축
11.17	민간	공릉꿈마을협동조합	서울기록원과 연계 프로그램
11.17	협치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기록관리 이슈, 모임 일지
11.17	민간	노른패	전담인력 지원, 기록관리 가이드라인
11.17	민간	생태보전시민모임	기록관리 현황, 네트워크 의사
11.17	협치	동대문문화재단	네트워크 의사, 기록관리 가이드라인
11.17	민간	영천시장 상인회	기록관리 가이드라인
11.21	민간	유샘솔(서울기록활동가)	기록관리 가이드라인, 영상기록관리
11.22	민간	최호진(은평구 기록활동가)	기록관리
11.23	민간	김수민(스포츠기록활동가)	서울기록원 소장기록 활용
11.23	민간	양재마을넷	기관 홍보
11.23	민간	로컬엔터테인먼트	기록관리 솔루션, 기록관리 가이드라인
11.23	민간	서울수집	구술기록, 마을기록 네트워크
11.23	민간	성수동 쓰다	네트워크 프로그램 참여
11.24	민간	동대문 문구완구시장	기관 홍보

표 21 네트워크 면담 요구사항

◦ 네트워크 면담의 과정과 결과는 리드·케이스파일과 면담일지로 정리함
◦ 최종 네트워크 대상으로 확정된 31개 네트워크 리드의 면담 주요 내용은 표 22와 같음

단체명	면담 주요 내용
오늘공동체_한강팀	- 한강을 주제로 전시를 진행하고 있음 - 전시에 사용할 기록의 대여를 요청함 - 추후 네트워크 활동에 참여 가능함
은평상상	- 마을 관련 활동에 대한 열정이 높고 기록활동도 존재함 - 서울기록원의 행사나 네트워크 프로그램 참여는 어려움 - 은평구의 어르신 기록활동가를 소개 가능함
시민방송RTV	- 릴테이프와 전자파일 등 영상기록을 다수 보유 중이었으나 사무실 이전으로 릴테이프 소실됨 - 기록을 보관할 장소가 부재하여 기록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서울은 이상한 도시	- 서울의 건축물을 주제로 주기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함 - 대규모 건축에서 의무로 조성하는 예술품에 관심이 있음 - 서울기록원과의 관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으며, 기록에 관한 관심과 열의가 높아 추후 지속적인 협력이 가능함
아마추어서울	- 대학교 동기 4명이 서울이라는 지역을 지도로 매개로 도시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함 - 서울기록원과의 관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으며, 기록에 관한 관심과 열의가 높아 추후 지속적인 협력이 가능함
꿈꾸는 다락방	- 서울에 대한 기록활동이 없고 사업의 수집주제와도 일치하지 않으나 향후 기록활동을 위한 의지가 강함
금천구 마을공동체기록관	- 아카이브 구축을 올해 시작하여 수집을 진행함 - 서울기록원과의 연계를 통한 수집기록 공유가 가능함
양재마을넷	- 양재동의 기록을 수집함 - 수집기록 관리에 관한 교육을 요청함
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 마을주민에 대한 기록 수집을 기획하고 있으나 여력 부족
김종임 (금천구 마을기록활동가)	- 구술기록에 관심이 많으며 영상촬영법, 질문지작성법 등에 대한 교육을 요청함
박현주 (금천구 마을기록활동가)	- 금천구의 역사와 마을활동가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개인기록의 관리방안에 관심이 높음

단체명	면담 주요 내용
	- 기록관리 컨설팅을 요청함
오현애 (금천구 마을교과서)	- 마을 교과서와 관련된 기록을 다수 보유하고 있음
이성호 (금천구 마을신문)	-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금천구의 신문을 발행함
최진 (금천구 마을기록활동가)	- 마을기록활동가로 영상, 사진 기록 보존에 관심이 많음 - 영상에 대한 기록관리 교육을 요청함
로컬엔터테인먼트	- 현재 기록활동은 없으나 기록활동에 대한 관심이 큼
펫로스 (김재석)	- 반려동물의 상실을 주제로 아카이브를 구축을 목표로 함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증을 보유함
서울수집	- 개인 아카이브 구축을 목표로 하는 기록활동가 - 수집을 통해 기록을 남기고 서울을 조망함 - 서울기록원과의 협동전시 등에 관심이 큼
브루어스 (권순우너)	- 개인 아카이브 구축을 목표로 함 - 서울기록원과 연계한 활동에 관심이 많음
성수동쓰다	- 성수동을 중심으로 마을에 대한 기록활동을 전개함 - 협동조합을 준비하고 있으며 수집주제에 따라 주요 수집 리드가 될 수 있음
공릉꿈마을협동조합	-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마을공동체로 공릉동 마을공동체 활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함 - 마을활동에 대한 경험과 기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여력이 부족하여 경험과 기억을 기록화하지 못하고 있음
최호진 (은평구 기록활동가)	- 은평구에서 수십 년간 마을과 건물을 촬영함 - 원본기증, 사본수집, 위탁 등의 의사는 없으나 은평구를 주제로 한 전시 등 협력이 가능함
노른패	- 놀이터를 주제로 기록을 수집함 - 수집주제에 따라 수집 리드로 적합함
김수민 (스포츠기록활동가)	- 스포츠 기록을 꾸준히 수집함 - 스포츠 분석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음 - 수집주제에 따라 수집 리드로 적합함
유샘솔 (서울기록활동가)	- 서울의 도시와 건축물 사진 기록 보유함

표 22 네트워크 면담 주요 내용

아마추어 서울 질문지

구술자 명	아마추어 서울	면담자	김동민

1. 아마추어 서울은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아마추어 서울은 **언제부터 활동하였는지, 어떻게 시작하였는지** 궁금합니다.

3. 아마추어 서울에 소속되어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어떠한 계기로 참여하게 되었는지** 참여 계기가 궁금합니다.

4. 아마추어 서울에서 활동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지도 과월호**는 무엇입니까?

5. 현장을 다니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6. 서울 지역의 지도를 매체를 통해 이야기를 기록하시는데 주로 **어떤 관점**을 기반으로 기록을 하시나요?

7. 아마추어 서울은 **기록관리(자료관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으신가요?
(EX_ NAS, 구글드라이브, 외장하드 등)

8. 활동을 하시면서 이것은 **꼭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는 것이 있으실까요?

9. 기록을 남기고 관리하면서 서울기록원에 **업무협조** 요청 사항이 있으실까요?

10. 2021년 서울기록화사업에서 네트워크 분들을 대상으로 기록관련 네트워크 프로그램(교육, 컨설팅 등)이 있습니다. 혹시 참여 의사가 있으신가요? 만약 있다면 참여인원은 몇 명정도 가능하신가요?

11. 아마추어 서울의 **향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아마추어 서울 면담 일지

관리번호	면담-2021-05	리드명	아마추어 서울
연락처	유혜인 010-6567-8873 조예진 010-5259-9498	주소	-
유형	□ 개인 ■ 민간단체 □ 공공기관 □ 협치기관		
홈페이지	http://amateur-seoul.com/info/	E-mail	amateurseoul@gmail.com
회차	1	면담 일시	2021/09/14 15:08
피면담자	유혜인	면담자	김동민
면담 내용	1. 아마추어 서울은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마추어 서울(Amateur seoul)은 '지도'를 매개로 도시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프로젝트 그룹입니다. 지금까지 총 10호의 지도를 발행하였으며 이 외에도 전시, 투어, 워크숍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2. 아마추어 서울은 **언제부터 활동하였는지, 어떻게 시작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4명의 멤버가 모여 2008년 처음 활동을 시작하였고, 현재 유혜인과 조예진으로 구성된 2명의 멤버가 운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산업 디자인을 전공하던 대학 동기 4명은 평소에 서울 이곳 저곳의 동네를 걸어다니며 산책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꽤 오랜 시간동안 동네에 대한 기록을 해나가며, 졸업 프로젝트로 인사동 일대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들을 채집하며 기록한 소리지도(사운드맵)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발단으로 서울에서 주목되지 않은 동네가 가지고 있는 이면의 모습들에 대한 관심과 활동의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한 동네를 다른 요일, 시간, 계절마다 돌러보며 함께 경험들을 공유하고 이를 자연스럽게 사진, 영상 등으로 기록하는 활동을 지속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09년 당시 한국디자인문화재단(KDF)의 소모임 공모사업 지원을 통해 '아마추어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1호 옛 서울 지도를 제작하게 된 것이 공식적인 아마추어 서울 활동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림 23 아마추어서울 사전질문지 및 면담일지

시민방송RTV 질문지

구술자 명	시민방송RTV	면담자	김동민

1. 시민방송RTV가 어떠한 활동을 하고 운영됐는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시민방송RTV는 **언제부터 운영되었는지, 어떻게 시작하였는지** 궁금합니다.

3. 시민방송RTV에 소속되어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어떠한 계기로 참여하게 되었는지** 참여 계기가 궁금합니다.

4. 시민방송RTV에서는 시민들의 기록을 받아서 방송할 때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기록**은 무엇입니까?

5. 현장을 다니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6. 취재를 나간다고 하면 주로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나가시나요?

7. 시민방송RTV에서는 **기록관리(자료관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으신가요?

8. 활동을 하시면서 이것은 **꼭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는 것이 있으실까요?

9. 시민방송RTV를 다니시면서 삶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으셨나요?**

10. 시민방송RTV의 **향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시민방송RTV 면담 일지

관리번호	면담-2021-0003	리드명	시민방송RTV
연락처	김현익 010-3252-3721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53길 5 (청파동2가, 솔밭빌딩) 1층
유형	□ 개인 ■ 민간단체 □ 공공기관 □ 협치기관		
홈페이지	rtv.or.kr	E-mail	rtv@rtv.or.kr
회차	1	면담 일시	2021/07/29 11:30
피면담자	김현익	면담자	장태성, 김동민, 임기웅
면담 내용	1. 시민방송RTV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2002년 개국을 한 방송국으로 한겨레신문의 방송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카이라이프에서 시민의 채널을 운영해야한다는 의무가 있어서 시민방송 RTV가 만들어졌습니다.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채널이 만들어지면서 김대중정부의 언론의 민주화 운동과 같은 것이라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규모는 처음 개국했을 때는 40여명이 근무하였고 2008년 정도까지는 운영이 잘 되었습니다. 2. 1995년도에 국민주방송설립운동을 시작으로 2001년 시민방송 창업대회를 하고 이듬해에 시민방송 RTV를 설립하였는데 5년에서 6년 정도의 기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제가 2015년도에 입사를 하여서 잘 모릅니다. 다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지원금이 끊기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힘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3. 당시 정부지원금이 끊길 때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중지하겠다라는 통보를 받기 전에 유예기간은 없었나요? 당시 기록을 보면 1년 사이에 지원금이 확 줄었습니다. 역단위에서 천만원단위로 떨어졌어요. 그당시 행정적 공문은 내려왔는데 1년 사이에 사세가 크꾸라 졌습니다. 4. 정부지원금이 끊기던 당시 동료분들 중 몇 분 정도 퇴사를 하셨나요? 10명 이내의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퇴직금도 못 받고 퇴사하신 분들도 있고, 연봉 삭감하고 다니시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한번에 줄 수가 없어서 월별로 분납해서 드렸어요.		

그림 24 시민방송RTV 사전질문지 및 면담일지

2.3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

2.3.1 서울 기록레터

❒ 사업 내용

- 서울기록화 사업 과업으로 뉴스레터 ‘서울 기록레터’ 발간(총 2회)
- 온라인 뉴스레터로, 메일링 서비스를 활용해 배포

❒ 발간 목적

- 뉴스레터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 단체와 기관 등 서울시민의 자생적이며 역동적인 기록활동 사례와 현장을 친근하게 소개하고 공유함으로써 기록활동에 대한 관심 제고
- 접근성 높은 온라인 뉴스레터 형식의 소통 채널 구축으로 시민 및 이해관계자와 소통 강화
- 서울기록원의 S-NAP에 대한 시민의 이해 확대
- 다양한 기록활동과 시의성 있는 기록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해 서울기록생태계 저변을 확대하는 동시에 서울기록원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향상함으로써 사회적 편익 확보

❒ 발간 방향

- 서울기록화 사업과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수집 및 네트워크 담당자의 기획 회의로 모범적인 시민 기록활동 사례를 수집함
- 수집 사례 중 시민과의 친화성 높은 사례를 압축하고 인터뷰, 자료 조사 등을 통해 콘텐츠화함
- 뉴스레터에 시민의 기록활동과 함께 전시회, 이벤트 등 시의성 있는 기록 관련 소식과 정보를 소개해 서울기록원 및 서울시 홍보와도 연계함

❒ 서울 기록레터 사양

형식	온라인 뉴스레터
횟수	사업 기간 내 2회
배포대상	서울기록화 사업 수집 및 네트워크 활동 대상 관계자, 기록활동에 관심이 있는 시민사회 및 시민 등

표 23 서울 기록레터 사양

❒ 주요 콘텐츠

◦ 서울 기록레터 1호

꼭지명	내용
서울의 기록공동체	오늘공동체_한강팀
서울의 기록덕후	'늙은 간판 이야기' 양두환 사진기록가
서울기록원 네트워크 NEWS	네트워킹 기관의 소식 소개
지금 서울에서는	'서울 재발견: 서울 스토리 영상 공모전' 등 서울시의 이벤트, 전시회 등을 소개
Network List	서울기록원의 네트워크 목록

표 24 서울 기록레터 1호 콘텐츠

◦ 서울 기록레터 2호

꼭지명	내용
서울의 기록공동체	금천구 마을공동체기록관
서울의 기록덕후	'서울의 건축과 도시에 관한 콘텐츠 생산 크리에이터' 이윤석 건축기록활동가
서울기록원 네트워크 NEWS	네트워킹 기관의 소식 소개
지금 서울에서는	'2021 서울기록페어: 슬기로운 기록생활' 등 소개
Network List	서울기록원의 네트워크 목록

표 25 서울 기록레터 2호 콘텐츠



그림 25 서울 기록레터 1호(좌)와 서울 기록레터 2호(우)

2.3.2 네트워크 굿즈

- 네트워크 및 수집활동, 2021 서울기록페어 등 서울기록화 사업 전반의 답례 및 기념을 위해 기획함
-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기획함
  - 실용성 및 기능성: 실생활에서 실용적·기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굿즈
  - 휴대성 및 편의성: 휴대하기 용이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굿즈
  - 지속성: 소모품이 아닌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굿즈
  - 독창성: 일반적인 굿즈와 비교해서 독특한 굿즈
  - 로고와의 적합성: 미적인 측면에서 서울기록원의 로고와 어울리는 굿즈
  - 비용 대비 효용성: 비용 대비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은 굿즈
- 총 6건의 기획안을 거쳐 최종적으로 '메모 바인더'와 '볼펜'을 네트워크 굿즈로 선정하여 제작함(총 200개)
- 메모지와 함께 카드, 명함, 지폐, 볼펜 등을 수납할 수 있어 휴대성과 실용성이 높아 네트워크 굿즈로 적합함
- 수첩, 캘린더 등과 다르게 메모지를 다 소모하더라도 같은 규격의 메모지를 시중에서 쉽게 구매하여 교체할 수 있어 장기간 사용이 가능함
- 서울기록원 로고를 메모바인더 우측 하단과 볼펜에 인쇄함



그림 26 서울기록원 네트워크 굿즈 시안(좌) 및 실물(우)

2.3.3 네트워크 교육 프로그램

❒ 기록관리 교육 목적

- 서울기록 네트워크와의 면담에서 기록관리 전반에 대한 궁금증과 더불어 실질적인 기록관리 방안에 대한 교육 요청이 다수 확인함
- 이에 따라 서울기록 네트워크에 기록관리 전반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여 서울기록원과 네트워크 간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함
- 또한 서울의 기록문화 저변을 확대하여 서울의 기록생태계를 강화함

❒ 기록관리 교육 진행

- 2021년 11월 13일 10:00~12:00에 서울기록원 3층 교육실에서 진행함
  - 2021 서울기록페어의 일환으로 진행함
- 서울의 기록생태계 조성을 위해 서울기록 네트워크의 기록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고 기록문화를 넓히기 위해 전반적인 기록관리 지식을 전달함
  - 기록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기록의 목적과 정의를 파악하고 참여자의 관점에서 기록을 정의함




그림 27 기록관리 교육



그림 28 기록관리 교육 강의자료

❒ 기록관리 교육 만족도 조사

◦ 주요 항목 설문 결과

No.	좋았던 점	아쉬운 점
1	단순히 '모으다'에 초점을 두고 있었는데 목적, 분류, 활용 등을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주제로 심화 교육이 있으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2	무엇을 어디까지 기록할지 라디오헤드의 유명한 노래를 가지고 비유한 것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연말에 교육을 들었는데 연초에 교육을 들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3	기록을 보는 관점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실제 업무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실무적인 교육이 추가되었으면 합니다.
4	질문에 대한 실무적 고민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사전에 자료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5	내년에도 교육이 있다면 듣고 싶고 기회가 닿는 데로 강의를 듣고 싶습니다.	교육의 횟수가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표 26 기록관리 교육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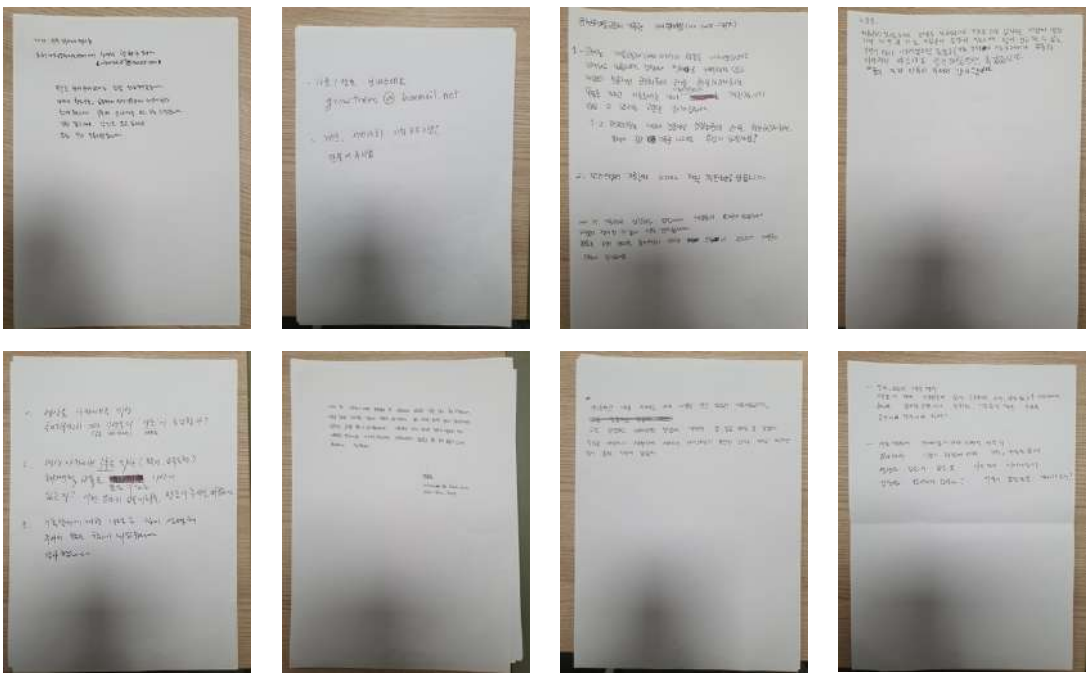


그림 29 기록관리 교육 만족도 설문지

2.4 네트워크 3개년 상시 운영방안

2.4.1 2019년-2021년 네트워크 운영 결과분석

❒ 2019년-2021년 네트워크 면담 요구사항

요구사항	횟수
단발적인 네트워크가 아닌 지속적인 네트워크 운영	29
기록관리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여 기록을 찾고 열람하는데 어려움이 존재, 기록관리의 교육을 듣고 싶음	22
담당 인력이 없어 기록을 관리하고 있지 않거나 아카이브는 보유 중이지만, 기록관리 매뉴얼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컨설팅을 받고 싶음	22
서울기록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을 전시에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하며,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대여하고 싶음	16
업무분장과 자료분류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 자료 정리 가이드 및 네이밍 규칙에 관한 기록관리 교육을 받고 싶음	5
서울기록원에서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궁금함	3
서울기록원에 기록관리에 관한 주제로 직접 문의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있었으면 함	2

표 27 2019-2021년 네트워크 면담 요구사항

❒ 지난 3년간의 네트워크 운영의 요구사항 분석

- ∘ 3년간 네트워크의 운영과정에서 공통으로 제기되는 요구사항의 원인과 개선점은 다음과 같이 파악됨
  - 현재의 네트워크 프로그램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의 경우, 기록관리에 대한 기초교육으로 국한되고 내용상으로도 단편적인 것이 원인으로 파악됨
  - 네트워크 운영 성과에 있어 신규 네트워크 주체 발굴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기존에 구축한 네트워크와 서울기록원과 사이의 지속적인 소통 창구가 부재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됨
  - 사업이 5~6월에 시작하여 구체적인 네트워크 운영은 7~8월부터 시작되므로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연중 하반기에 집중되어 상반기에 공백 상태가 발생하는 것이 원인으로 파악됨

2.4.2 네트워크 운영 발전을 위한 과제와 개선 방향

❒ 네트워크 주체의 요구사항 분석을 통한 개선과제 도출

- 네트워크 프로그램 개선을 위하여 기초적인 기록관리 이후,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실무적인 프로그램이 요구됨
- 네트워크 관계의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에 구축된 네트워크 주체와의 협력체계 심화에도 방점을 맞추어야 하며, 네트워크 대상의 기록화 의지와 역량 성숙도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구성 개편할 필요가 있음
- 네트워크 운영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공백없이 연중 지속될 수 있는 네트워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개선방향 사전실행 절차

- 네트워크 프로그램 개선은 내용(콘텐츠)적 측면, 관계 지속성 강화는 소통적 측면, 운영 연속성은 운영적 측면으로 파악됨
-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표 28과 같이 개선방향 사전실행 절차를 제시함

<table>
<tr><th>절차</th><th>내용</th></tr>
<tr><td>(STEP 1)
개별 네트워크 주체들에 대한 분류 및 그룹화</td><td>- 분류기준
· 서울기록화라는 주제 부합성
· 현행 기록관리의 수준
· 기록관리에 대한 의지
- 분류(안)
<table><tr><td>A 그룹</td><td>기록관리 기반 구축 단계</td></tr><tr><td>B 그룹</td><td>기록관리 활성화 및 성과 활용단계</td></tr><tr><td>C 그룹</td><td>기록관리 고도화 단계</td></tr></table></td></tr>
<tr><td>(STEP 2)
그룹별 지원 프로그램 개발</td><td>- 교육 및 컨설팅
- 공간지원
- 소통 플랫폼 제시</td></tr>
<tr><td>(STEP 3)
네트워크 주체와 프로그램 매칭</td><td>- 분류된 네트워크 그룹별로 프로그램을 매칭</td></tr>
</table>

표 28 개선방향 사전실행 절차

2.4.3 실행 방안

2.4.3.1 네트워크 프로그램 개선

❒ 교육 및 컨설팅

○ 목표

- 네트워크 주체의 기록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서울기록원과 네트워크 주체 사이의 직접적인 대면 또는 비대면 의사소통을 강화하고자 함

○ 실행 계획

단계	대상	내용
기록관리 기반 구축	A그룹	- 기록관리 마인드 인식 - 업무분석과 기록관리체계 연계 - 서울기록원 견학
기록관리 활성화 및 성과 활용	B그룹	- 기록관리체계 본격화 및 활용 방안 · 워크숍 등을 통한 기록관리체계에 대한 조직적 합의 · 전시 기획 등
기록관리 고도화	C그룹	- 기록관리과정에서 발생한 특정한 문제점에 대한 컨설팅과 솔루션 제공 - 기록관리와 관련된 특정 프로젝트 진행

표 29 실행 계획

2.4.3.2 네트워크 관계 지속성 강화

❒ 뉴스레터 발행 및 배포

○ 목표

- 서울기록원의 네트워크 운영 성과를 전파하고자 함
- 서울기록 네트워크 간의 정보 교환의 장으로 기능하고자 함

○ 실행 계획

- 분기별 1회 발행

○ 주요 내용

- “서울기록원 네트워크 NEWS”: 서울기록원 네트워크 활동 소식
- “서울의 기록공동체”: 특정 네트워크 주체에 대한 특집
- “서울의 기록덕후”: 서울을 기록하는 개인의 기록활동 주제와 활동 내용을 작성
- “지금 서울에서는”: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시, 행사, 공모전 등을 소개하고 네트워크 대상들에게 홍보
- 네트워크 프로그램 소개 및 네트워크 편람

❒ 서울기록페어

∘ 목표

- 연중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서울기록화의 주체들이 모두 모여 서울기록화라는 주제 아래에 다양한 담론 교환과 소통의 장으로 기능하고자 함
- 서울기록원이 자연스럽게 서울 기록활동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함

∘ 실행 방안

- 2020년과 2021년에 진행된 서울기록페어의 목적과 방향성을 계승하고 당해 서울기록화 사업의 수집주제와 연계하여 행사를 기획함
- 오프라인은 대면을 통한 직접적인 라포 형성의 기회로서 네트워크 주체들이 1년에 한 번 모이는 일종의 '홈커밍 파티'로 방향성을 잡고 시상식, 명사 강연, 네트워킹을 통해 변화된 서울기록 네트워크의 모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함
- 온라인은 전국을 대상으로 진행함
- 서울기록화 사업 초기에 수집주제와 네트워크 발굴을 연계하여 서울기록페어의 주제와 참여 대상을 조기 설정함
- 교육의 성과를 서울기록페어 참여로 유도하는 방안 고려함

❒ SCAAF의 네트워킹 플랫폼화

∘ 목표

- 현재 구축된 서울기록페어 홈페이지(http://SCAAF.kr)의 기능을 확장하여 서울기록원과 네트워크 주체의 상시 소통의 창구로 활용하고자 함

∘ 실행 방안

- SCAAF의 기능의 확대 개편

∘ 개편 내용

- 네트워크 프로그램 신청
- 서울기록원 뉴스레터의 B컷, 인터뷰 등 인터랙티브 컨텐츠 게재

2.4.3.3 네트워크 운영 연속성 확보

❒ 서울기록화 사업의 방향 개선안

∘ [1안] 현행 형태 유지

- 현재의 서울기록화 사업의 진행방식을 유지하되, 상반기의 운영 공백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의 조기 발주함
- 2~3월에 발주 및 계약을 완료하여 4월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일정 진행

∘ [2안] 네트워크 운영 별도 사업화

- 서울기록화 사업의 네트워크 운영 과업을 별도 사업으로 분리하고 사업 기간

을 2년 이상의 연속적인 사업으로 진행함

∘ [3안] 네트워크 운영의 교육 및 컨설팅 부분의 협업 진행

- 상반기에 비영리 학술연구기관에 기록관리 교육 및 컨설팅을 위탁함
- 교육 대상과 내용은 전해 연도에 네트워크 대상으로 선정된 주체로 하여 기록관리 모니터링 및 지원을 수행함

2.4.4 네트워크 3개년 실행 계획 및 로드맵

2.4.4.1 네트워크 3개년 로드맵

	2022년		2023년	2024년
	상반기	하반기		
서울기록화 사업 방향 설정	방향 설정 및 진행계획 수립	사업 진행	연중 사업 진행	연중 사업 진행
네트워크 그룹 및 프로그램 기획	그룹 분류, 그룹별 프로그램 기획, 그룹-프로그램 매핑			
교육 및 컨설팅		그룹별 교육 및 컨설팅 진행	연중 교육 및 컨설팅 진행	프로젝트 형식의 워크숍 교육 진행
네트워킹 플랫폼 구축	SCAFF 개편계획	SCAFF 기능구축	SCAFF 공개	SCAFF 고도화
뉴스레터	포맷 및 기획	발행	연중 발행	연중 발행
서울 기록페어		교육프로그램과 서울기록페어 연계	네트워크 주체 사전참여 실험	네트워크 주체의 본격 참여

표 30 네트워크 3개년 로드맵

2.4.4.2 연도별 실행 계획

❒ 2022년

- ∘ 핵심 목표
  - 네트워크 대상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확보하고자 함
- ∘ 실행 계획
  - 네트워크 주체의 그룹화와 그룹별 지원 프로그램 기획
  - 서울기록화 사업의 방향 설정
  - 뉴스레터 정기 발행
    - 상반기 컨텐츠 기획 이후 하반기부터 정기 발행함
  - SCAAF의 재개편을 통한 네트워킹 플랫폼화
    - 상반기 SCAAF 개편 방향 설정 및 기능 설계 시작
    - 하반기 SCAAF 구축
  - 교육 및 컨설팅
    - 상반기 교육프로그램 개발
    - 하반기 그룹별 교육 실시
  - 서울기록페어
    - 교육프로그램과 서울기록페어에 참여 연계
    - 오프라인 방문을 유도하기 위하여 11월 중순에 행사 진행

❒ 2023년

- ∘ 목표
  - 네트워크 운영 프로그램을 안정화하고자 함
    - 2022년에 설정된 서울기록화 사업 방향의 적용과 안정화
    - 네트워크 대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와 네트워크의 자생적 커뮤니티화
- ∘ 실행 계획
  - SCAAF 공개
    - 1월 개편된 SCAAF의 공개 및 운영
  - 뉴스레터 발행
    - 연 4회 정기 발행체계 구축
  - 교육 및 컨설팅
    - 연중 교육 및 컨설팅 체계 구축
    - 공동 프로젝트 형식의 워크숍 시범 실행
  - 서울기록페어
    - 페어의 기획과 진행에 네트워크 주체의 사전참여 실험

❒ 2024년

- ∘ 목표
  - 서울기록 네트워크 생태계의 구축

· 네트워크 운영프로그램의 성과 확산을 신규 네트워크 프로그램 도입 및 고도화

ㅇ 실행 계획

- SCAAF의 고도화

· 네트워크 대상들의 소규모 커뮤니티 조직 활성 지원

· 네트워크 운영 프로그램 상시 운영 지원

- 기록관리 교육 및 컨설팅

· 기초교육 이후의 교육 프로그램은 공동 프로젝트 형식의 워크숍으로 진행

· 프로젝트의 절차의 체계화와 성과 활용 방안 모색

- 서울기록페어

· 네트워크 주체의 페어 기획과 운영의 본격적인 참여

· 메타버스를 통한 온·오프라인 영역의 경계 허물기 실험

3. 2021 서울기록페어

3.1 2021 서울기록페어 목적

- 서울기록화의 과정을 서울기록 네트워크가 서울기록페어를 통해 경험함으로써 서울기록원이 지향하는 서울기록과 시민의 기억이 만나는 접점으로 기능함
  - 2020 서울기록페어의 목적과 지향은 네트워크 운영의 결과를 서울기록페어에 발현하여 시민 아키비스트를 양성하고 기록문화 저변을 확장하는 것임
  - 2021 서울기록페어는 2020 서울기록페어의 목적과 지향을 계승 및 발전시킴

3.2 2021 서울기록페어 기획

❒ 2021 서울기록페어 프로그램 기획

- 2020 서울기록페어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되었으나 2021 서울기록페어는 온·오프라인에서 병행 진행함
  - 오프라인은 기존 및 신규 네트워크 단체 등 서울기록원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개인과 단체를 참가시켜 지속적인 네트워크 운영 및 관계 강화를 도모함
  - 온라인은 ZOOM 클라이언트를 활용하여 누구나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 서울기록화의 과정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기록 네트워크를 폭넓게 확장함
  - 2020 서울기록페어는 세션마다 별도의 ZOOM 플랫폼을 찾아가도록 구성되어 프로그램 종료와 동시에 이탈자가 다수 발생하였기에 2021 서울기록페어는 단일 플랫폼에서 연속적이고 집중화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사용자 이탈을 최소화함

❒ 2021 서울기록페어 오프라인 행사기획

- 오프라인 행사는 서울기록원 2층 특별전시실과 3층 교육실에서 진행함
  - 서울기록원 2층 특별전시실에 오프라인 공간을 구성하고 특별전시실이 만석이 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3층 교육실에서 이원 생중계를 진행함
  - 쇼케이스 전시 공간은 오프라인 참여자들의 기록 또는 활동을 홍보하는 홍보부스로 활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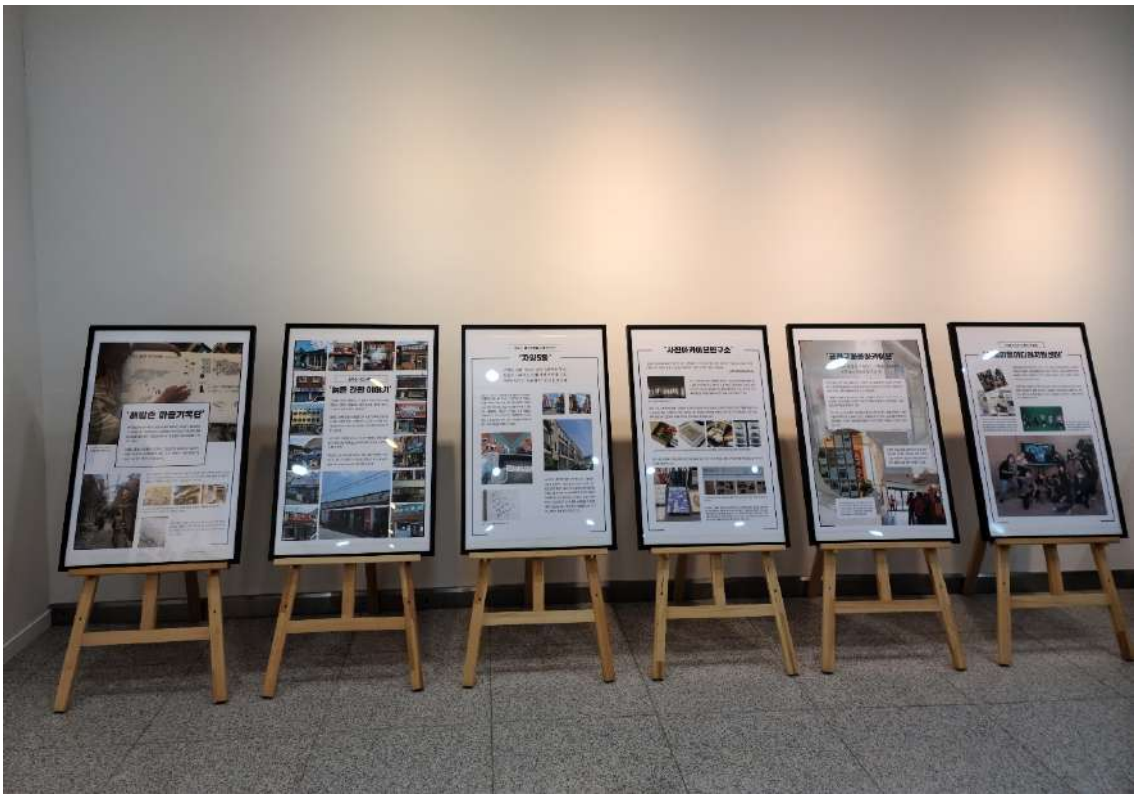


그림 30 2021 서울기록페어 서울기록 네트워크 소개전시



그림 31 2021 서울기록페어 2층 특별전시실 행사장

❒ 2021 서울기록페어 온라인 행사기획

- 2020 서울기록페어를 위해 구축한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2021 서울기록페어의 온라인 홈페이지로 활용함
- 온라인 홈페이지(https://www.scaff.kr)를 개설하여 2021 서울기록페어를 홍보하고 온라인 중계 플랫폼으로 활용함
- 서울기록페어의 홍보 및 중계와 더불어 서울기록화 사업을 소개하고 서울기록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메뉴명	내용
메인 화면(서울기록화 사업)	서울기록화 사업 소개 및 서울기록페어 홍보
서울기록 네트워크	네트워크 단체들의 위치 및 정보 출력
서울기록친구들 이야기	서울기록원, 네트워크 단체들의 자료 제공

표 31 SCAAF 메뉴 구성



그림 32 2021 서울기록페어 메인 화면



그림 33 2021 서울기록페어 서울기록 네트워크 화면



그림 34 2021 서울기록페어 홍보 배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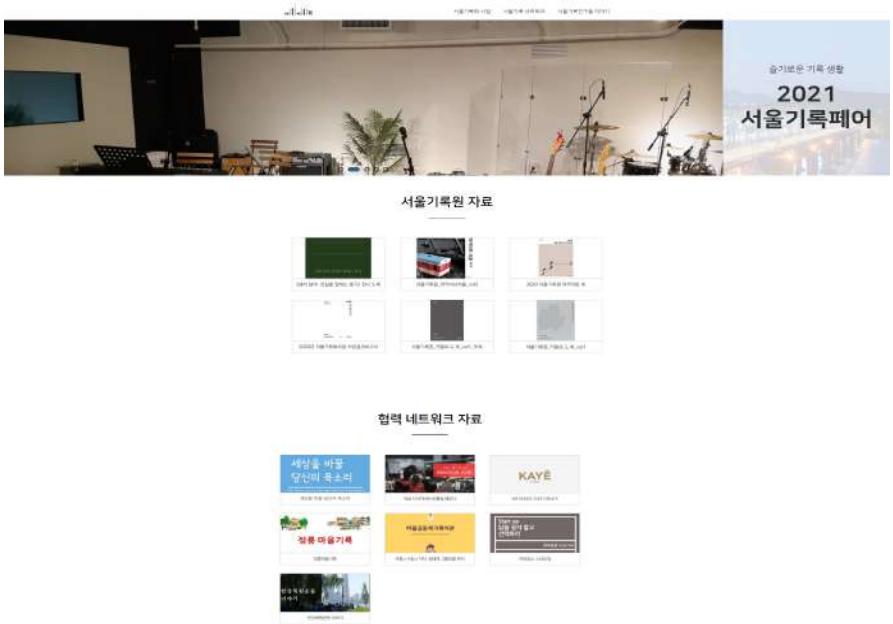


그림 35 2021 서울기록페어 서울기록친구들 이야기 화면

❐ 2021 서울기록페어 홍보

∘ 2021 서울기록페어의 홍보를 위해 다양한 매체와 채널을 활용해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

- 가을과 도시를 주제로 홍보물을 제작하고 서울기록 네트워크에 온라인 뉴스레터 발송, 보도자료 작성을 통한 대언론 홍보 등을 진행함

홍보방안	내용
포스터	- 서울혁신파크 등 공공기관과 관계기관에 부착하여 홍보 전개 - 언론 보도자료, 서울기록원 홈페이지 등 온라인상에서도 홍보 전개
현수막	- 서울기록원 입구 게시
뉴스레터	- 11월 4일 발행된 서울 기록레터를 통해 2021 서울기록페어 홍보 · 별도의 협조 요청 없이 서울기록페어 핵심 참여자(서울기록 네트워크)에 직접 홍보할 수 있는 수단
홈페이지 배너	- 서울기록원 홈페이지에 배너를 삽입하여 홍보 전개 · 서울기록원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를 목표로 홍보를 전개할 수 있는 수단
SNS 홍보	- 서울기록원 SNS 채널을 통한 홍보 진행 · 포스터 이미지를 통해 서울기록원 페이스북, 유튜브 채널, 인스타그램을 통한 홍보 진행 - 관계기관에 SNS 홍보 요청 - 서울시, 각 자치구청, 서울문화재단, 서울 시내 박물관 등 관련 기관 SNS 채널에 홍보 요청 - 기록대학원, 관련 교육기관 및 단체 카카오톡에 홍보
보도자료	- 복수의 언론사에 2021 서울기록페어 보도자료 배포

표 32 세부 홍보 실행 계획



그림 36 2021 서울기록페어 홍보 포스터

3.3 2021 서울기록페어 진행

❒ 2021 서울기록페어 진행 순서

항목	내용	
일시	2021년 11월 12일(금) 13:00~16:40	
	2021년 11월 13일(토) 10:00~17:30	
장소	오프라인	서울기록원 2층 특별전시실 및 3층 교육실
	온라인	https://www.SCAAF.kr (SCAAF: Seoul Citizen Archives and Archivist Fair)

표 33 서울기록페어 일정 및 장소

- ◦ 오프라인은 서울기록원 2층 특별전시실과 3층 교육실에서 진행함
- ◦ 온라인은 서울기록페어 웹 페이지를 통해 ZOOM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호출하고 개설된 온라인 회의 공간에 접속하여 참여함

2021 서울기록페어 1일 차 프로그램 시간표(2021.11.12.)			
시간	프로그램	내용	진행
13:00 - 13:10	개회식	서울기록원 및 1일 차 프로그램 소개	온·오프라인 병행
13:10 - 14:10	기록 강연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김신지 작가	기록 강연	온·오프라인 병행
14:20 - 14:40	다큐멘터리 아카이빙 상영 〈성벽 밖 첫 번째 마을 창신동〉	다큐멘터리 상영	온·오프라인 병행 (녹화영상)
15:00 - 15:40	네트워크 세션 은평상상	기록활동 사례발표	온·오프라인 병행
15:50 - 16:30	네트워크 세션 시민방송RTV	기록활동 사례발표	온·오프라인 병행
16:30 - 16:40	폐회식	1일 차 폐회식 및 2일 차 프로그램 소개	온·오프라인 병행

표 34 2021 서울기록페어 1일 차 프로그램 시간표

2021 서울기록페어 2일 차 프로그램 시간표(2021.11.13.)			
시간	프로그램	내용	진행
10:00 - 12:00	기록관리 교육 기록관리 A to Z	기록관리 교육	오프라인 진행
13:00 - 14:00	기록 강연 〈걸어서 기록한 서울〉 김시덕 작가	기록 강연	온·오프라인 병행
14:10 - 14:30	다큐멘터리 아카이빙 상영 〈오늘공동체_우린 다르게 살기로 했다〉	다큐멘터리 상영	온·오프라인 병행 (녹화영상)
14:40 - 15:20	기록활동 사례발표 3 오늘공동체	기록활동 사례발표	온·오프라인 병행
15:30 - 16:30	기록활동 사례발표 4 권순원 활동가	기록활동 사례발표	온·오프라인 병행
16:30 - 16:40	폐회식	2일 차 폐회식	온·오프라인 병행
16:40 - 17:30	서울기록원 시설 견학	서울기록원 견학	오프라인 진행

표 35 2021 서울기록페어 2일 차 프로그램 시간표

❒ 2021 서울기록페어 진행 내용

- 개회식에서 서울기록원 및 서울기록화 사업에 대한 소개를 진행함
- 2019년과 2020년 서울기록화 사업의 수집활동 산출물인 다큐멘터리 2편을 상영함



그림 37 〈성벽 밖 첫 번째 마을〉(좌)과 〈우린 다르게 살기로 했다. 오늘공동체〉(우)

∘ 네트워크 세션은 1일 차 은평상상, 시민방송RTV, 오늘공동체, 브루어스(권순원 활동가)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함

- 각 세션 발표자에 대한 소개와 이들의 기록활동을 발표하여 서울기록 네트워크와 기록인, 서울시민에게 그들의 기록활동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공유함으로써 서울의 기록문화 저변을 확대하고 상호의 기록관리 역량을 증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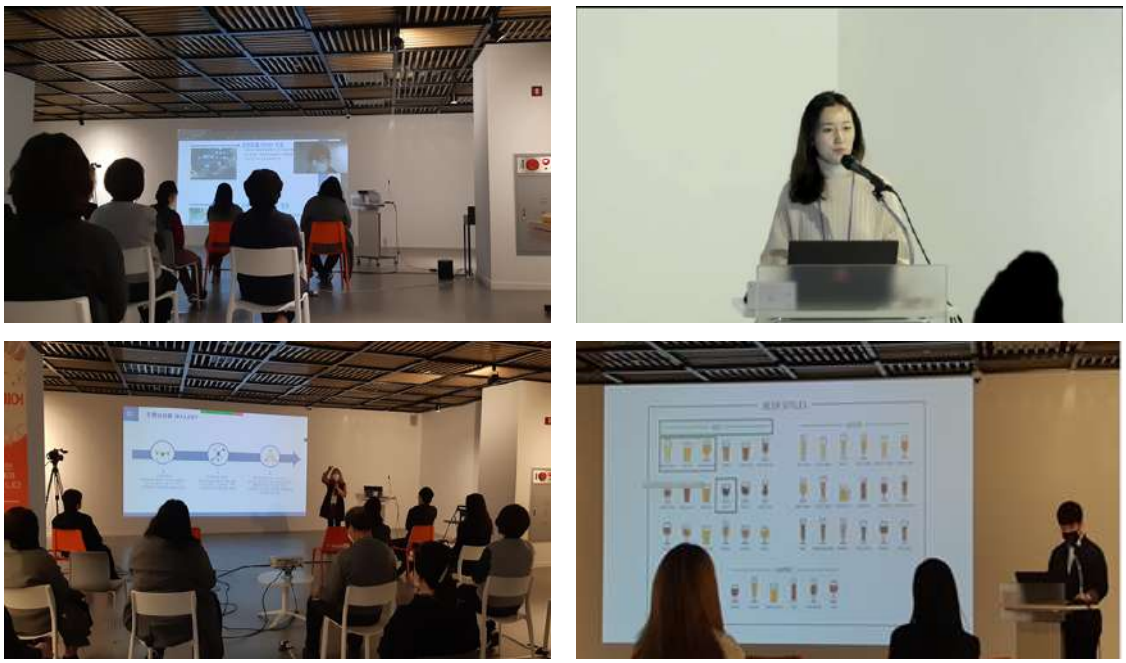


그림 38 2021 서울기록페어 네트워크 세션 발표

∘ 2개의 기록강연 세션을 통해 기록의 가치를 확인하고 서울을 조망함

- 김신지 작가의 〈일상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는 법〉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영감노트'의 형식을 빌려 강연을 진행함
- 김시덕 작가의 〈걸어서 기록한 서울〉을 통해 서울이라는 공간을 걸으며 하나의 주제에 대한 기록의 의미를 이해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일상을 기록하는 것에 대한 강연을 진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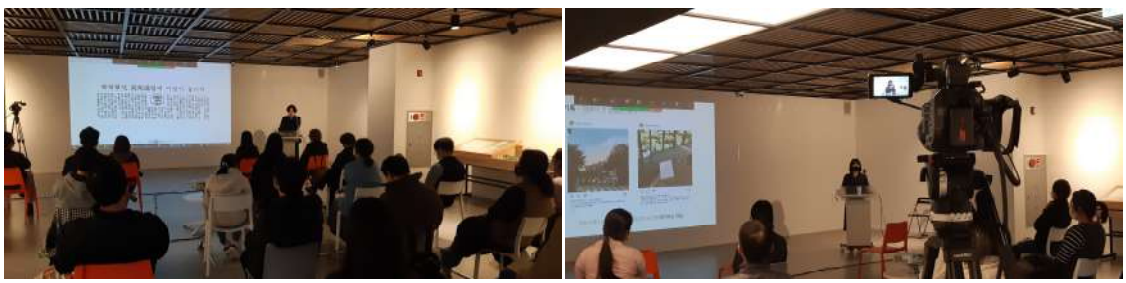


그림 39 2021 서울기록페어 기록강연

3.4 2021 서울기록페어 결과

❒ 2021 서울기록페어 참여 현황

- 오프라인은 1일 차 144명, 2일 차 195명, 총 339명이 참여함
- 온라인은 1일 차 201명(관리자 제외 198명), 2일 차 392명(관리자 제외 383명), 총 593명(관리자 제외 581명)이 참여함
- ZOOM의 '참가자 이벤트 서비스'를 통해 이화여자대학교, 울산대학교, 울산지방검찰청, 구미시 원평동 도시재생지원센터, 충청북도 진천군, 제주도, 미국 등의 다양한 지역에서의 참여를 확인함



회의 ID	주제	호스트	시작 시간	종료 시간	기간(hh:mm:ss)	참가자	전화	VoIP	비디오	화면 공유
236 280 0910	선식 김's Personal Meeting Room	선식 김	2021년 11월 13일 11:34 오전	04:12 오후	04:37:57	103	-			
236 280 0910	선식 김's Personal Meeting Room	선식 김	2021년 11월 13일 10:34 오전	11:21 오전	47:32	4	-		-	-
236 280 0910	선식 김's Personal Meeting Room	선식 김	2021년 11월 13일 09:03 오전	10:27 오전	01:24:08	12	-		-	-
236 280 0910	선식 김's Personal Meeting Room	선식 김	2021년 11월 12일 10:38 오전	04:19 오후	05:41:15	72	-			
236 280 0910	선식 김's Personal Meeting Room	선식 김	2021년 11월 12일 08:33 오전	08:34 오전	01:08	2	-		-	-

그림 40 2021 서울기록페어 온라인 참가자 현황

4. 서울 아카이빙 북

❒ 기획 의도

- ∘ 〈2021 서울 아카이빙 북〉은 메가도시 서울이라는 시공간에서 펼쳐지는 일상의 다양한 기록활동, 시의성 있는 기록과 기록인을 발굴해 소개함으로써 서울의 건강한 '기록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함
- ∘ 시민의 다양하고 자발적인 기록활동을 소개함으로써 이를 지지·지원하는 서울기록원의 소통 및 동행 의지를 자연스럽게 전달하고자 함
- ∘ 서울기록화 사업의 주요 과업인 S-NAP 기반의 수집 및 네트워크 활동 수행 과정에서 만나는 개인, 단체와 기관의 자발적인 기록활동과 함께 의미 있는 기록 현상, 사회적 관계 등의 가치를 담고 있는 기록, 기록을 매개로 한 사회적 활동 등의 콘텐츠를 기획함으로써 기록 분야의 내·외연을 확장하고자 함
- ∘ 서울의 기록활동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과정에서 2021 서울 아카이빙 북이 직·간접적인 소통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2021 서울 아카이빙 북 제작 사양

항목	제작 사양
제목	2021 서울 아키이빙 북 〈서울은 시간을 기억합니다〉
판형	변형 206*260, 컬러, 90페이지 내외
표지	(종이) 몽블랑 210g (디자인) 타공, 무광 라미네이팅 코팅, 후가공-에폭시
내지	미색모조 100g
제본	무선제본
제작부수	500부

표 36 2021 서울 아카이빙 북 제작 사양

❒ 표지 및 내지 디자인

- ∘ 2021 서울 아카이빙 북 표지는 향후 아카이빙 북이 시민의 기록활동을 활발하게 공유하는 매거진을 지향하고 있음을 일관되고 통일성 있는 디자인을 통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매해 다른 색상의 표지를 적용하여 통일감을 주면서도 차별화를 기함
  - 표지 중앙부 타공을 통해 집중을 유도함
  - 타공 부분과 내지 디자인을 연결하여 아카이브 콘텐츠를 담고 있음을 표현함
- ∘ 2021 서울 아카이빙 북 내지는 2020년도 아카이빙 북의 디자인을 준용하되 각 콘텐츠의 성격에 맞도록 변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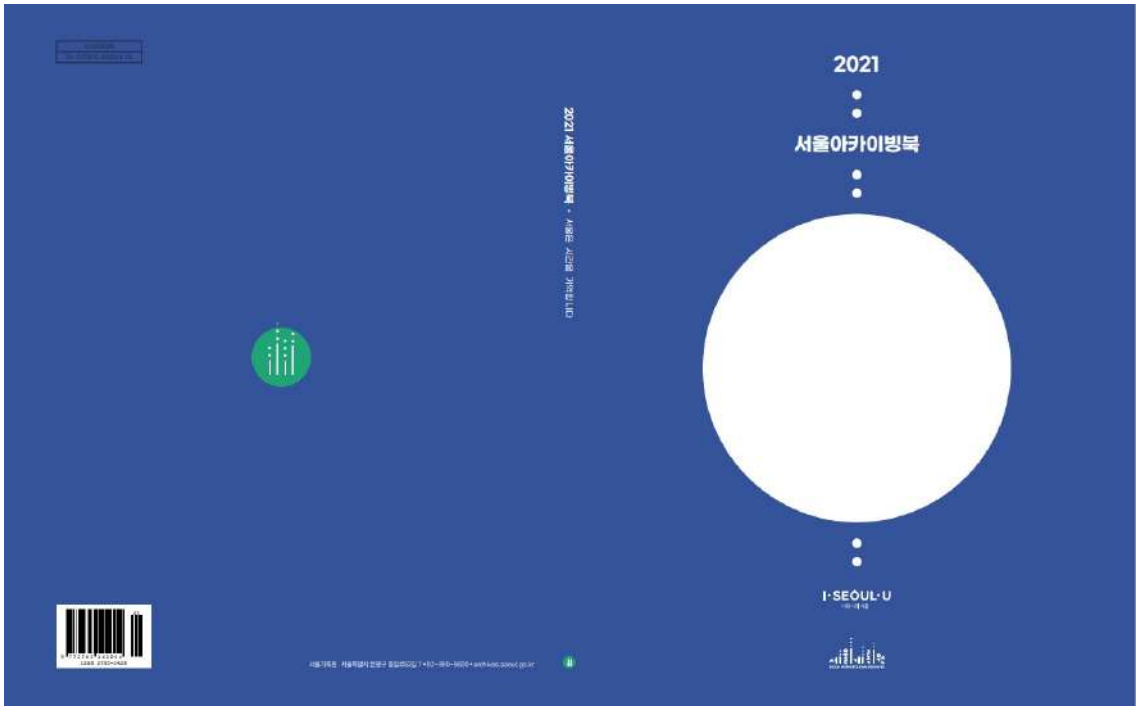


그림 41 2021 서울 아카이빙 북 표지

❒ 2021 서울 아카이빙 북 콘텐츠 개요

part 1_ *시민, 기록하다* 서울 전역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시민기록활동 이야기	
서울의 기록인	· 사라져가는 서울의 목욕탕을 비롯해 일몰을 앞둔 서울의 공원 등을 사진으로 기록한 이재영·박현성 씨 · 조선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과거를 담고 있는 사진을 복원해 영상으로 공개하는 유튜버 '복원왕' ·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공간과 구민들의 삶을 담은 디지털 아카이브 '동대문구 기억여행' 구축해 운영하는 최윤하 기록연구사 · 인왕산부터 서촌의 풍경을 그리는 옥상화가 김미경씨 · 장애인 예술치료과정 워크숍 기록한 채집만화·미술가 전지 작가 · 위안부 피해 할머니, 노동자 등의 구술증언기록 등 역사와 증언, 문학을 연결하며 '증언소설' 분야 탐색하고 있는 김숨 작가

FEATURE1_ 시간을 기록하는 청년들	· 광진구 자양동의 변화 기록하는 '자양5동' · 동대문구 이문동 대학촌 일대 재개발 현장과 주민의 삶 기록하는 '이문모아'
나의 기록 이야기	· 아버지가 남긴 스크랩북 36권을 다시 엮어 〈대한국민현대사〉 펴낸 고경태 기자의 기록화 과정 이야기
part 2_ *기록, 넓어지다* 서울기록화 사업 수집활동 및 네트워크 활동 연계 콘텐츠, 서울기록페어 소개 등	
FEATURE2_ 마을과 기록	· 지금은 마을기록시대!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온 마을공동체활동 과정에서 기록에 대한 문제의식이 어떻게 생겨났고, 나아가 기록활동이 건강한 마을 만들기에 어떤 기여를 해왔는지 등을 전하는 금천구 마을기록활동가들과의 집단 인터뷰 · 이성민 감독이 전하는 '사라지는 마을을 기억하는 자세'
서울기록페어 소식	2021 서울기록페어 주요 내용 소개
part 3_ *서울, 기록으로 즐기다* 기록 분야에서 포착되는 의미 있는 경향과 기록 현상을 담은 콘텐츠 직업, 비즈니스 등 기록 영역을 확장하는 콘텐츠	
기록과 일	VR기록 분야 개척하는 파노시스 문현성 대표
기록과 비즈니스	역사와 기록으로 게임 개발하는 코스닷츠 김회민, 정재령 대표
디지털로 만나는 세상	동물권 보호 '카라아카이브'와 성곽 아래 마을주민의 삶 수집한 '한성대 성곽마을아카이브'
기록테크	기록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소개
기록과 책	호빵 아카이브인 〈호빵책〉과 비누의 역사 등 소개하는 〈툴즈〉
트렌드 인터뷰	2022년 주요 키워드 중 하나로 '기록'을 선정한 생활변화관측소 박현영 소장이 말하는 '기록 현상'
기타	· 아카이브 뉴스 · 화보-시민과 서울 한강

표 37 2021 서울 아카이빙 북 콘텐츠 개요

❒ 추진 과정

- ∘ 총 1~8단계로 추진됨
  - 1단계(콘텐츠 추출 및 1차 기획안 초안 작성)는 다양한 미디어 채널과 기록 관련 출판물 등에 대한 스크린 및 조사 후 콘텐츠를 추출하고 1차 기획안을 준비함
  - 2단계(기획위원회 회의 및 1차 기획안 보완)는 3인의 기록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위원회 회의를 통해 1차 기획안을 보완함
  - 3단계(서울기록화 사업 회의 및 확정)는 서울기록화 사업의 착수보고, 중간보고 및 사업담당자와의 회의를 통해 기획안을 확정함
  - 4단계(필자 섭외 및 인터뷰)는 콘텐츠가 될 필자를 섭외하고 인터뷰를 진행하여 콘텐츠의 원재료를 확보함
  - 5단계(콘텐츠 및 디자인 에디팅)는 확보한 콘텐츠 원재료를 산출물로 편집하고 디자인을 통해 내용상의 품질을 확보함
  - 6단계(교정·교열 및 최종검수)는 교정·교열 및 최종검수를 통해 콘텐츠의 형식상의 품질을 확보함
  - 7단계(감리 및 인쇄)를 통해 산출물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고 납품을 위해 인쇄 작업을 진행함
  - 8단계(납품)를 통해 서울기록원에 완성된 산출물을 납품함

❒ 성과 및 제안사항

- ∘ 서울이라는 시공간에서 다채롭고 매력적인 주제와 방식으로 펼쳐지고 있는 시민의 일상 기록활동을 발굴해 다양한 형식으로 소개함
- ∘ 직업, 비즈니스 등 외연을 확장한 기록 콘텐츠를 소개함으로써 기록활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
- ∘ 서울 아카이빙 북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차별화된 표지 디자인을 채택함
- ∘ 기획위원회 등 기록전문가 그룹과 소통으로 콘텐츠 분야를 확장함
- ∘ 향후 수집주제 및 네트워크 활동과 연계한 서울 아카이빙 북 콘텐츠를 조기에 발굴 및 기획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서울기록화 사업의 성과를 담아내고 공유하는 채널로 서울 아카이빙 북을 통해 활용할 것을 제안함

5. 수집기록 콘텐츠

5.1 수집기록 콘텐츠 개요

❒ 수집기록 콘텐츠의 정의

- ‘수집기록 콘텐츠’는 서울기록화 사업의 과정에서 수집한 기록을 시민에게 친근하고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자 만든 콘텐츠를 의미함
- 수집기록 콘텐츠는 도서, 전시, 영상, 공연, 교육 등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를 활용하여 수집기록의 서사를 시민에게 전달하는 가교의 역할을 함
-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자연스럽고 친숙하게 다가감으로써 서울의 기록문화 저변을 넓히고자 함

❒ 서울의 기록과 기억지도

- 서울기록원 2층 ‘시민과의 만남 장소’에 ‘서울의 기록과 기억지도’를 최신화하여 서울기록원의 네트워크 단체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서울을 기록하는 사람들

- 서울기록원 전시실 입구에서 서울의 기록활동가들을 소개하는 ‘서울을 기록하는 사람들’ 코너를 제작함
  - ‘오늘공동체_한강팀’을 서울기록원 제1전시실의 “한강, 서울_기억이 흐르다”와 연속성을 가지면서 효과적으로 소개함
  - ‘늙은 간판 이야기’ 양두환 사진기록활동가의 디자인 시안을 완료함

5.2 서울의 기록과 기억지도

❒ 서울의 기록과 기억지도

- 서울에서 활동하는 기록활동 개인·단체 등 네트워크를 소개하는 서울의 “또 하나의 지도”로 기획·제작됨
- 현재 16개의 기록활동 네트워크를 소개함
- 서울의 기록과 기억지도 위에 각 기록활동 네트워크의 현재 위치를 마커를 부착해서 표시하고, 별도의 네트워크 명판을 제작해 벽면에 부착함
  - 네트워크 명판은 사진과 면담 과정에서 구술한 이야기를 담음
- 서울의 기록과 기억지도에 소개된 기록활동 네트워크 중 6개 네트워크를 2021 서울기록페어에서 배너 형태의 작은 전시로 선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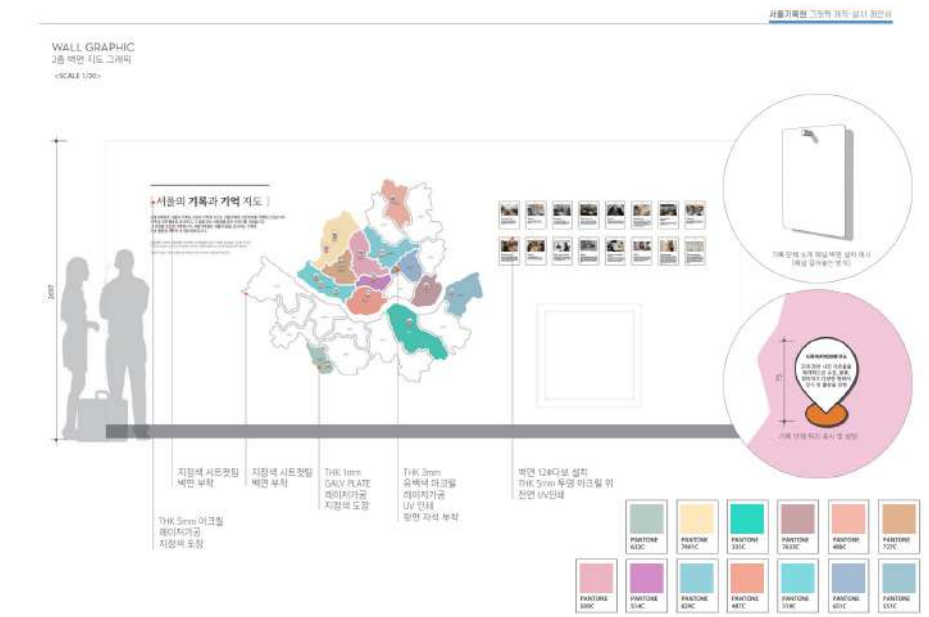


그림 42 서울의 기록과 기억지도 디자인 시안



그림 43 서울의 기록과 기억지도 설치 현장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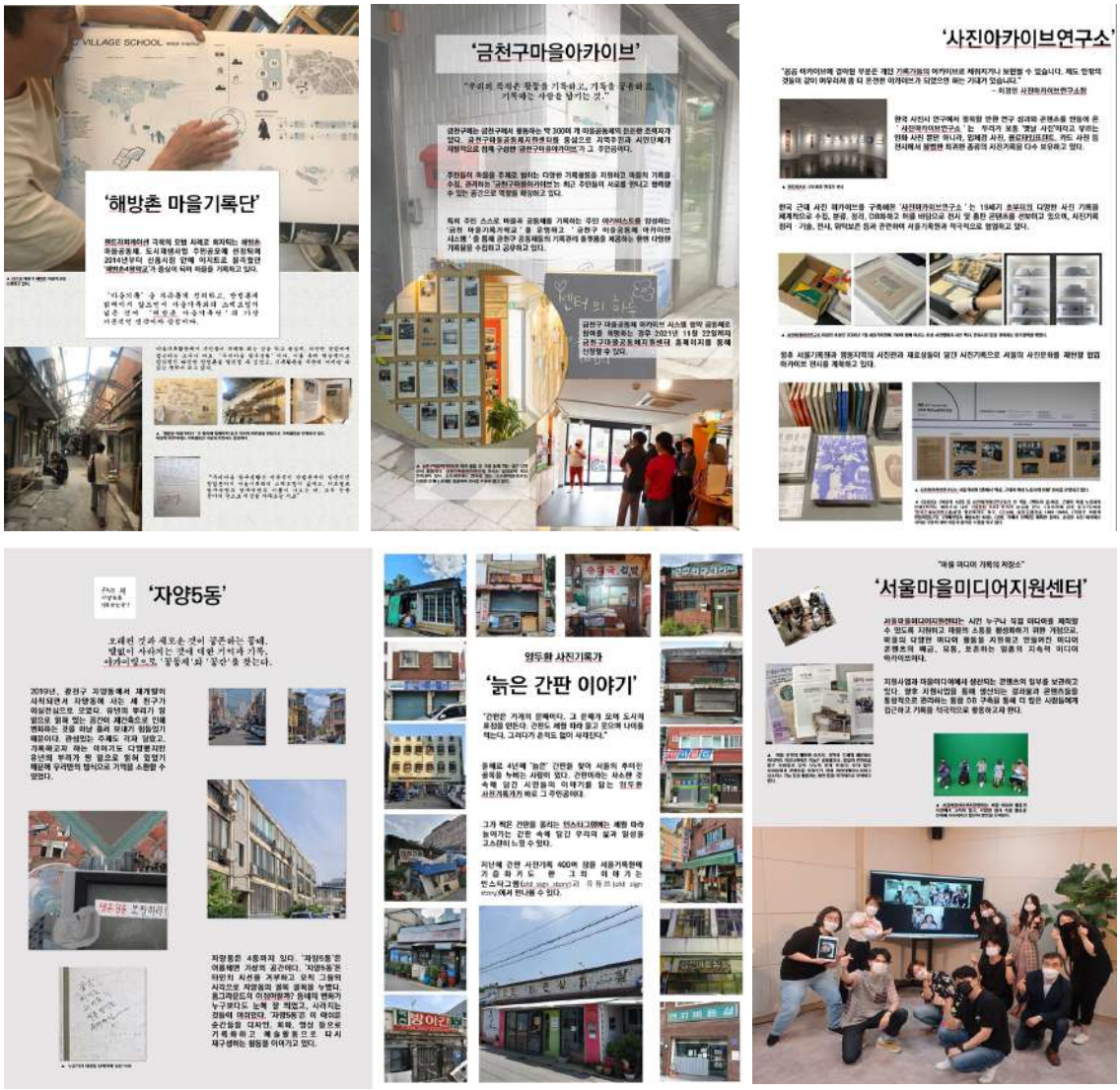


그림 44 2021 서울기록페어의 네트워크 소개 시안

5.3 서울을 기록하는 사람들

- “서울기록원이 만난 서울을 기록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서울을 기록하는 시민의 기록활동과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함
- 서울에서 기록활동을 왕성하게 전개하고 있는 기록 네트워크들을 소개하는 작은 전시를 진행함

❒ 오늘공동체_한강팀

- 한강을 주제로 수집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기록 콘텐츠들을 다양하게 선보인 오늘공동체_한강팀의 활동을 살려 그들이 제작한 한강 주제 뮤직 비디오를 17인치 모니터에 영상으로 상영함
- 올해 서울기록원의 제1 전시실의 “한강, 서울_기억에 흐르다” 전시와 연계하여 홍보 효과를 강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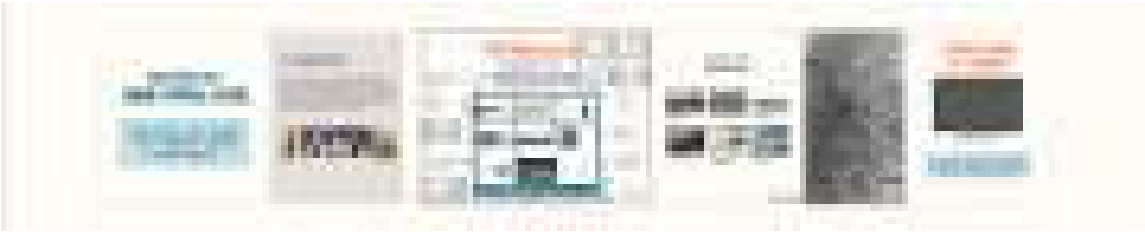


그림 45 서울을 기록하는 사람들 ‘오늘공동체_한강팀’ 디자인 시안

❒ ‘늙은 간판 이야기’ 양두환 사진기록활동가

- 오래된 낡은 간판을 사진기록으로 남기는 활동을 왕성하게 전개하는 양두환 사진기록활동가를 소개함



그림 46 서울을 기록하는 사람들 ‘늙은 간판 이야기(양두환)’ 디자인 시안

Ⅲ. 마치며

❒ 중장기 로드맵과 5대 핵심과제의 지속 및 검증

- 서울기록원 중장기 로드맵과 5대 핵심과제는 ‘서사(narrative)’를 기반한 수집활동의 과정에서 나침판의 역할을 수행하며 서울기록 네트워크와의 ‘라포(rapport)’ 구축 과정에서도 중요함
- 서사는 기록활동의 현장에서 강한 힘을 가지며 자연스럽게 이러한 서사에 대한 “어떤 이야기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됨
-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학제적인 절차와 검증은 현재에도 지속해서 요구되고 있으므로 수집과 네트워크 활동은 각각 독립적이면서도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가짐
- 기록활동에 따른 콘텐츠는 기록활동가들의 자체적인 관심과 역량에 따라 생산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함



그림 47 서울기록원 중·장기 로드맵 및 5대 핵심과제

❒ 수집·네트워크 제안 사항

- ∘ 2021년 서울기록화 사업은 2020년 서울기록화 사업과 비교하여 수집주제가 3개에서 2개로 줄어들었으나 S-NAP의 최하위 레벨인 하위 S-NAP은 개별적인 수집주제영역으로는 내용과 범위가 포괄적으로 수집활동의 범위와 수준 설정에 어려움이 있음
  - 서울기록화 사업은 서울을 대상으로 한 로컬리티(지역) 기록화라는 점에서 수집대상 영역은 최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함
  - 하위 S-NAP을 세분화하거나 S-NAP의 서사에서 관점을 분명히 드러내는 등 수집활동의 범위를 좁히고 대상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함
- ∘ 핵심 과업인 네트워크 및 수집 외의 크고 작은 과업들이 포함되어 수집활동과 네트워크 활동에 불가피한 제약이 존재함
  - 뉴스레터 포맷 개발 및 2회 발송, 2021 서울기록페어 기획 및 개최, 네트워크 굿즈 제작, S-NAP 정비, 수집평가 프로세스 시범운영, 기존 수집기록 목록 정리, 기록활동 콘텐츠 제작, 서사형 아카이브 보기, 다큐멘터리 제작, 서울 아카이빙 북 등 여러 과업이 하나의 사업에 포함됨
- ∘ 무관심하거나 비협조적인 네트워크 및 수집 리드에 대해 참여와 협력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필요함
  - 지난 3년간의 서울기록화 사업의 성과는 네트워크 및 수집 리드의 협력 의사에 좌지우지되는 경향을 보임
  - 서울기록원이 수집 및 네트워크 리드에 서울기록화 사업에 참여하여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서울기록원의 역량을 강화해나가야 함
- ∘ 2021년 서울기록화 사업에서는 수집팀과 네트워크팀을 분리하되 서로 협력하도록 수행조직을 구성했으나 수집팀과 네트워크팀의 통합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수집 및 네트워크 활동이 가능함
  - 네트워크 활동과 수집활동은 절차가 유사하고 긴밀히 협력을 요구하며, 수집담당자와 네트워크 담당자에게 요구되는 역량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네트워크팀과 수집팀을 조직 구성상 분리하여 얻어지는 편익이 불분명함
  - 특히 리드 발굴에 있어 네트워크 리드 발굴은 당해 수집주제와 관련된 개인 및 단체가 대상이므로 수집활동의 리드 탐색과 같은 프로세스를 중복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실제 리드와 접촉하여 면담을 진행하기 전까지는 해당 리드가 네트워크 리드인지 수집 리드인지 불분명함
  - 또한 네트워크 리드이면서 동시에 수집 리드인 경우, 수집 리드라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관계를 형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네트워크 리드라도 수집이 필요할 수가 있으므로 네트워크 활동과 수집활동을 조직구성으로 구분하지 않는 것을 고려해야 함

ㅇ 정기적 기록 수집체계 구축이 필요함

- 2018년부터 2021년 서울기록화 사업에서는 수집 리드와의 라포 형성에 어려움을 겪으며 수집활동이 단발성으로 종료된 경우가 많음
- 양질의 기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소장기록의 양적·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집 리드로부터 체계적으로 관리된 기록을 정기적으로 수집해야 함
- 수집활동에서의 라포 형성과 장기적 관점에서 수집정책 수립, 기록관리 교육 및 지원체계 확립을 통한 수집 리드의 기록관리 역량 함양 등을 통해 정기적인 수집이 가능함
- 또한 자체적인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 또는 상용 기록관리시스템을 구매할 여력이 없는 개인활동가와 단체를 위한 온라인 아카이브 등 기록관리 플랫폼을 제공하고 등록한 기록을 시스템적으로 이관을 받는 것도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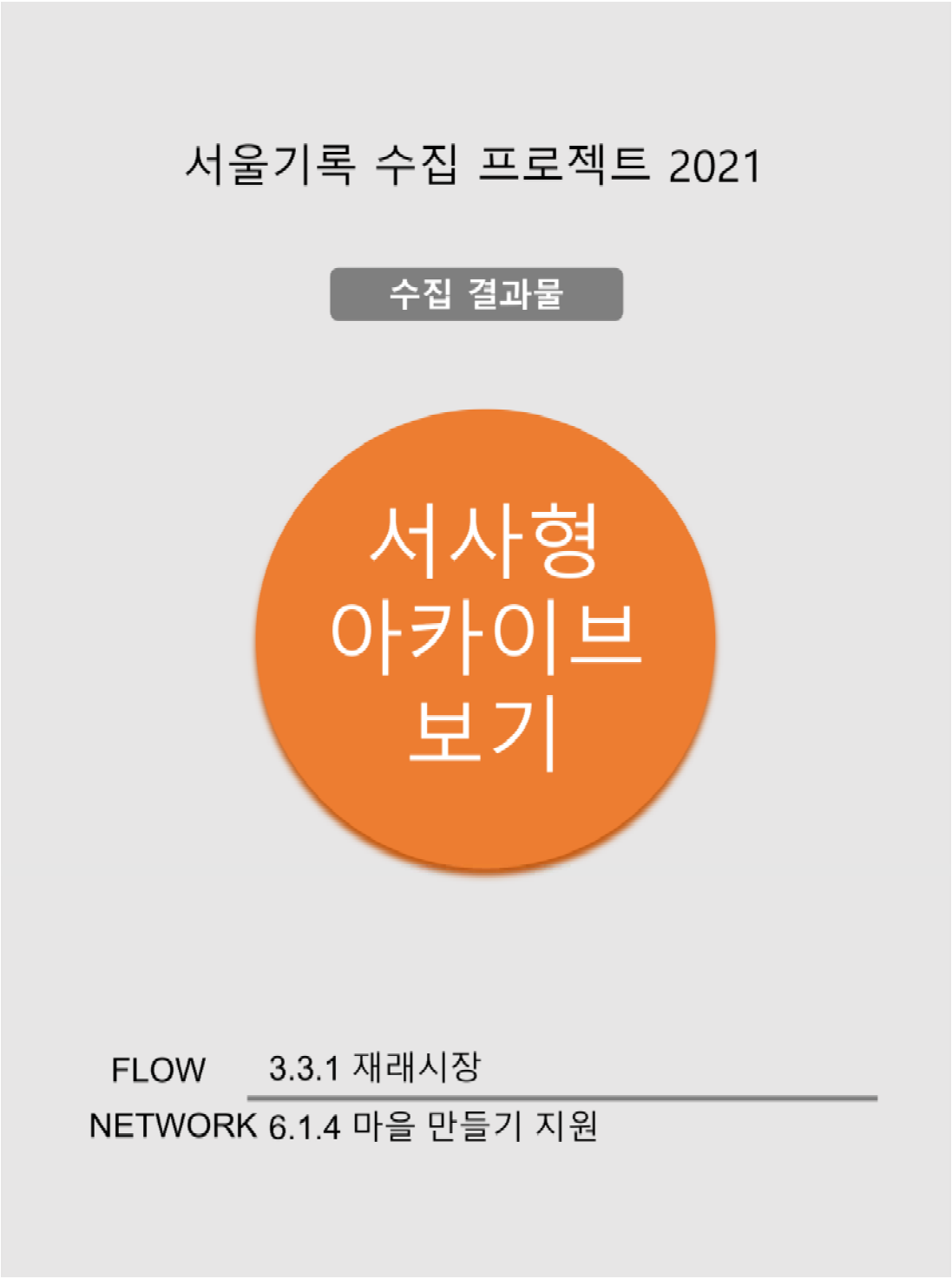
ㅇ 서울에서 활동하는 기록활동가와 기록활동 의사가 있는 잠재적 활동가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조언과 도움을 제공하고 서울기록원을 소규모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중·소규모의 맞춤형 행사 기획이 필요함

- 서울기록원은 서울의 지방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서울의 기록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작년에 이어 2021 서울기록페어를 개최하여 서울 기록활동가 축제의 장(場)을 마련함
- 그러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행사이기 때문에 서울기록 네트워크 등 기록활동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나 지원을 제공하기는 어려움
- 이에 따라 중·소규모의 대상별 맞춤형 행사를 기획하여 실질적인 조언과 도움을 제공하고 서울기록원을 중심으로 서울기록원과 기록활동가, 기록활동가와 기록활동가가 상호이익에 기반한 네트워크를 맺을 수 있는 장(場)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이러한 중·소규모 행사의 성과가 축적된다면 향후 서울기록페어의 내용도 풍성해질 것으로 예상됨

ㅇ 거대한 수집 서사인 S-NAP에 기반한 장기적인 수집계획이 필요함

- 2018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수집이 진행된 하위 S-NAP은 총 18개로, 전체 171개의 하위 S-NAP을 모두 기록화하려면 산술적으로 최소 27년에서 최대 60년이 소요됨
- S-NAP이라는 방대한 서사를 양적으로 기록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수집계획이 요구됨
- 또한 서울기록화 사업이 일종의 동시대의 기록화, 사회적 기억의 기록화라는 점에서 관점에 따라 수집주제 선정의 기준이 매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울기록원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집주제를 선별하는 것이 바람직함

Ⅳ. 부록


서울기록 수집 프로젝트 2021
수집 결과물
서사형
아카이브
보기
FLOW 3.3.1 재래시장
NETWORK 6.1.4 마을 만들기 지원

FLOW 흐름 S-NAP 3.3. 시장

전통적인 3일장이나 5일장에 뿌리를 둔 재래시장은 지역주민의 전통문화와 정서가 담긴 곳으로 지역경제의 측면에서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에 점차 경쟁력을 상실해가는 중이다. 바쁜 삶을 살아가는 서울사람들에게 재래시장의 느린 문화가 맞지 않기도 하지만, 오늘날의 젊은 사람들은 정액제와 주차장 등 보다 합리적이고 편리한 상거래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부를 비롯한 각 시장의 상인회와 지역사회 운동단체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애를 쓰고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쇼핑센터는 서울의 대표적인 시장으로 자리 잡았다. '백 가지 물건을 가져다 놓은 곳'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지만, 고급화 전략을 통해 일반 서민이 쉽게 범접할 수 없는 '고가의 물건을 파는 곳'이라는 계급적인 함의를 더 지니게 되었다. 또한 대형마트는 소량 구매에서 대량 구매로 소비의 패턴을 변화시킴으로써 크게 확산되는 한편, 기존의 동네 상권을 위협하고 있다. 쇼핑센터는 동대문 지역과 같이 하나의 타운을 형성하며 밤낮없이 관광객과 현지인, 해외상인을 끌어 모으지만, 쇼핑센터 그 자체만으로는 적자를 내기가 어려워 공간 안에 따로 유흥공간을 마련하거나 주문 및 구매결제 방식을 온라인마켓과 같은 방식으로 바꾸는 등 여러 가지로 변모하는 중이다. 오늘날 가장 분명하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의 형태는 온라인쇼핑이다. 제조품뿐 아니라 신선한 채소도 당일 배송 서비스를 하는 등 온라인쇼핑이 담당하는 영역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간편하고 신속한 서비스 뒤에는 일 년에도 수십 명을 돌연사로 내모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와 고통이 있다. 온라인쇼핑의 대척점에서 물물교환을 기본으로 하는 벼룩시장 역시 서울에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벼룩시장에서는 공예품이나 중고물건의 나눔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가족이나 개인이 누릴 수 있는 문화행사를 꾸리는 등 마치 과거의 5일장이 그랬던 것처럼 지역사회의 새로운 문화적 장소성을 구현해내고자 애쓰고 있다. 또한 벼룩시장 역시 온라인쇼핑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과 어플리케이션 등의 새로운 매체를 통한 변화와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S-NAP "시장"의 하위 수집실행지침은 다음과 같다. 서울의 재래시장에 대한 기록을 수집하는 "재래시장", 서울의 대표적인 시장으로 자리 잡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쇼핑센터", 새로운 시장으로서 떠오르고 있는 "온라인쇼핑과 택배", 중고물품 거래의 어제와 오늘을 보여주는 "벼룩시장"으로 구성된다.

S-NAP 3.3. 시장 3.3.1 재래시장

재래시장이란 소상인들이 모여서 갖가지 물건을 직접 판매하는 전통적 구조의 시장을 말한다. 그 기원은 3일장, 5일장 같이 사람들이 모여서 열리는 정기시장에서 출발하였지만,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요즘에는 소상인들이 연합체 구조를 갖춘 상설시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재래시장은 과거부터 지역주민들의 삶에서 주요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곳이자, 전통문화와 정서가 담긴 곳이다. 재래시장에서는 일괄구매 가능, 지역주민과 가까운 입지적 특성, 영세 상인에게 고용기회 제공, 서민층에 저가 구매기회 제공 등 지역경제 측면에서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와 같이 전근대의 생활상에서, 그리고 그리 멀지 않은 과거의 생활상에서도 재래시장은 사람들이 일상을 영위하는 삶의 흐름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었다. 그러나 전근대적인 유통 방식, 영세성, 비효율적인 경영, 낙후된 시설 등으로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에 비해 경쟁력을 상실해감에 따라 점차 주요한 흐름에서 이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상인회 등이 부흥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재래시장에 관한 기록을 수집함으로써, 재래시장의 역사적 변천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다양한 의미를 확인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수집주제, 왜 재래시장인가?

재래시장의 또 다른 이름은 전통시장이다. 소상인들이 모여서 갖가지 물건을 직접 판매하는 전통적 구조의 시장을 말한다. 재래시장의 본격적인 위기는 1996년 유통산업의 전면 개방으로 시작됐다. 유통산업에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고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자본으로 무장한 유통업체의 진출은 재래시장 상인들이 즉각적인 생존의 위협을 느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더구나 국민소득이 늘고 자동차 보급이 급속하게 확대되면서, 지역주민과 밀접한 입지적 특성도 더 이상 장점으로 작용하지 못한다. 이제 재래시장은 더 이상 고객이 찾지 않는 공동화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재래시장은 지역주민의 전통문화와 정서가 담긴 곳으로 일괄구매가 가능하고, 지역주민과의 소통이 가능한 입지적 특성이 여전히 존재하며, 영세상인에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서민층에 저가 구매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 측면에서 다양한 순기능과 긍정적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재래시장은 내부적으로 전근대적인 유통활동, 영세성, 비효율적인 경영, 조직화

및 협업화 부족, 시설 낙후성 등의 탓으로 그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고, 여기에 '젠트리피케이션(낙후된 구도심이 활성화되면서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이 더해져 그나마 지켜온 지역 기반에서도 밀려나기 시작했다.
급기야 정부주도로 다양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및 경영선진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대형마트 및 기업형 수퍼마켓(SSM)에 대항해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매출액 및 종사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었다.
하지만 역사가 투쟁의 과정에서 길을 찾아 가듯이 재래시장 역시 위기의 과정에서 생존과 번영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망원시장에서 볼 수 있듯이 거대 유통자본과의 싸움 속에서 시장상인들이 굳건한 연대를 이루었고, 창신동 문구완구시장은 문구의 쇠퇴에 따른 것이지만, 자연스럽게 완구거리에 집중하는 변화를 이끌었다. 남성사계시장은 계절을 달리하는 다양한 마케팅으로 지역주민에서 나아가 고객의 대상을 넓혔으며, 정릉시장은 정릉천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개울장 등 특색 있는 생활 이벤트로 관광의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최근에는 SNS와 연계된 마케팅, 배송 시스템 등 재래시장 전통 이미지에서 나아가 젊은 세대를 고객으로 유치하는 경쟁에 재래시장이 적극 나서고 있다. 코로나19의 긴 불황이 판매의 방식의 현대화를 견인했다고 할 수 있다.
서사는 기본적으로 위기와 갈등, 극복과 치유의 장치를 가진다. 그 장치로 서사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현재를 위안하며, 내일을 꿈꾸는 순기능을 가진다.
S-NAP 3.3.1 '재래시장'을 기반 하여 서사 키워드를 추출하여, 삶의 터전이자 전통문화와 정서가 담긴 곳에서 관광과 유흥, 문화 등의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는 재래시장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기록화 하고자 했다.
이미 기록화가 이루어진 대형 재래시장보다는 중소규모의 재래시장 중 S-NAP의 서사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재래시장에 우선적으로 접촉하여 다양한 서울과 서울시민의 모습을 풍부하게 수집하고자 했다.

3.3.1 재래시장 문구완구시장

선술집이 사라진 자리, 버스 행상 문구류 공급시작
1980년대 국내 최대 문구완구 전문시장 자리매김

동대문 문구완구시장은 종로구 창신동에 위치하지만 동대문과 인접하여 동대문 문구완구시장으로 불린다. 과거 동대문과 고속버스터미널이 있던 곳으로, 역전 뒤 선술집들이 청계천을 따라 모여 있는 골목이었다. 역과 터미널이 이전하면서 선술집들이 사라졌고, 그 자리를 버스에서 작은 문구류를 팔던 노상 상인들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도매점이 생겨나면서 시장이 형성되었다. 1960년대 후반 즈음하나, 둘씩 문구류 도매점이 생기기 시작했고 197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이 형성되었다. 1980년 즈음에는 품목이 완구류로 확대되어 현재 127개 점포가 자리한 국내 최대의 문구완구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수집생산기록 2021.10.24.
동대문 문구완구시장 입구에 조성된 조형물
만화 '우에키의 법칙'에서 큐브는 인간의 뇌에 있는 수십억 개의 방 중 하나이다. 인간의 뇌는 용도에 따라 수십억 개의 방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 큐브는 소중한 사람과의 기억을 보관하는 방이라고 한다. 동대문 문구완구시장 조형물의 상징은 큐브이다. 큐브는 어린이들에게 장난감이자 창의적 사고를 함양하는 교육의 도구로 활용되기도 한다.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장난감 중의 하나이다. 1980년대 최고의 히트 상품이었던 소프트 건이 아닌 큐브가 동대문 문구완구시장 조형물이 된 것은 완구를 생각하는 상인들의 생각 때문이 아닐까?

저출산, 학습준비물 제도 등 환경변화 직면
문구점 상당수 천호동 이전, 완구점도 곤혹



수집기증기록 2017.09.23.

2015년 육의전 행사에서의 송동호 상인회장

“동대문 문구완구시장에 처음 왔을 때 당시만 해도 청량리 역사와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이 당시 여기 있었어요. 역사와 터미널이 이사하고, 술을 팔던 음식점들이 사라지고 완구와 문구 점포들이 들어오면서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송동호 상인회장은 올해로 42년째 문구완구 시장과 함께 살고 있다. 그가 최고의 호황기로 꼽은 시기는 1980년대다.

“1980년대는 무엇을 놓든 팔리는 시기였어요. 코로나19 전에는 지방에서뿐만 아니라 멀리 중국, 베트남, 일본, 대만, 홍콩 등 외국인들도 와서 물건을 받아 갔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고 내수 소비층, 즉 가족 단위의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도 잘 모르는 곳이었고 도매 판매만 했습니다. 1988년 올림픽이 끝나면서부터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이때까지도 도매를 주로 취급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컴퓨터 시대가 되면서부터 도매 유통이 줄어들고 중간 ‘나까마(仲間)’가 중간 유통을 전담하게 되어 소비자 위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서울 시내의 거의 모든 소매상, 문구점, 완구점은 여전히 여기서 상품을 공급받습니다.”

- 송동호 상인회장 인터뷰

국내 최대의 문구·완구 도매시장으로 성장한 동대문 문구완구시장의 위기는 먼저 소매 문구점이 몰락하면서 시작되었다. 저출산 시대, 교육 복지의 확대라는 피해갈 수 없는 급속한 환경 변화에 상인들은 무력했고 하소연도 하지 못한 채 속앓

이를 할 수밖에 없었다. 출산율 저하는 자연스럽게 고객감소로 이어졌고, 학습준비물 지원제도가 확대되면서 문 닫는 문구점들이 늘어났다. 문구점들은 상당수가 폐업하거나 천호동 등으로 이전했다. 완구점도 예외는 아니어서 일부 점포들이 천호동으로 이전하는 아픔을 겪었다. 놀이문화의 변화, 온라인 플랫폼 등장 등으로 매출은 눈에 띄게 떨어졌고 대형 유통업체, 기업형 만물상 등이 등장하면서 가격 경쟁에서의 우위를 점하기도 어려워졌다.

이처럼 국내 최대 규모의 전문시장으로 성장한 동대문 문구완구 시장의 가장 큰 위기는 대기업의 진출과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이었다. 사람들은 다소 가격이 비싸더라도 쾌적한 환경과 문화 시설을 갖춘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을 선호하기 시작했다. 이후 온라인을 통한 구매가 확산하고 심지어는 '해외직구'가 보편화되면서 문구완구시장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졌다.

2015년 상인회 등록으로 힘 합쳐
시장 대청소서 축제까지 혁신 노력

거대한 사회적 변화를 상인 개인이 대응하기는 불가능하므로 동대문 문구완구시장 상인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시장 환경 개선 및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황색선 지키기', '시장 대청소' 등 쾌적하고 편리한 시장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자발적 활동과 행사, 축제가 전개되었다.



동대문 문구,완구 도매종합시장 번영회

1. 문구,완구 번영회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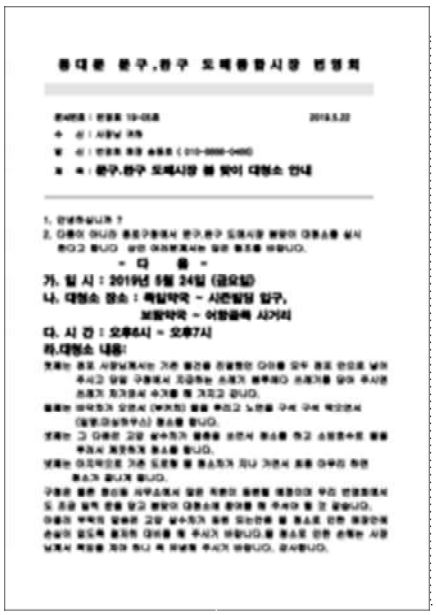
2.문구,완구시장은 전국 최대의 청남과 시장으로서 주말이면 12,000명 이상의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우리시장을 찾아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장은 주차장이 없어서 많은 차량들이 혼소한 시장 도로를 이용 하다보니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 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3.이에 문구,완구 번영회 에서는 우리시장에 안전하게 주차를 하고 물건을 살수 있도록 서울시와 종로구청에 주차장 건설을 최우선으로 하여 우리상인 사장님들의 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1월28일 오전 9시까지 서명을 받아주시면 감사히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문지 걷는 날짜
1) 일 시 : 2019년 1월 28일 (월요일)
2) 시 간 : 9시까지

동대문 문구,완구 도매종합시장 번영회 회장 송동호



동대문 문구,완구 도매종합시장 번영회

수 신 : 시장님 귀하

발 신 : 번영회 회장 송동호 (010-0000-0000)

제 목 : 문구,완구 시장 주차장 건설 협조서 설문지 작성요청

1. 안녕하십니까 ?
2. 다름이 아니라 종로구청에서 문구,완구 도매시장 봄맞이 대청소를 실시 한다고 합니다. 상인 여러분께서는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 시 : 2019년 5월 24일 (금요일)
나. 대청소 장소 : 특설막국 ~ 시민빌딩 입구,
보일막국 ~ 어깡골목 사거리
다. 시 간 : 오후6시 ~ 오후7시
라.대청소 내용:

구청장 협조 요청드립니다.

수집기증기록 2019.01.26.(좌)와 2019.05.22.(우)

주차장 건립을 위해 실시한 상인 설문조사에 대한 공문(좌)과
쾌적한 시장 환경을 위해 실시한 봄맞이 대청소 안내 공문(우)

동대문 문구완구시장 상인회는 2015년에 서울시와 종로구청의 지원을 받아 시장을 홍보하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동대문 문구완구거리 축제'를 열었다. 판매 촉진 행사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수동적이고 자칫 폐쇄적이라는 지적도 있었던 상인 문화를 시민과 함께 즐기는 문화로 변화하고자 하는 노력이기도 했다. 마침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열려 시장은 모처럼 고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수집기증기록 2015.12.19.
동대문 문구완구시장의 입구에 걸린 축제 현수막





수집기증기록 2015.12.19.-20.
동대문 문구완구시장 축제 모습





수집기증기록 2017.09.23.
육의전 축제의 마술쇼 모습(좌)과 키다리 아저씨의 풍선 이벤트(우)

축제는 2015년 12월 17일 동대문 문구완구시장 상인회 등록과 함께 열렸으며, 상인들은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됐다. 또한 종로의 청계관광특구에서 치러지는 육의전 축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수집기증기록 2015.12.19.(좌), 2015.12.16.(우)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축제의 행사장 사진(좌)와 초대장(우)

그러나 상인과 상인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쇠락하는 시장의 상황을 반전하기에는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높았다. 동대문 문구완구시장을 비롯한 창신동 일대가 재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인정 전통시장 등록이 어려워 장기적, 대대적 지원에 제약이 너무 많았고,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변화를 좇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버거운 일이었다.

"11년간 상인회장을 맡아 시장을 발전시켰는데, 재래시장이다 보니 휴식공간, 화장실, 수유 공간, 주차장 등이 없어 이러한 현실을 서울시장님, 국회의원님, 구청장님 등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재개발촉진지구로 묶여 있어 투자에 소극적입니다."

- 송동호 회장 인터뷰

"다른 판로를 모색하려고 해도 시장 단위의 독자적인 온라인 판매는 관리 부담이 너무 컸고 어려웠습니다.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가 많고 점포 수가 120여 개씩 되다 보니 하나의 온라인 쇼핑몰로 가기에는 무리였어요. 자구책으로 점포별로 온라인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저희 가게도 홈페이지가 있지만 사실 홈페이지 관리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 송동호 회장 인터뷰

많은 문구사가 사라졌고 완구류도 예전보다 숫자가 확연히 줄어들었지만 문구·완구 도매시장의 자부심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 완구점 중심 거리에 화방, 의류



수집생산기록. 2021.10.24.(위)
송동호 상인회장 면담

등의 새로운 판매 상품들이 들어오고 그 수요가 조금씩 늘어 이제 시장의 판매 상품으로 당당하게 자리하고 있다. 최근 내걸린 현수막에 적힌 “문구, 완구, 펜시, 교재, 체육, 화방, 파티, 지물, 의류, 등산용품”을 취급하는 “종합시장”이라는 문구를 통해 세월의 변화에 따른 취급 품목의 변화를 압축적으로 볼 수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소매는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동네 소매점들이 많이 없어져서 소비자들이 직접 오는 경우가 많아요. 학령인구 감소 체감도 많이 되고, 학용품에 대한 수요 자체가 준 것 같아요. 학습준비물지원으로 학용품 구매가 줄어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시위도 많이 했었죠. 지금 점포를 정리하는 사람들은 다른 곳에 점포를 열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를 완전히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는 점포가 비면 같은 업종의 가게가 입점했는데, 이제는 인수자를 찾기 힘들고 들어오더라도 다른 업종이 들어오죠.”

- 오세인 예지사 대표 인터뷰

“얼마 전까지 보따리상에게 납품하는 물량이 꽤 컸으나 코로나19로 모두 끊겼고 코로나19가 잠잠해진다고 하더라도 이전처럼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매출은 문구류 자체보다는 기호품과 생활용품, 유아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캐릭터가 들어간 제품 등의 비중이 높았는데 역시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 김윤길 대표 다큐멘터리 인터뷰




수집생산기록 2021.10.24.
오세인 예지사 대표(좌), 김윤길 시티아담문구 대표(우) 인터뷰

빈 점포 재개업 시 업종 변경 잦아
문구완구 전문시장 명성 유지 바래

동대문 문구완구시장 상인들은 바로 옆 점포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전문시장으로서의 명성을 유지하려고 큰 노력을 하고 있다. 그것만이 그들의 살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비워진 가게에 새로운 주인이 오면 반가움도 잠시 다른 업종이 손님을 맞는 풍경을 마주한다. 상인들은 그때마다 안타까움을 느낀다. 상인회 플래카드에 “문구, 완구, 펜시, 교재, 체육, 화방, 파티, 지물, 의류, 등산용품” 문구가 시장의 주요 품목으로 등재된 것이 그 때문이다.
동대문 문구완구시장은 2000년대 초부터 소매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현재는 소매의 비중이 도매보다 더 높다. 아직도 평일에는 소매상이 종종 찾아오지만, 현수막에 붉게 써진 ”도매“ 글씨는 상인들의 과거 기억으로 밀려나고 있다. 매출 대부분은 주말과 공휴일에 아이들이 중심이 된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나온다.



수집생산기록 2021.10.24.(좌)
동대문 문구완구시장 입구의 현수막
‘도매’를 강조하지만 몇 년 전부터 소매 매출이 도매를 추월했다.

송동호 번영회장은 “재개발촉진지역으로 서울시 시장 등록이 어렵고, 각종 지원에도 제약이 크다”라며 정책적 지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코로나19 전에는 외국 관광객들이 꽤 많이 찾곤 했어요. 뭐니 뭐니 해도 대목은 어린이날과 크리스마스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고, 가게마다 문전성시예요” 그는 메일이 어린이날이고, 크리스마스였으면 좋겠다고 한다. 수입이 많은 이유만은 아니다. 이곳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은 누구랄 것 없이 동심과 닿아 있다. 어린이가 주 고객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

동대문 문구완구시장에는 에어소프트건이나 피규어 등을 찾는 어른 고객도 심심찮게 드나든다. ‘키덜트족’이 성인용 장난감을 구매하기 위해 오기도 하고, 어릴 적 부모님과 드나들던 추억에 이끌려 발걸음을 향하기도 한다.

2021년 서울기록화 사업 수집팀이 동대문 문구완구시장에서 추출한 서사의 주요 키워드는 ‘유흥과 관광’, ‘상거래’, ‘현대화 및 활성화’, ‘지역문화’, ‘쇠퇴’ 등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유흥과 관광’의 측면과 도매 매출이 급락하며 위축된 ‘상거래’, 이 위기를 타개하려는 상인회의 ‘현대화 및 활성화’의 기록을 수집하고자 했다.

동대문 문구완구시장 상인들은 얼마 남지 않은 크리스마스 대목 시즌 준비에 한창이다. 서서히 저물어가는 거리에서도 꿈과 희망은 여전히 남아 있다.



수집생산기록 2021.10.24.
동대문 문구완구시장





수집생산기록 2021.10.24.
폐업한 문구사(좌)와 시장의 구석진 골목 사진(우)

3.3.1 재래시장 정릉시장

1995년 정릉천 복원사업으로 등록 말소
대학생들 전통시장 살리기로 새롭게 부흥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정릉시장은 1963년 정릉천 복개 공사로 시장이 형성되었다가 1995년 정릉천 복원사업으로 등록이 말소된 시장이다. 하지만 2010년 3월 국민대학교와 정릉시장 상인회가 '전통시장 성장 발전을 위한 MOU' 체결하고 서울시 인정시장으로 재등록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수집기증기록 2016.08.

정릉시장 정문의 조형물

정릉시장 입구의 간판에는 다섯 가지 캐릭터들이 방문객을 반기고 있다. 이들은 정릉시장을 수호하는 '지화자 도사단'인데, 땅에 핀 가장 아름다운 꽃은 사람이라는 의미의 '지화자'와 북한산의 맑은 정기가 정릉시장을 수호해주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은 '도사단'을 통해 지화자 도사단이 탄생했다. 지화자 도사단 캐릭터에서 어린이가 포함된 가족 단위 고객 유치에 노력하는 상인들의 마음이 보인다.

2014년 8월부터 시작된 서울시의 ‘서울형 신시장 모델’ 시범사업은 관공서가 지원하고 지역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유형의 시장 기획으로 정릉시장 재부흥을 이끌었다. 시장을 관통하는 정릉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정릉시장을 국민대학교 등 주변 대학생들이 시장의 특색을 살린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통해 ‘개울장’ 등 시장 안에 작은 시장을 만들었다. 이에 상인들이 화답하며 ‘길장’과 같은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열었다. 인근 주거지와 인접해 있고, 자연 휴게공간인 정릉천이 시장의 중심을 관통하는 장점을 십분 활용한 결과이다.

시장의 역할이 단순 상거래에서 아이들의 놀이공간, 젊은이들의 문화공간, 가족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타지에서도 찾아오는 관광과 유흥의 장소로 확장된 사례이다. 이를 위해 ‘토요시장 신나는 체험존’처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열고 있다.



수집기증기록 2014.09.13.

신나는 체험존 ‘메타세콰이어 열매 반지 만들기’



수집기증기록 2014.06.14.

신나는 체험존 ‘풀잎 손수건 만들기’



수집기증기록 2014.04.12.

신나는 체험존 '나무작품 자석만들기'





수집기증기록 2014.11.22.

신나는 체험존 '사진나눔전'

한 어린이가 '메타세과이어 열매 반지'를 만들어 손가락에 끼고 즐거워한다. '풀잎 손수건'을 예쁘게 만들고, '나무작품 자석을 만들며' 의기양양 사진을 찍으며 자랑한다. '사진나눔전'에서 자신이 나온 사진을 찾아, 사진나눔전 한편에 자리한 '자연액자 만들기'를 통해 액자를 집에 가져간다. 어린이들이 부모님을 졸라 정릉 토요시장에 몰려오고 있다. 시장은 미래의 잠재 고객을 유치 중이다.

신나는 체험존으로 어린이 포함 가족단위 고객 유치
‘개울장’은 자연환경을 활용한 마케팅으로 이색 경험

정릉시장이 유명세를 얻게 된 계기는 무엇보다도 ‘개울장’에 있다. 재래시장이 내리막을 걸을 수밖에 없는 사회 속에서도 정릉시장은 ‘개울장’이란 독특한 생각의 마케팅을 전개했다.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정릉천에서 열리는 '개울장'은 벼룩시장인 '팔장', 직접 만든 물건을 매매할 수 있는 아트마켓 '손장',정릉시장의 맛있는 먹거리들을 맛볼 수 있는 '먹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울장’에서는 종종 마을 축제가 열리기도 한다. 이 축제에 역시 국민대 학생들이 참여해 대학생들과 지역주민이 함께 놀며 소통하는 장을 열기도 한다.



수집기증기록 2014.04.12.(좌), 2014.09.13.(중), 2014.11.22.(우)
‘사진나눔전’에서 자신의 사진을 들고 찍은 기념사진

개울장의 다양한 행사를 통해 지역주민은 시장을 더 친숙하게 느껴 시장을 찾게 되고, 시장이라는 공간을 단순히 상행위의 공간, 재화의 유통 공간에서 문화의 공간으로 확장, 발전시킬 수 있다. 유동 인구가 증가하면서 상인들의 매출은 증가하고, 개울장을 찾은 방문객에게는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개울장’이 젊은 대학생의 발상이었다면, ‘길장’은 상인들이 머리를 맞대어 내놓은 시장 상품이다. 먹거리 품평회를 거쳐 엄선된 간편 먹거리를 선보이고 ‘개울장’을 지원한다. 상인들은 '길장'에서의 먹거리 판매만이 아니라 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개울에 앉아 동네 곳곳의 소문난 먹거리를 맛볼 수 있도록 배달 시스템

을 가동하기도 했다. 외부 상인이 아니라 동네 상인들이 참여함으로써 재래시장 본연의 넉넉한 정을 느낄 수 있다.





수집기증기록 2016.

개울장에서의 공연







수집기증기록 2016.

개울장 전경과 개울장이 벌어지는 정릉천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아이들

길장, 개울장과 정릉시장의 콜라보 형성
상인들이 엔터테인먼트 마케팅에 눈 떠

정릉시장 상인회에서는 '개울장'과 '길장'에서 쓰이는 전용 용기와 포장을 마련하여 상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현대화, 대형화라는 유통시장의 큰 변화에 아기자기한 관심과 배려가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경험이 정릉시장 상인들에게 있다. 그들은 "정성을 기울이면 반드시 손님은 찾게 된다"라는 오래된 장사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주변 대학생들과의 협업을 통해 엔터테인먼트적 요소가 큰 수요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경험과 자각을 하게 됐다.

'길장'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서 요구도가 높은 '엔터테인먼트' 마케팅을 시장 상인들이 몸소 체험하면서 활로를 찾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정릉시장에서 소멸하고 있는 재래시장의 위기를 지역민과 상인들이 힘을 합쳐 어떻게 극복해가고 있는가를 들여다볼 수 있다. 모두가 행복한 시장이 되길 위해서 그들은 오늘도 아이디어를 찾고, 또 찾는다.



수집기증기록 2016.07.
길장이 열린 정릉시장



수집기증기록 2016.07.
길장 도시락 판매






수집기증기록 2016.07.

길장 '예쁜 글씨 전시회' 등 이벤트 사진

3.3.1 재래시장

망원 시장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홍대상권 '망리단길' 유입
홈플러스 입점 저지 운동으로 '상인회' 결속, 연대

망원시장이 자리하고 있는 망원동은 한강을 이웃하고 있어,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서울의 상습 침수 지역 중 하나였다. 홍수 때마다 개천이 넘쳐 집 안에 물이 들고, 썩은 내가 진동했던 경험을 망원동 주민들은 갖고 있다. 게다가 1993년 난지도 쓰레기매립장이 폐쇄하기 전까지 인근에 쓰레기장이 있어서 주거지역으로 기피되던 지역이었다. 지금이야 유수지 설립 및 관개 시설 개선으로 침수 사태는 사라지고 오히려 한강시민공원이 인접해 있어 많은 시민이 찾고 있지만, 과거엔 도시빈민과 영세상인들이 주거하는 곳이었다.
망원시장의 역사는 거슬러 올라가 그때 성산시장부터 시작한다. 월드컵을 유치해 망원역이 개업하면서 성산시장은 덩달아 커졌다. 망원시장과 길 하나를 두고 마주 보는 월드컵시장은 법인 등록 등 편의에 구분한 것이다.



수집기증기록 2006.
망원시장 시장 허가 등록을 축하하는 현수막

망원시장은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도시환경의 변화로 인해 중상류층이 도심의 낙후된 지역으로 유입하면서 지가, 임대료 등을 상승시켜 비싼 지가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원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으로 홍대 일대의

젊은 예술인과 상인들이 '망리단길'에 둥지를 틀면서 빠르게 성장했다.



수집생산기록 2021.11.21.
낡은 건물의 모습



수집생산기록 2021.11.21.
주택을 개조한 카페

망원시장은 시장 내 점포와 시장 외 점포가 결합하여 망원시장과 망리단길의 조화를 이루어냈다. 망원시장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반사이익으로 어느 때 보다 화려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지만, 망원역에서 망리단길로 향하는 좁은 골목은 평일과 주말 모두 사람들로 붐빈다. 주말에는 망리단길 찾는 청년들로 북적이는 망원시장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으며, 청년들이 운영하는 점포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망원시장이 지금처럼 호황을 누리게 된 것을 단순히 젠트리피케이션의 반사이익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 위기에 봉착했을 때 망원시장은 단결된 힘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수집생산기록 2021.11.21.(좌)
망원시장에 자리한 와인바



수집생산기록 2021.11.21.(우)
인근 카페의 폐업 안내문

2002년부터 10년에 걸쳐 망원시장 근처에 대형마트 2곳과 기업형 슈퍼마켓 1곳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상인들은 2012년 난생처음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 대형 점포가 들어설 때마다 매출이 급격하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망원시장 87개 점포(현재 88개 점포) 상인들은 지역의 다양한 활동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고군분투했다. 끈질긴 입점 저지 운동으로 비록 요구사항을 모두 관철하지는 못했지만, 인근 대형상점의 품목 제한과 SSM의 폐점을 끌어냈다. 대형상점과의 상생 차원에서 현재 상인회가 자리 잡은 건물을 마련할 수 있었고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상인회 내부와 상인회-상인의 결속력, 외부와의 연계가 이전보다 튼튼해졌다. 현재 망원시장의 모든 점포는 망원시장 상인회에 가입한 상태이다.

“제가 망원시장 매니저로 온 지도 2년이 넘었어요. 시장 매니저라는 특성상 다방면에 걸친 업무가 진행됩니다. 대외 홍보, 각종 이벤트, 시설관리, 방역관리, 무

엇보다도 상인들이 합심하여 공동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데 필요한 마케팅 등이 주요 업무입니다.”

- 황선엽 매니저 인터뷰



수집생산기록 2021.11.21.
망원시장 상인회 건물 입구



수집생산기록 2021.11.21.(우)
황선엽 매니저와의 면담

상인회로 뭉친 상인들은 시장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대형할인점 의무휴업으로 생긴 빈틈을 공략을 위해 재래시장으로는 홍보 전단지 배포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하고 시장에서 구매한 물건을 배달해주거나 주문부터 수령까지 전화를 통해 시장을 가지 않고도 장을 볼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했다.

망원시장은 낮은 가격경쟁력과 불친절, 독창성이 없는 아이템 등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며 장기적인 내림세를 보이는 재래시장 중에서 기회를 잘 포착하여 단연 돋보이는 성과를 이뤄낸 곳이다. 상인들도 망원시장의 이러한 성과를 내세우는 것에 주저함이 없다. 그만큼의 자부심이 있기 때문이다. 육·해·공 모든 먹거리를 찾을 수 있으며 재래시장답게 간식거리가 매우 풍부하다. 또한 모든 점포에서 각종 상품권과 카드 결제를 도입한 것도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했다.

시장 내부 환경은 꾸준히 개선이 이루어져 현재 깔끔하게 양옆으로 매장이 줄지어 있어 이동에 전혀 어려움이 없다. 한강 공원으로의 접근성이 좋아서, 날이 좋으면 시장에서 먹거리를 사 들고 가는 관광객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주변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굳건한 연대로 거대한 유통자본과 싸운 재래시장으로 망원시장의 대표성은 충분하다. 망원시장의 성공은 외부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은 상인회의 상인의 굳건한 연대가 지금 망원시장 성공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이다. S-NAP에서 재래시장 관련 주요 민간 기록물로 '대형할인점 진출 반대를 위한 상인회의 활동과 관련된 기록들'이 적시되어 있고, 망원시장은 그러한 성과를 이뤄낸 곳이다.



수집기증기록 2021.11.25.

망원시장 바자회 행사를 알리는 홍보물(좌)와 주민제안공모사업 협약식 사진(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과 대형할인점의 진출이 '재래시장'의 새로운 부흥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망원시장'은 재래시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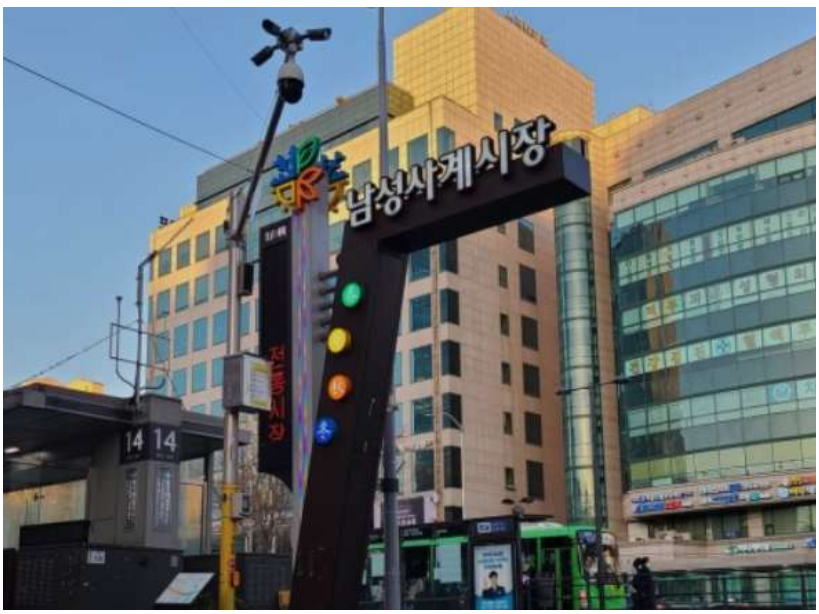
수집기증기록 2016.05.05.(좌)와 2016.07.25.(우)

‘어린이날 놀이 한마당’ 축제(좌)와 망원1동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 주민공청회 안내문(우)

3.3.1 재래시장

남성사계시장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로 브랜드 구축
농수산물, 소비재 중심 다양한 품목 선봬



수집생산기록 2021.11.
총신대입구역 14번 출구 인근 남성사계시장 입구 조형물

지하철 4호선(총신대입구역)과 7호선(이수역)이 만나는 사당2동에는 남성사계시장이 있다. 1966년 청계천 철거민이 대거 남성동(現 사당동)으로 이주하면서 시장이 형성되었고 당시 사당2동이 '남성동'이었기 때문에 지명을 따라 '남성시장'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러나 남성시장은 1980년대 후반 재개발로 철거되었고, 일부 상인들이 현재의 남성사계시장 일대로 이동하여 명맥을 이어왔다.

세월 속에서 남성시장은 사라졌지만, 상인과 지역주민의 기억 한편에서 자리를 지켰다.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정류장과 승하차 안내방송에서는 과거 남성시장이 있던 그곳을 여전히 '남성시장역'으로 불렀다. 지금도 인근의 지하철역에서는 과거 '남성시장'이라는 이름을 종종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남성시장이 상인과 지역주민의 기억 속에 공고히 자리하였기 때문에 시장을 다시 개설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다. 1994년 상가 일대의 노점상 철거를 둘러싼 문제가 표면에 떠오르면서 상인연합회가 형성되었다. 상인연합회는 상인의 이

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활동했으나 지속적인 운영과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고 상권의 변화와 건물주 등 이해당사자들이 바뀌면서 추진력을 잃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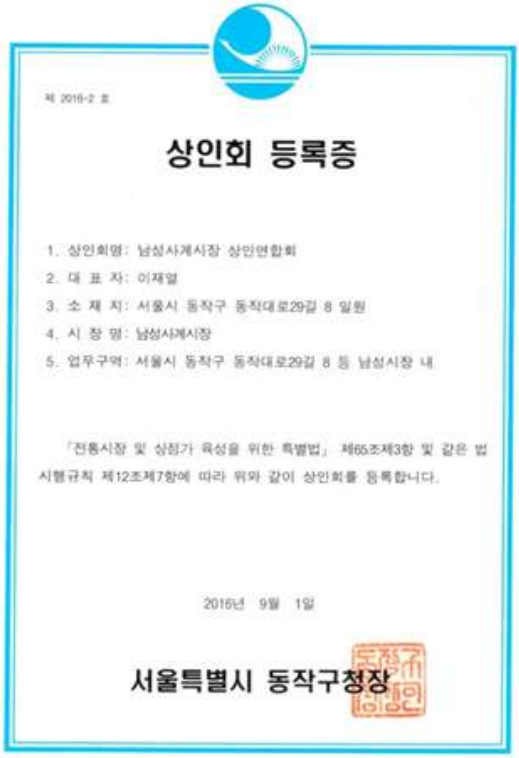


수집생산기록 2021.11.
총신대입구역 14번 출구의 안내 문구

이후 2012년, 남성시장이 소멸한 후에도 현재의 시장 자리에서 골목시장을 형성하며 장사를 이어왔던 10여 명의 상인친목회가 중심이 되어 상인회를 구성하고 남성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마침내 2014년 11월 서울시로부터 상인회 등록 인가와 전통시장 인가를 받으며 역사의 흐름 속에 묻혀 있던 남성시장이 부활하였다.

그러나 남성시장이 부활하기까지의 과정은 쉽지 않았다. 상인회를 운영할 예산과 인력도 부족했고 초창기에는 상인들의 참여도 저조했다. 상인회에 참가하지 않거나 상인회 소속이지만 상인회비를 내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친목회를 중심으로 갖은 노력 끝에 소액의 단발성 지원사업들을 따내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지원사업들을 따내면서 회의적이었던 상인들도 차츰 상인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시작했다.

초창기 상인들의 저조한 참여보다 어려웠던 것은 전통시장 등록을 위해서 건물주들의 동의를 받는 과정이었다. 재건축, 매매 등의 제한을 우려한 건물주들을 설득하는 과정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쉽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전통시장 등록이 몇 차례 연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상인회와 동작구청, 주민단체가 긴밀하게 협력한 결과 마침내 동작구 시장 중에서는 최초로 서울시 전통시장으로 등록을 할 수 있었다.



제 2016-2 호

상인회 등록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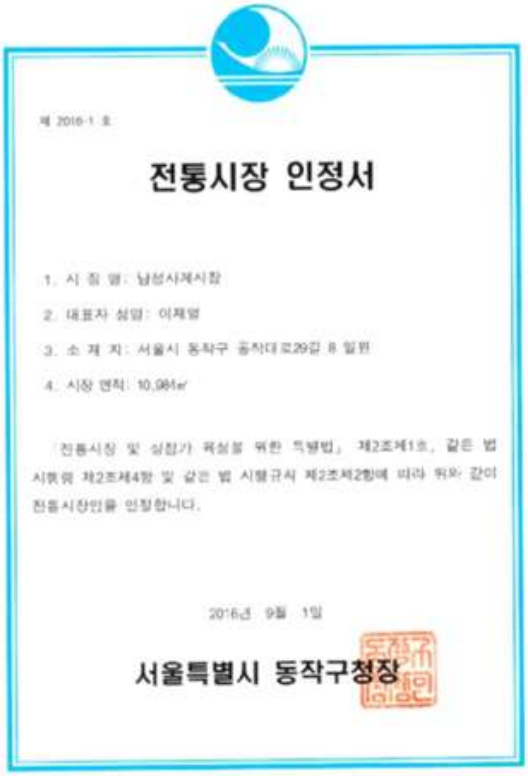
1. 상인회명: 남성사계시장 상인연합회
2. 대 표 자: 이재열
3. 소 재 지: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29길 8 일원
4. 시 장 명: 남성사계시장
5. 업무구역: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29길 8 등 남성시장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인회를 등록합니다.

2016년 9월 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수집기증기록 2016.09.01.
남성시장 상인회 등록증



제 2016-1 호

전통시장 인정서

1. 시 장 명: 남성사계시장
2. 대표자 성명: 이재열
3. 소 재 지: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29길 8 일원
4. 시장 면적: 10,98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통시장임을 인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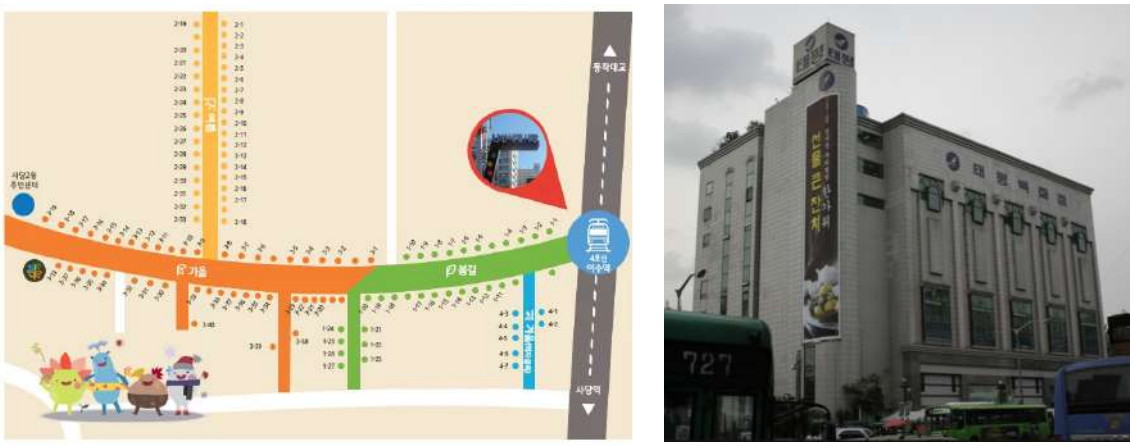
2016년 9월 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수집기증기록 2014.11.
남성사계시장 전통시장 인정서

전통시장 등록은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나 전통시장 등록이 곧바로 매출 증가나 시장 활성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교통이 편리하여 유동 인구가 많고 인근에 대학교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자리하고 있지만, 그만큼 인근에 있는 백화점과 크고 작은 슈퍼마켓과 기업형 슈퍼마켓, 주변 전통시장들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남성사계시장과 인접한 태평백화점이 2021년 10월 31일 영업을 종료하고 폐점한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상인회가 주목한 것은 시장에 브랜드를 입혀 다른 백화점이나 전통시장과 차별성을 갖는 것이었다. 남성시장에서 약 1.5km 거리에는 남성역시장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이름이 비슷하여 두 시장을 처음 찾는 사람들이나 외지인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여 두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이에 상인회는 골목형 시장 사업의 하나로 방문객에게 설문조사를 거쳐 시장 명칭을 '남성시장'에서 '남성사계시장'으로 변경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네 철을 뜻하는 사계(四季)라는 이름이 시장의 브랜드 구축에 용이하고 특정 업종이나 품목에 치중하기보다는 1차 상품(농·수산물 및 소비재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업종과 품목이 존재하는 남성시장의 성격에도 부합하기 때문이었다.



수집기증기록 2021.10.

남성사계시장 안내도(좌)와 구 태평백화점(우)



수집기증기록 2019.01.11.

여름길 스카이 조명 점등식

상인회는 시장의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라 '사계'라는 이름에 걸맞게 시장의 모습도 변화시켰다. 구역별로 '봄길', '여름길', '가을길', '겨울길' 4개의 길로 나누어 각각 품목을 특화하고 이를 시각적으로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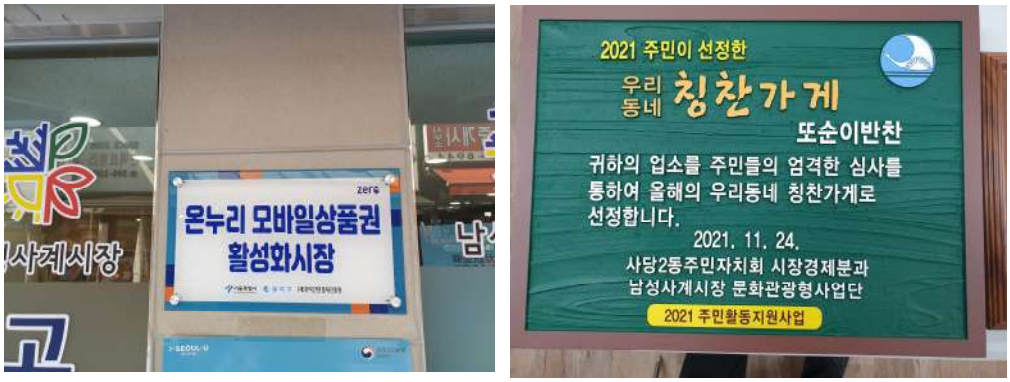
한편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판매에도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다.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네이버 장보기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각종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판매 행사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2020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상품 판매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교통이 편리하고 유동 인구가 많으며 1차 상품을 중심으로 다양한 품목을 갖추고 있는 남성사계시장은 상대적으로 코로나19의 피해를 다른 전통시장보다 상대적으로 덜 받았지만, 온라인 플랫

폼에 소홀했던 점포들이 평균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았다.
적극적으로 현대화사업과 활성화사업을 시행한 남성사계시장이지만 전통시장 본연의 기능인 상거래와 이를 위한 방문객의 편의에도 많은 신경을 기울이면서 균형 잡힌 전통시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수집생산기록 2021.
계절별 사계길 안내도



수집기증기록 2020.03.24.(좌)와 2021.11.24.(우)
온누리 모바일상품권 활성화시장 인정 현판과 주민이 선정한 가게 현판



수집생산기록 2021.12.05.
남성사계시장 온라인 장보기

Network
네트워크

S-NAP 6.1
마을만들기

대문을 열고 나가면 펼쳐진 골목길은 아이들의 놀이터였고 담장 너머로는 음식들이 오고 갔으며 옆집 강아지가 새끼를 몇 마리 낳았는지까지 알던 시절. 누군가는 자기 집 현관을 열고 누군가는 담벼락에 기대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던 정겨운 모습. 아빠의 민방위 훈련 통지서를 통장 아주머니가 돌릴 때면 또 한 번 수다의 장이 열리곤 했다. 어느 날 불어 닥친 개발의 바람으로 골목길이 사라지고 그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지면서 점차 마을은 붕괴되어 갔다. 앞집에는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른 채 동전을 넣으면 나오는 자판기의 커피처럼 버튼을 누르면 1층으로 데려다주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로지 앞만 보고 걸어간다. 출퇴근길 만나 인사를 나누던 마을 이웃들의 자리는 귀에 꼽은 이어폰과 손에 든 핸드폰이, 담장 너머 오고갔던 음식들은 온라인 주문을 통한 배달음식이 대신한다. 1990년대 중반 우리 사회는 커다란 위기를 맞이했다.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는 엄청난 사건들이 발생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로 국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성장지상주의'와 '무한경쟁' 속에 앞만 보고 달려온 사람들은 더 이상 국가를 믿을 수 없게 되었다. 풍전등화처럼 언제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을지 모른 채 불안함에 떨며 사회적 관계망은 조금씩 무너졌다. 언젠가부터 노인들의 고독사가 뉴스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개인의 목적과 이익이 우선시되는 '이익사회'가 되었다. 물질 만능주의, 성과주의로 치달으며 인간성 상실과 인간소외 현상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 '피로사회'에 들어선 우리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 이제야 사람들은 주위를 둘러보며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꾸기 시작했다. 슬픔과 기쁨을 나누고 정을 나누는 등의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공동의 유대감을 느끼는 공동체의 회복이 절실하다. 21세기의 마을은 전통시대의 마을과 다른 양상을 띤다. 이웃집의 대소사를 챙기고 옆집의 숟가락이 몇 개고 오늘 저녁 반찬을 무엇인지 등 집안 사정을 속속들이 아는 '밀착된 공동체'가 아닌 사생활을 존중하고 서로 다른 삶의 모습을 인정하고 공감하면서 공통의 관심사와 목표를 나누는 '느슨한 공동체'이다. 오늘날 마을공동체는 "따로 또 같이"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S-NAP '마을 만들기'의 하위 수집실행지침은 다음과 같다. '마을공동체 복원', '생태 마을', '특성화 마을', '마

을 만들기 지원'이 그것이다. S-NAP '마을 만들기'는 마을을 통해 관계망을 형성하고 도시 만들기를 통해 되살아나는 마을공동체의 다양한 모습을 담고자 한다.

S-NAP 6.1 마을 만들기 6.1.4 마을 만들기 지원

‘주로 시골에서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이라는 마을의 사전적 정의는 지리적, 물리적 특성만을 반영한 전통적 개념이다. 오늘날의 마을은 지리적, 물리적 특성을 넘어 사회문화적인 공감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공유하는 사회적 관계망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리적으로 한 곳에 모여 사는 ‘마을’이 아닌 공통의 가치와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인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마을 만들기를 하려고 한다. 서울시는 마을공동체를 경제, 문화, 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이며 주민자치 공동체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하는 공동체로 규정한다.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는 마을공동체가 진행하는 활동으로 마을공동체 회복의 기회를 제공한다.

❒ 수집주제, 왜 재래시장인가?

마을 만들기는 마을주민 스스로가 민주적 소통과 협동을 통해 공동체적 관계망을 만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드는 전반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마을은 무엇인가? 전통적인 마을의 정의는 지리적 동질성에서 찾는다. 마을 사람이란 곧 같은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서울의 현재 모습은 어떠한가? 같은 아파트라 할지라도 바로 옆 호에 누가 사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마을의 전통적 정의는 이미 화석화된 지 오래되었다.
이 화석화된 마을의 전통적 정의를 지방 분권과 맞물린 공동체 기반 형성으로 담아낸 개념이 바로 ‘마을공동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급속한 도시화와 개발로 사라진 ‘사람의 가치’와 ‘신뢰의 관계망’을 회복하고자 하는 공동체 의식이 대두되면서 주민들이 점차 자신의 문제로서 마을의 문제를 받아들이고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물론 마을의 역사성, 정체성을 보존하고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추진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은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서울시가 공동의 가치와 유사한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의 집단인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마을 만들기'에 기울인 노력이 값진 결실을 맺고 있다.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는 민·관의 대등한 거버넌스를 넘어 “민이 주도하는” 협치를 전제로 한다. 주민주도를 위해서는 행정상의 개선이 필요하며, 지원절차와 예

산제도, 평가방법의 대안적인 제도화도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의 성과를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난관도 존재했다. 기본적으로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유지·관리할 수 있는 주민조직의 부재, 공공 지원 부족 등은 단발적 마을 만들기에 그치는 한계점으로 지금도 지적되고 있다. 이에 2021년 서울기록화 수집주제의 하나로 'S-NAP 6.1.4 마을 만들기 지원'을 선정하여, 마을 만들기의 정량적 성과만이 아니라 마을공동체 주민들이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연대를 통해 이룬 '마을공동체'의 정량적, 서사적 성과를 수집하고자 했다. '마을 만들기 지원'이 거버넌스를 넘어 완전한 주민자치로 가는 데에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6.1.4 마을 만들기 지원

금천구 마을 공동체

마을공동체는 주민자치 출발
행정은 '활성화' 지원 역할

금천구 마을공동체는 국가가 다 해결해 줄 수 없는 주민들의 생활, 경제, 문화적 과제를 '마을공동체' 안에서 주민자치로 해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 인간소외, 고령화, 저출산, 경제위기, 다문화, 청년실업 문제 등이 개인마다 따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마을공동체' 안에서 해법을 찾아야 하는 문제로 여기기 때문이다. 주민이 스스로 살기 좋은 마을을 이루고자 함께 모여, 함께 기르고, 함께 먹을거리를 찾아보고, 함께 일자리를 마련하여, 함께 즐기고, 행정은 이를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것, 바로 그것이 '마을공동체'이다.



수집기증기록 2021.10.09.
금천구를 찍은 사진

이러한 과정에서 여타 다른 공동체와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별도의 마을공동체기록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을공동체 차원에서 마을기록과 마을기록 아카이브를 어떻게 운영하고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았습니다. 금천구 마을공동체기록관의 설립 배경과 그

과정, 그리고 정책적 근거를 돌아보면서 금천구 마을공동체기록관이 꾸는 꿈을 함께 공유합니다.” 금천구 마을공동체기록관은 무엇보다도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어 움직이는 주민 참여를 우선시하고 있다. 주민의 자발적, 능동적인 참여가 지속되지 않으면 기록관만이 아니라 마을공동체센터의 존립 기반조차 위태롭기 때문이다.



수집기증기록 2021.10.09.

금천마을공동체의 다양한 교육 및 행사 활동

이때 요구되는 질문은 “주민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란 거버넌스의 공리다. 공리는 증명하지 않아도 참인 명제다. 기록관은 지역주민에게 “마을, 사람, 자치 생태계로 그물망을 짠 마을공동체”로 그 행복의 일부를 선사하고 싶어 한다.

그 노력의 하나로 기록관은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매우 다양한 행사와 교육을 상시로 운영하고 있다.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마을 강좌를 지원하고, 마을 기록가 학교를 운영하는 등 일정이 가득 차 있다.

금천구 마을공동체 엄샛별 PM은 마을주민과의 각종 협업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각자 생업이 있는 주민들이어서 주말 근무는 필수적이다.

“주로 현장 실습 교육을 위주로 진행하고 있어요. 영상기록을 남기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 특히 영상기록을 남기는 교육에 대한 반응이 좋아요. 많은 분께서 참석해 주셨는데 너무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셔서, 원래 계획했던 교육 일정보다 더 차수를 늘려서 진행했어요. 참석자분들이 실제로 영상기록을 남기는 방법에 대해 더 듣고 싶다는 요청이 쇄도해서요.” 엄샛별 PM은 몸은 힘들지만, 주민들의 요청이 쇄도할 때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수집생산기록 2021.10.24.
엄샛별 금천구 마을공동체아카이브 PM 면담
“여가와 일의 구분이 없어요. 마을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대부분 경계가 없습니다. 주말에도 일하는 사람을 만나죠. 즐거워서 하는 일이니, 그 일의 성취감도 남다릅니다.”



수집생산기록 2021.10.24.
박현주(금천구 주민) 면담
“2010년 혹은 2011년, 구청에서 친환경 쌀 품평회 같은 것을 했었는데, 그 행사가 너무 재밌었어요. 사진을 찍고 블로그에도 남겼는데 구청 홍보과에서 제가 찍은 사진을 써도 되냐는 문의가 왔어요. 제가 하는 활동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미를 느꼈지요.”



수집생산기록 2021.10.24.
김명환(수상한 협동조합 대표) 면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향유 할 수 있는 오프라인 플랫폼을 만들고 재밌는 활동을 하고 싶었어요.“



수집생산기록 2021.10.24.
신용란(독산4동 마을활동가) 면담
"독산4동에는 마을정원사 선생님들이 마을에서 식물을 키우고 쓰레기로 덮힌 곳을 예쁜 화단으로 가꾸는 것을 보면서 그분들을 보면서 같은 생각을 했어요.”

마을공동체 여러 활동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단연 전시 활동이다. 마을공동체 전시의 특징은 일회성이 아닌 꾸준함에 있다. 소소한마을전시라는 큰 제목 아래 각종 단체나 소재를 발굴해 이에 해당하는 작은 제목의 전시를 꾸준히 열고 있다. ‘소소한마을전시_금천학부모모임’, ‘소소한마을전시_라디오금천’ 등이 성황리에 열렸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마을공동체 주민들과 소통하고 함께 나아가려는 이들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6.1.4 마을 만들기 지원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서울시민과 강남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강남'이라는 지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강남은 경제적으로 서울, 넓게 보면 한국을 가장 앞장서서 선도하는 곳으로 인식되어 있다. 쾌적한 도시환경과 높은 녹지 비율, 편리한 교통과 화려한 외관을 가진 강남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이상향이나 꿈으로 인식되면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철저히 타자화된 경험이 있다.

강남이 우리 사회의 첨단과 최신을 선도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어느 곳보다 빠르게 변화한다. '강남'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계급적인 의미를 함의하고 있으며 강남을 이루는 구성원 개개인에게, 심지어 강남에서 태어나거나 오랜 기간 살아온 주민에게조차 '고향'이나 내가 살아온 '마을'의 개념으로 쉽게 인식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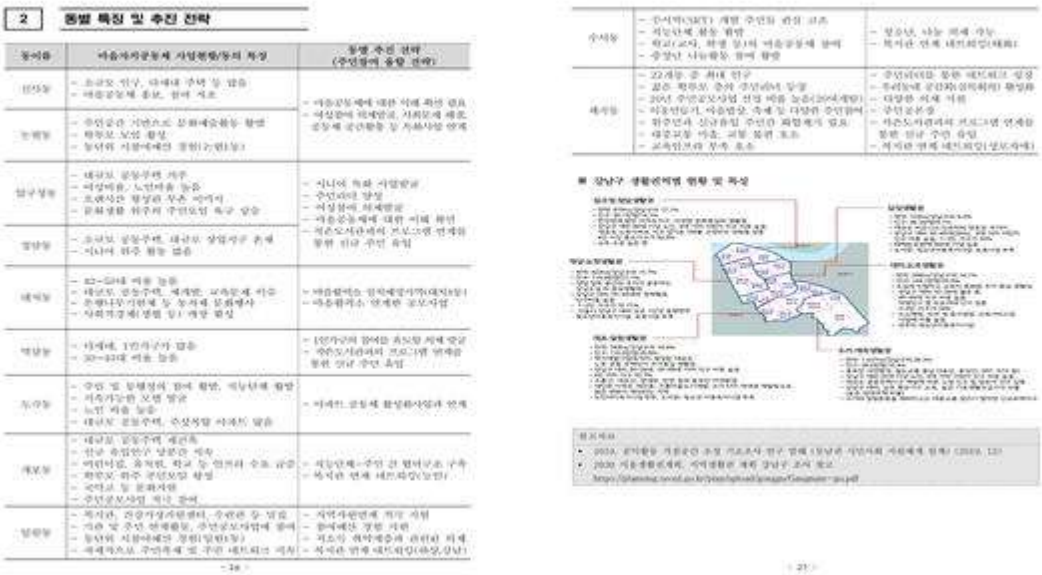
강남에서 태어나 오랫동안 살아온 '토박이'의 숫자도 적고,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의 집합인 강남 속에서 '마을'이라는 개념은 쉽게 이해되기 어렵다.



수집생산기록 2021.11.22.
신은희 강남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면담

자연스럽게 마을활동, 공동체 활동에 관한 관심이 다른 지역에 비해 미미했기에 강남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다른 서울의 자치구와 비교하여 비교적 늦은 2019년에 운영을 시작했다.

시작은 늦었지만 강남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강남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역시 다른 자치구의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마찬가지로 협치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들과 유사한 기능과 업무를 수행하면서 한편으로는 강남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마을교육' 활동에 방점을 두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수집기증기록 2021.
운영위원회 자료

이를 위해 삶의 터전으로서 강남이라는 지역을 사유할 수 있도록 강남풍경(강남이라는 지역을 주제로 한 인문학 강연)과 같은 미미위(MEMEWE) 마을학교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마을로서 강남이라는 지역을 생각할 수 있는 기반을 함양하고자 했으며 단계별로 이해와 실천을 심화시킬 수 있도록 조직하고 있다.
강남이라는 지역적 특성, 강남 내의 각 동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접근은 미미위(MEMEWE) 학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마을학교, 마을활동가교육과 같은 강남마을아카데미와 같은 프로그램에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수집기증기록 2021.02.18.
주민공모사업 예비신청자를 위한 워크숍 발표 자료

또한 지역주민의 공모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의제 개발, 제안서 작성 등 주민공모사업교육을 통해 거버넌스를 촉진하고,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동별교육을 통해 마을공동체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과정명	진행일정	운영방식	회기	내용
입문과정	1. 강남풍경	분기 1회	비대면	2시간×4회	강남다양한 모습을 다시 보면서 마을과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마을인문학 과정
	2. 마을 체험학교	매월 1회	비대면	1시간×6회	매월 다양한 관점과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공동체 활동과 사람을 소개하는 시간
	도서관×마을 이음 학교				
	3. 정다운 마을학교	5월	비대면	2시간×3회	마을과 예술 정다운 도서관과 함께 하는 마을학교
	4. 역삼 마을학교	6월	비대면	2시간×3회	공간과 마을 역삼 도서관과 함께 하는 마을학교
	5. 못골 마을학교	7월	비대면	2시간×3회	배움과 마을 못골 도서관과 함께 하는 마을학교
전문과정	6. 마을미디어 과정	3-4월	비대면	2시간×4회	공동체 미디어의 이해를 돕는 과정
	7. 마을기록 과정	4-5월	비대면	2시간×4회	주민들의 활동을 기록하기 위한 수집, 정리, 분류 하는 활동 과정
	8. 마을기획자 과정	5월	비대면	2시간×4회	지역 자원, 문화, 커뮤니티를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문화 기획자 과정
	9. 주민자율조정 과정	6월	비대면	2시간×4회	주민간의 소통과 협력, 자율조정 문화를 만들어 가는 주민자율조정 일문과정
	10. 미정	하반기	비대면	2시간×4회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교육 계획
심화과정	11. 소통촉진자 과정	9월	대면	4시간×4회	민주적 의사소통과 수평적 대화를 돕는 진행자(회의/교육) 과정
	11개 과정, 43회			88시간	

수집기증기록 2020.09.07.(좌)와 2021.(우)

강남풍경 홍보 포스터(좌)와 미미위 마을학교 과정표(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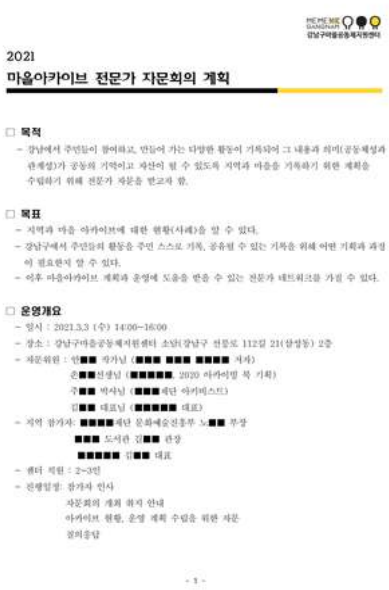
수집기증기록 2020.09.23.

강남풍경 오프라인 강의(코로나 시대, 화면에 갇힌 아이들)



수집기증기록 2021.10.21.

강남풍경 오프라인 강의(개포동 그곳)



2021

마을아카이브 전문가 자문회의 계획

□ 목적

- 강남에서 주민들이 들어와서, 만들어 가는 다양한 활동이 기록되어 그 내용과 의미(공동체성과 관계성)가 공동의 기억이고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지역과 마을을 기록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받고자 함.

□ 목표

- 지역과 마을 아카이브에 대한 현황(사례)을 알 수 있다.
- 강남구에서 주민들의 활동을 주민 스스로 기록, 공유될 수 있는 기록을 위해 어떤 기록과 과정이 필요한지 알 수 있다.
- 이후 마을아카이브 계획과 운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다.

□ 운영개요

- 일시 : 2021.3.3 (수) 14:00~16:00
- 장소 : 강남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소담(강남구 선릉로 112길 21(삼성동) 2층
- 자문위원 : 민■■ 작가님 (■■■ ■■■ ■■■■ 저자)
  손■■선생님 (■■■■■, 2020 아카이빙 북 기획)
  주■■ 박사님 (■■■재단 아키비스트)
  김■■ 대표님 (■■■■■■ 대표)
- 지역 참가자: ■■■■재단 문화예술진흥부 노■■ 부장
  ■■■ 도서관 김■■ 관장
  ■■■■■ 김■■ 대표
- 센터 직원 : 2~3인
- 진행일정: 참가자 인사
  자문회의 개최 취지 안내
  아카이브 현황, 운영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질의응답

- 1 -

2021 마을아카이브 전문가 자문회의 회의록	
일 시	2021. 3. 3.(수) 14:00 ~ 16:00
장 소	강남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소담
참 석 자	총 10명 참석 ◦자문위원 3명 : 김■■(■■■■■ 대표), 손■■(■■■■■■■■■■■■ 위촉연구원), 주■■(■■■재단 기록연구실 국장, 아키비스트) ◦지역참가자 4명 : 김■■(■■■■■ 대표), 김■■(■■■■■■■■■■■■ 관장), 노■■(■■■■재단 문화예술진흥부 부장), 조■■ (■■■■재단) ◦강남센터 3명 : 신■■ 센터장, 정■■ 팀장, 고■■ 담원 (●인명 : 참■■, 서기 : 고■■)
회의내용	1. 참가자 소개 ◦자문위원 4명 중 3명이 참석함 (민■■ 작가 《■■■ ■■■ ■■■■》 불참) 2. 자문위의 개최 취지 안내 3. 아카이브 현황 및 운영 계획 수립 과정 자문 ◦아카이브의 의미와 목적 ◦아카이브하기 위한 과정과 필요 자원 ◦마을아카이브 사례 (예시 : 금천구, 은평구) ◦아카이브시스템 사례 (예시 : ■■■재단) ◦의견 - 아카이브시스템은 만들고 나서 유지보수, 관리가 중요함 - 마을아카이브를 하는 목적,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 등에 대한 고민이 먼저 필요하고, 그에 따른 기록화 계획 수립을 진행해야 할 것 같음. - 마을아카이브의 선례인 금천 마을기록관 관계자와의 대화의 장을 여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음 -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작은 단위부터 실제로 아카이브 플랫폼을 구현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음(멘사이트는 취현부담이 적고 실제 구현된 모습을 보고 원하는 기록을 어떻게 기록하면 되는지 구상할 수도 있을 듯함) - ■■■■재단의 경우 강남마을아카이브에서 문화예술 관련 콘텐츠가 발굴되면 그것을 활용하여 문화재단 사업을 구상할 수 있을 것 같음 - 기록의 범위가 광범위하며 어려우니 한 가지 주제를 기록하기로 하고 진행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음
비 고	첨부1. ■■■■■ 김■■ 자문위원 제공자료 [아카이브 자장소 구현 관련]

수집기증기록 2021.03.03.

마을아카이브 전문가 자문회의 계획서(좌)와 마을아카이브 전문가 자문회의 회의록(우)

나아가 효과적인 마을 만들기 지원을 위한 경험과 노하우(know-how)를 공유하는 한편, 다양한 영역에서 벌어지는 강남구 주민들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널리 확산 및 공유되지 못하여 당사자와 주변 몇몇 기억 속에서 파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극복하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고민 끝에 강남구 마을공동체지

원센터가 이러한 활동들의 플랫폼으로서 기능하여 이러한 활동들을 지원하고, 홍보하고, 연계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을아카이브’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강남구는 정주(定住)의식이 다른 지역에 비해 미미하고 ‘마을’이나 ‘공동체’와 같은 개념도 아직 낯선 지역이기 때문에 ‘마을’로서 강남에 대한 사유를 할 수 있는 교육에 보다 방점을 두고 활동. 이에 따라 미미위(MEMEWE) 학교 프로그램이 강남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타 자치구의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비교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프로그램이자 핵심적인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기록 수집도 이러한 기록물을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마을 만들기 활동이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원하는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를 다양한 프로그램에 녹여내어 활동가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강남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핵심적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최종 산출물

1. 2021년 서울기록화 사업 결과보고서

2. 수집 산출물 (별도첨부)

2.1 2021년 수집기록 목록
2.2 2021년 수집기록
2.3 2021년 수집 리드·케이스파일
2.4 2021년 현지조사서
2.5 2021년 다큐멘터리 편집본
2.6 기존 다큐멘터리 서비스용 편집본
2.7 기존 수집기록 목록 정리

3. 네트워크 산출물 (별도첨부)

3.1 네크워크 후보군 목록
3.2 네트워크 면담일지
3.3 네트워크 리드·케이스파일
3.4 서울 기록레터
3.5 네트워크 굿즈 기획서

4. 수집기록 콘텐츠 산출물 (별도첨부)

4.1 2021 서울 아카이빙 북 편집본
4.2 서울의 기록과 기억지도 시안
4.3 서울을 기록하는 사람들 시안

5. 부록

5.1 서사형 아카이브 보기

- 끝 -

2021년 서울기록화 사업 결과보고서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조영삼 서울기록원장

발행처 서울특별시

발행일 2021.12

archives.seoul.go.kr

제작부서 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
제작총괄 김은실 기록정책과장
제작담당 고아름 학예연구사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62길 7
전화 02-350-5600

기획 및 편집 주식회사 매너티
인쇄 바른인쇄

ⓒ 2021. 서울기록원
본 제작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

판매가격 비매품

발간등록번호 51-6113815-000016-01

ISBN 979-11-6599-529-4

